

석사학위논문

제주도 대학생의 외식 행동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정 숙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정 은 정

2000년 8월

제주도 대학생의 외식 행동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정 숙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0년 4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제출자 정 은 정

정은정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0년 7월 일

심사위원장	인
-------	---

심 사 위 원	인
---------	---

심 사 위 원	인
---------	---

제주도 대학생의 외식행동에 관한 연구

정 은 정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지도교수 김 정 숙

이 연구는 제주도 대학생의 외식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에서 조사 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총 533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빈도분석, χ^2 검증, t 검증, 분산분석, Scheffe의 다중범위검증 방법이 이용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이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식습관은 폭식이 36.9%, 결식이 27.2%, 편식이 14.8%, 자극적인 식사가 11.3%였고, 학생의 외식횟수는 주 1-2회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월외식비는 5-10만원미만이었으며, 1회 외식비용은 천원-오천원이 가장 많았다.

둘째, 아침은 63.6% 학생들이 전혀 외식을 하지 않았으나 점심은 10.5%, 저녁은 1.7%에 불과하였다. 점심·저녁 모두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하여 외식비율이 높았으며 점심 외식비율은 인문, 자연계열학생들이 예체능계열보다 높았으며, 저녁외식비율은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높았다.

셋째, 아침은 대부분 끼니해결을 위해서 외식을 하고 있었고 점심은 끼니해결과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외식을 하였으며 저녁은 과반수 이상이 친구를 만나거나 모임 때문에 외식을 하고 있어 저녁외식은 대인관계형성을 위한 장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점심외식동기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아침은 식생활관에 따라 저녁은 주거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취나 하숙하는 학생들은 자가의 경우보다 끼니해결을 위하여 외식하는 비율이 높았고 자가의 학생들은 자취나 하숙하는 학생들보다 친구를 만나기 위해 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넷째, 아침은 영양을 보충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외식을 하고 있었으나 점심은 영

※ 이 논문은 2000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양보충, 친목도모, 맛을 즐김, 시간절약 등 다양한 동기로 외식을 하였으며, 저녁은 약 2/3의 학생들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외식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맛을 즐기고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침은 식사의 본질적 기능의 성격이 강하고 점심은 본질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저녁은 사회적 성격이 강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점심외식은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친목도모를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영양보충을 고려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저녁외식은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영양보충을,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맛을 즐기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점심외식에서 연령이 많은 대학생들은 친목도모를, 연령이 적은 대학생들은 영양보충이나 맛을 즐기는 경향이 높았다.

다섯째, 기호에 대한 만족도는 성별, 식사시간에 따라, 영양에 대한 만족도는 연령, 학년, 전공, 편식정도에 따라, 간편성에 대한 만족도는 연령에 따라, 시간절약에 대한 만족도는 연령, 학년에 따라, 가격에 대한 만족도는 주거형태에 따라, 위생에 대한 만족도는 전공, 편식정도, 외식횟수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외식형태, 외식횟수에 따라, 분위기에 대한 만족도는 전공에 따라, 양은 연령, 학년, 식사시간, 외식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전체적인 외식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거형태와 식사소비시간이었다.

여섯째, 아침은 주로 간편성과 시간절약을, 점심은 기호·간편성·가격을 기준으로, 그리고 저녁은 기호·주위의 권유·분위기·가격을 기준으로 음식점을 선택하고 있었다.

일곱째, 아침과 점심은 학교식당을, 저녁은 분식집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 봄·여름·가을에는 분식집을, 겨울에는 갈빗집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며, 끼니해결을 위해서는 학교식당을,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분식집을, 모임이 있을 때는 갈빗집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여덟째, 한 번 갔던 음식점에 다시 가는 이유는 맛이 좋아서가 69.8%로 가장 많았고, 다시 가지 않는 이유도 맛이 없어서가 57.0%로 가장 많아 모두 맛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친절면과 가격면을 고려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맛을 고려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아홉째, 남자는 여자보다 소주를, 여자는 남자보다 맥주를 더 많이 마시고 있었으며, 그 이유는 남자는 가격이 저렴해서이고 여자는 순해서였다. 음주를 하게 되는 이유는 주로 친목도모를 위해서 였으며, 여자는 남자보다 모임 때문에, 남자는 여자보다 술이 좋아서 마시는 경우가 더 많았다. 여자는 한 달에 한 두 번, 남자는 일주일에 2-3회 정도 술을 마셨으며, 남자의 주량은 2-3병 정도이고, 여자는 과반수 이상이 1병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국문초록	i
 I. 서 론	1
 II. 이론적 배경	4
1. 외식의 정의	4
2. 우리나라 외식산업 실태	5
3. 식생활관련 선행연구 고찰	9
1) 식생활 행동 연구	9
2) 음주행동 연구	13
 III. 연구 방법	16
1. 연구 문제	16
2. 측정 도구의 작성	16
1) 외식행동 관련 문항	17
2) 흡연, 음주 행동 측정문항	17
3) 식생활관 척도	17
4) 외식만족도 척도	17
3.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18
4. 자료의 분석 방법	18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9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9
2. 식생활 관련 일반적 사항	21
3. 외식정도	24
4. 외식동기	26
5. 외식목적	28

6. 외식만족도	30
7. 외식 음식점 선택기준	33
8. 자주 가는 음식점	36
1) 자주 가는 음식점 일반적 경향	36
2) 외식끼니에 따라 자주 가는 음식점	38
3) 계절에 따라 자주 가는 음식점	40
4) 외식동기에 따라 자주 가는 음식점	44
9. 음식점 재 선택 행동	46
10. 음주행동	49
 V. 결론 및 제언	 54
 참고문헌	 57
 Abstract	 60
 부 록	 63
 설 문 지	 76

표 목 차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0
<표 2> 식생활 관련 일반적 사항	22
<표 3> 끼니별 외식 정도	25
<표 4> 외식의 동기	27
<표 5> 외식의 목적	29
<표 6> 외식 만족도	31
<표 7> 음식점 선정 기준	34
<표 8-1> 자주 가는 음식점 일반적 경향	36
<표 8-2> 끼니에 따라 자주 가는 음식점	39
<표 8-3> 계절에 따라 자주 가는 음식점	41
<표 8-4> 동기에 따라 자주 가는 음식점	45
<표 9-1> 다시 가는 이유	48
<표 9-2> 다시 가지 않는 이유	48
<표 10> 성별에 따른 음주행동	51

부 표 목 차

<부표 1>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결식정도	64
<부표 2> 사회인구학적요인에 따른 외식의 동기 2순위	65
<부표 3>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외식의 목적 2순위	66
<부표 4> 계절에 따라 자주 가는 음식점 2순위	67
<부표 5> 친지방문시 자주 가는 음식점	68
<부표 6> 가족외식시 자주 가는 음식점	68
<부표 7> 성별에 따른 식생활 관련 행동	69
<부표 8> 성별에 따른 외식 만족도	70
<부표 9-1>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미각정도	71
<부표 9-2>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미각정도	72
<부표 10> 한번 갔던 음식점에 다시 가는 이유	73
<부표 11> 한번 갔던 음식점에 다시 가지 않는 이유	74
<부표 12> 기호식품 관련 변수 분석	75

I. 서 론

최근 우리 나라는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식생활양식이 크게 변모되어 가고 있으며,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간소화와 편의성을 추구하는 경향은 식생활관리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인스턴트식품의 소비를 증가시켰으며¹⁾ 외식산업을 발달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모수미 등에 의하면 외식이 빠르게 일반화되어 가는 배경에는 소득증대 및 평준화, 소비패턴의 변화, 생활의 레저화, 도시화의 진전, 젊은 연령층의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주부의 시간가치 상승, 핵가족화, 화려하고 이국적인 분위기를 갖춘 외식업체의 등장, 다양한 메뉴의 개발 등의 요인이 관여하고 있다³⁾고 하였다.

개인이 식생활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치관의 차이는 성장한 환경과 함께 현재에 처한 환경에 의해서 다르게 발달되고 변화하게 된다. 개인이 각 식품과 음식섭취에 대하여 부여하는 의미는 매우 다양하며, 또한 시대에 따라 변화된다. 식생활은 원래 배고픔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행위였으나 경제성장과 더불어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이제는 문화의 일환으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다양한 맛을 통한 미적 쾌감을 추구하게 되었다⁴⁾. 특히 대학생들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이며 일반적으로 규칙적이었던 중고등학교 시절과는 달리 갑자기 자유로운 시간을 통해 불규칙한 식사, 빈약한 아침식사, 적절하지 못한 간식, 과다한 음주 등으로 식생활의 조화를 상실하기 쉬운 시기이며⁵⁾

-
- 1) 김향희·황춘선(1991), “한국절식의 시행실태에 관한 지역별 비교연구”, 한국식문화학회지, 6(2), p. 155.
 - 2) 모수미(1986), “외식산업의 발달이 국민영양 및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양학회지, 19(2), p. 120.
 - 3) 모수미·김창영·윤은영·이경신·최경숙(1986), 한국식문화학회지, 1(3), p. 295.
 - 4) 문수재·김정연(1992), “도시대학생들의 식품에 대한 가치평가 분석”, 한국식품영양학회지, 7(1), p. 25.
 - 5) 김화영(1984), “대학생의 영양지식과 식습관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17(3), p. 178.

이러한 요인들이 현대문명의 발달과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의 식습관이 향상되지 않은 원인이 되고 있다. 올바른 영양섭취는 한 개인의 신체 성장 발달 및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이는 바람직한 식습관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대학생의 경우 적절한 영양섭취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자유로워진 생활로 인하여 신체적인 면은 물론 심리적 건강상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며, 또한 간편성 위주의 식습관으로 편의식품을 자주 사용하게 되고 특히 여대생들은 잦은 결식과 외모에 대한 관심 및 옮지 못한 영양지식으로 지나친 체중조절을 위해 지나친 결식을 하고 있다⁶⁾고 보고되었다.

대부분의 식습관은 사춘기 이전에 거의 형성된다. 일단 형성된 식습관은 지속성이 있어 환경이 바뀌어도 쉽게 변화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 연령이 어릴수록 서구식 식사유형을 선호하고 새로운 음식에 대한 진취성이 강한 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새로운 음식보다는 전통적인 식사유형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외식의 빈도가 높은 대학생들은 간편한 인스턴트 식품 및 외래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점차로 식생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결식과 스낵식품의 선호 등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영양적으로 부적당한 식사를 하는 것으로⁷⁾ 보고되었으며, 결식과 편식, 불규칙한 식습관, 잘못된 영양지식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⁸⁾. 또한 대학생 중 73.8%가 음주를 하고 있었으며 모임 참석시에(79.1%), 그리고 친구를 만날 때(76.4%) 대인관계를 위하여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은 고등학생과 달리 음주를 자유로이 접하게 되어 식습관의 새로운 변인으로 작용하여 식품섭취의 불균형과 규칙적이지 못한 식사태도가 많아지고 있다⁹⁾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시기에 잘못 형성된 식습관은 성인기까지 지속되고 결혼을 한

6) 이윤나·최혜미(1994), “대학생의 체격지수와 식습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9(1), pp 1-10.

7) 황혜선(1991), “목포지역 대학생의 식생활 행동 및 영양실태조사”, 한국영양학회지 20(1), p. 65.

8) 김화영(1984)의 전제논문, p. 181.

9) 노정미·유영상(1989), “서울지역대학생의 외식실태 및 기호도 조사연구(II)”, 대한가정학회지, 27(4), p. 52에서 재인용.

후 가정의 식습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대학생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외식소비행동실태와 외식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실증적 자료는 대학생들의 외식소비행동을 이해하고 올바른 외식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또한 올바른 외식습관 확립을 위한 영양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외식의 정의

외식이란 가정외의 식생활을 총칭하여 이르는 말이나 연구자에 따라 개념정의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다. 식생활을 두 가지로 구분하면 내식과 외식으로 구분하고, 내식은 가정생활의 연장인 식사분야로 내식적 내식과 외식적 내식으로 나눌 수 있다. 외식에는 가정의 연장이 아닌 식사분야로 외식적 외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김두진¹⁰⁾의 연구에서는 외식이라 함은 집단급식소(기숙사, 학교, 병원, 후생기관 등)와 각 직장의 구내식당을 제외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음식점에서의 식사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임희진¹¹⁾은 가정외의 식생활을 줄여 외식이라 일컬으나, 현대에는 완제품 요리전문점, 배달요리전문점, 출장요리전문점등의 식품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가정외 식사와 가정내 식사의 장소구분에 관계없이 단지 먹는 음식물인 최후 소비상품이 가정안에서의 가공이라는 부가가치를 포함하지 않는 것, 일부 포함하더라도 기본적인 미각의 변용과 귀찮은 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광의의 외식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전통적 의미의 내식, 즉 내식적 내식을 제외한 모든 식사행위 혹은 식생활이 외식의 범주에 속한다고 하였다. 외식적 내식과 외식적 외식을 외식의 개념으로 정의한 것이다.

또한 전해경¹²⁾의 연구에서는 외식이란 가정 밖에서 행하는 식사의 총칭으로서 일반적으로 외식산업은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요리나 음료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지칭하며, 식사와 음료, 거기에 부수되는

10) 김두진(1994)의 전제논문, p 240.

11) 임희진(1993), “외식산업 정보시스템의 효과적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 전해경(1998), “소비자의 외식서비스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5.

인적 서비스, 연출되는 분위기 등의 상품내용을 본질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식사와 음료까지를 외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상을 대학생으로 하여 그들의 외식행동 성향을 파악하고자 하므로 학교식당과 같은 집단급식소를 포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에서의 식사와 음주행위까지를 외식행동으로 규정하여 내식적 내식을 제외한 식생활을 외식의 개념으로 보았다. 이것은 현대사회에서의 식사는 단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생활이라는 레저의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만들어서 먹는 음식이외의 것을 외식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2. 우리 나라 외식 산업 실태

1) 외식산업의 개념과 기능

외식산업은 넓은 의미에서 정의해 보면, 식품 또는 그 원·부자재를 중앙공급에 의하여 공급받아 신속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제공하고, 셀프서비스제의 도입으로 운영의 간소화를 기하며, 메뉴의 통일, 대규모의 체인전개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식품서비스산업을 뜻한다. 이를 좁은 의미에서 보면,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식사의 제공, 인적 서비스의 제공, 분위기의 연출, 식사와 관련된 편의제공등을 상품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¹³⁾

외식산업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식사를 즐기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자신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창출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외식산업은 요리와 음료의 제공과 더불어 외식이라는 상징적 행위 그 자체를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⁴⁾ 또한 외식산업은 현대인의 기호와 욕구 충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적 기능을 하고 있다.¹⁵⁾

첫째, 식사욕구의 충족: 인간의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소비된 에너지

13) 전해경(1998)의 전제논문. p.5.

14) 임희진(1993)의 전제논문. p.6

15) 주장건(1992), “관광정보시스템”, 일신사, p. 301.

와 기력을 회복시켜 준다. 오늘날은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가정을 대신하여 우리들에게 식사와 음료를 제공하여 활력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사교의 장: 식당에서 친구를 만나고, 각종 모임이나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사교와 만남의 장소로 이용된다.

셋째, 휴식의 장: 여행이나 활동 중에 잠시 들러서 쉬는 장소로서 가능하다.

넷째, 전통음식의 보전: 경우에 따라서는 식당은 그 지방 고유의 음식문화를 창조,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장소가 되며 그 자체가 관광상품이 되기도 한다.

다섯째, 조리·생산기능: 조리, 가공기능으로 요리를 만들어서 제조, 생산하는 “제조업”의 기능을 한다.

여섯째, 판매·서비스 기능: 만들어진 식사 또는 요리를 상품으로 하여 최종 소비자인 고객에게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식당은 기업으로서 고용창출, 수익창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2) 국내 외식동향

소득증가와 식품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외식비 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이¹⁶⁾ 발표한 “지난 30년간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 변화”에 의하면 66년 이후 30년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9.8배, 실질 소비지출은 소득증가보다 낮은 6.8배 늘어났다. 전체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6년 57.3%로 절반을 넘었으나, 96년 28.5%로 감소하였으며, 교통통신비·외식비·교양오락비 지출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식료품소비 중에서 곡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낮아져서, 쌀의 소비지출비중은 지난 30년간 8배 이상 줄었다. 반면 외식비의 비중은 66년 전체 소비지출의 0.8%를 차지했으나 96년 10%로 30년간 12배가 증가하였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서울거주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서울시민의 가구 당 외식비는 17만 7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7.4%, 소

16) 임희진(1993)의 전개논문.

비지출의 1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외식빈도는 4.7회이며 1회 평균 외식비는 1만 3천7백원으로 나타났다.¹⁷⁾

지난 94-96년 중 도시 근로자의 외식비 증가율은 18.1%로 같은 기간 연평균 소득증가율인 12.5% 및 소비 지출증가율인 11.9%를 크게 앞질렀고, 가계 식료품비 지출 가운데서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76년 2.15%에서 96년에는 35.5%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¹⁸⁾

소비자보호원이 일본 통계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한·일 외식비 추이’를 보면 일본가구의 외식비 지출을 1백으로 기준 했을 때 한국의 외식비는 94년 91.2였던 것이 95년 103.1, 96년 133.5로 일본을 앞질렀다.¹⁹⁾

외식의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바로 외식산업의 급격한 확대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이 지난 90년 23만 2천5백28개에서 97년 47만7천4백86개로 무려 24만4천9백58개가 늘어나 7년만에 2.1배가 되었다.²⁰⁾ 지난 90년 이후 전국의 음식점 수가 2.1배로 늘어난 것은 소득증대 및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외식비 급증추세를 반영하였다.

한국식품개발원은 ‘외식산업의 구조와 전망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국내 외식산업규모는 국내유수대기업들이 참여와 외국 외식기업들의 국내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따라 95년도에 17조원에 이르렀으며, 97년에 21조원, 98년에는 23조원, 2000년도에는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²¹⁾ 한편 치킨점, 피자점, 패밀리 레스토랑, 패스트푸드점, 아이스크림 등 서구식 체인브랜드업체는 1996년 5월경 80여 업체로 집계되며 점포수는 895개에서 96년말 약 1170개로 점포수가 크게 증대되고 있다.²²⁾ 96년도 외식산업 매출액을 업체별로 보면 패스트푸드점이 3,990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는데, 문화의 서구화 현상이 우리 식생활에 깊숙이 침투하면서 패

17) 중앙일보(1997), “외식 씹씹이 헤프다”, 1997. 10.1일자 재인용.

18) 전해경(1998)의 전개논문.

19) 전해경(1998)의 전개논문.

20) 한국일보(1997), “음식점의 수 7년동안 2배로 증가”, 1997.10.9일자 재인용.

21) 동아일보(1996), “외식산업 2000년에 30조원에 달할 전망”, 1996. 4. 27일자 재인용.

22) 한국경제신문(1996), “외식비 지출증가와 함께 외식업체들의 점포수 크게 늘어”, 1996. 5. 7일자 재인용.

스트푸드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³⁾

패스트푸드(fast food)란 외식산업의 한 부분으로 빠르게 생활하는 현대인들에게 먹기에 간편하고, 빠르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싼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해 개발된 음식으로 제조와 판매가 분리된 조직적인 경영기법이 도입된 햄버거, 도넛, 치킨, 아이스크림, 면류 체인 등을 지칭하며 음식의 질(quality), 서비스(service), 청결성(cleanliness)을 강조함으로 같은 체인점이면 어디서나 똑같은 맛, 서비스, 쾌적한 점포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특징이 있다.²⁴⁾ 현재 주요 외식산업의 형태로는 서구식 패스트푸드를 취급하는 프랜차이즈 상점, 도시락 등을 집으로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음식을 취급하는 테이크 아웃 상점, 식사하면서 아울러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카페, 가족 단위 외식의 중심이 되는 패밀리 레스토랑 등이 있는데 최근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 보급되면서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곳이 패스트푸드점이다.²⁵⁾

학생들의 패스트푸드 외식 행동에 관한 실태조사²⁶⁾에 의하면 과거에는 패스트푸드점이 아이스크림이나 음료를 마시기 위한 간식섭취를 목적으로 이용하였으나 점차 햄버거나 피자, 면류점과 같은 식사를 해결하기 위하여 패스트푸드를 이용하고 있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스턴트 식품과 패스트푸드 식사에 대한 인식 및 기호에 관한 전미정²⁷⁾의 조사에서 청소년층의 85%가 패스트푸드 식당을 이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청소년층을 포함한 젊은 세대에서 외식산업에 대한 관심도나 이용도가 커지는 경향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가맹점들은 일반음식점들 보다 건물의 외관, 인테리어, 종업원의 복장과 서비스가 좋고 간편하면서도 맛있는 패스트푸드음식을 제공하고 있어 많은 청소년층과 여자들의 기호를 더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두진²⁸⁾의 연구에서도 여자와 청소년층이 좋아하는 체인점의 종류는

23) 한국경제신문(1996), “외식비 지출증가와 함께 외식업체들의 점포수 크게 늘어”, 1996. 5. 7일자 재인용.

24) 윤혜진·위성언(1994)의 전제논문, p. 324.

25) 모수미(1986)의 전제논문.

26) 윤혜진·위성언(1994)의 전제논문, p. 326.

27) 전미정의 3명(1990), 대한가정학회지, 28(2), p. 15.

외국브랜드가 주종을 이루는 햄버거, 피자, 포크커틀릿과 같은 패스트푸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패스트푸드시장이 좁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패스트푸드에 맛을 들인 현재의 청소년들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외식시장에서 패스트푸드의 영역은 더욱 커지리라 본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의 우리 국민의 식생활과 전통식문화의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의 신속, 간편성 위주의 패스트푸드외식으로부터 문제가 되는 단순한 메뉴와 영양을 고려하지 않고 비만의 원인이 되는 지방이 많은 음식 등을 개선하여 영양이 고루 함유된 음식을 개발하고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패스트푸드산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3. 식생활행동관련 선행연구 고찰

1) 식생활 행동 연구

식품산업의 고도 격변기에 식습관이 형성되는 시기를 보낸 대학생세대들은 다양한 가공식품의 발달로 인하여 섭취하기에 편리한 가공·즉석식품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김초영 등은²⁹⁾ 패스트푸드식사의 영양 및 품질 면의 불안정은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대학생들의 가공 및 편의 식품 섭취형태 및 외식형태에서 분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스낵, 각종 인스턴트 식품 및 탄산음료 등 대부분의 간식과 편의식품은 열량영양소인 당질과 지방은 과잉이나, 미량영양소인 칼슘, 티아민, 리보플라빈, 철분 등은 부족하여 비만 및 영양불균형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실제 영양불균형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연구한 황혜선³⁰⁾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자각하는 건강상태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자신이 건강하다고 답한 사람은 55%로 나타났고

28) 김두진(1994)의 전제논문.

29) 김초영·남순란·곽동경(1990), 한국식품과학지, 5(3), p.361.

30) 황혜선(1991)의 전제논문.

Stress(38.6%), 감기(28.6%), 위장장애(20.0%)가 있는 것으로 답하였고 피로감, 고독감, 시력장애, 두통, 호흡곤란, 관절염 등 정신적·심리적 자각증상의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영미³¹⁾등의 연구에 의하면 많은 중·고등학생들의 식사가 불규칙적이고 가장 불규칙적인 식사는 아침이며 그 이유는 시간부족, 식욕부진, 소화불량, 간식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백현순³²⁾도 식사의 불규칙성 및 특정식품에 대한 편견, 편식 등을 많이 인식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중·고등학교의 식습관이 대학시기에 까지 지속되고 식사의 불규칙성과 결식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고 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식습관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에서³³⁾도 50%이상의 대학생이 아침식사를 거르고 있었는데 그 이유로는 시간 부족을 가장 많이 꼽고 있었다. 식사를 거르지 않는 학생은 남녀 모두 10%내외로 매우 낮고,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식사를 더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을 거르는 학생들이 필수영양소의 섭취가 부족하고 아침을 규칙적으로 먹는 사람이 점심도 규칙적으로 먹는 경향이 있으므로 아침결식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식습관이다. 이에 대한 영양교육과 가정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이·정은자·송요숙³⁴⁾은 영양지식 점수가 식습관 점수와 영양지식 점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전공생은 영양지식이 많다고 자각한 경우가 식습관 점수도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비전공생은 이러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유정순³⁵⁾의 연구에서 영양지식점수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고, 남학생은 영양교육을 받은 학생이 그렇지 못한 학생보다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고, 여학생은 높은 경향을 보이거나 유의적 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순 등³⁶⁾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외식빈도는 하루 1회 이상이 각각

31) 이영미(1986), “도시청소년의 식생활행동과 식품에 대한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2) 백현순(1988), “체중조절 관심도에 따른 섭식태도 및 기호도에 관한 연구-서울시내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3) 유정순·장경자(1995)의 전제논문.

34) 강남이·정은자·송요숙(1992), “식품영양학 전공 여대생과 비전공 여대생의 영양지식 및 식습관의 차이”, 한국식품영양학회지, 5(2), P. 121.

35) 유정순(1995)의 전제논문.

69.7%, 92.1%로, 1989년 남자의 53.3%, 여자의 52.5%라는 결과와는 훨씬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외식하는 이유는 식사섭취가 남녀 각각 54.0%, 78.8%로 가장 많았고 사교적인 것과 도시락 준비로 인한 시간절약 순이었고, 가족외식에서는 43.7%가 집안의 기념일 및 행사로 인한 외식이었다. 또한 외식하는 장소로는 학교 식당이 및 매점이 가장 많았으며, 그 이유는 저렴한 가격과 학교 밖으로 나가는 불편함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식집이 23.0%, 분식집이 20.3%, 그 외 중국집, 양식집 등이 있었다. 특히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학교식당과 매점, 한식집을 선호하고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분식집을 많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⁷⁾ 외식할 때 남학생은 백반류, 비빔밥, 볶음밥, 덮밥, 라면 순이었고 여학생은 국수류, 덮밥류, 볶음밥, 백반, 비빔밥 순으로 볶음밥 및 비빔밥류가 남녀 각각 25.4%, 34.7%로 가장 많았으나 남학생은 찌개 및 백반류도 20.9%나 되었고 면류가 15.6%, 탕류가 12.7%였으며, 면류나 스낵류는 여학생이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시키는 점심이 44.8%로 가장 많고 하루 2회이상 외식하는 경우도 23.7%로 높게 나타났다.

김두진³⁸⁾의 연구에서 점심에 27.9%, 저녁에 24.6%, 점심과 저녁에 47.6%가 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식동기는 끼니해결을 위해서가 65.6%로 가장 많았고, 친구만날 때가 57.4%, 모임 있을 때가 34.4%였으며, 주로 끼니해결을 위해 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선정 기준은 맛이 5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포만감이 10.2%, 가격이 10.0%, 건강상태가 5.7%인 것으로 나타나 맛과 가장 관계가 있었다.³⁹⁾ 집에서 먹는 음식과 외식과의 선호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집에서 먹는 음식이 좋다는 경우가 73.2%였고, 외식이 좋다가 12.5%, 같다가 8.3%로 집에서 먹는 식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패스트푸드 외식실태에 관한 연구⁴⁰⁾에서는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패스트푸드점은 면류점이었고 다음으로 아이스크림점, 햄버거집 등이었

36) 유정순·장경자(1995)의 전제논문.

37) 유정순·장경자(1995)의 전제논문.

38) 김두진(1994)의 전제논문.

39) 유정순·장경자(1995)의 전제논문.

40) 윤혜진·위성연(1994)의 전제논문.

다. 햄버거집과 피자집, 면류점은 주로 한끼 식사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었으나 후라이드치킨집은 간식용과 한끼식사용으로, 아이스크림은 간식용이나 음료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었다.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이유는 주로 음식을 먹기 간편하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으며, 장소가 쾌적하고 용기가 위생적이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음식이 신속히 준비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영양이 풍부해서 이용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은 영양에 대한 고려는 거의 하지 않고 있었다. 햄버거는 단백질이 풍부하여 영양권장량의 1/3을 공급할 수 있고 무기질과 비타민도 풍부하지만⁴¹⁾ 영양 때문에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지는 않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영양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선택시에 영양가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패스트푸드 이용시의 영양가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⁴²⁾

또한 패스트푸드 음식을 선택할 때 고려사항은 기호와 가격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음식준비시간, 보기 좋은 것, 동행인과 같은 것 이었다. 한번에 먹는 양을 보면 대학생들은 식사가 될 정도로 많이 먹는 비율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식사사이의 간식정도로 먹고 있었으나⁴³⁾, 청소년들은 식사사이의 간식이 될 정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식사가 될 정도로 먹었으며,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 정도로만 먹고 있어⁴⁴⁾ 청소년층과 대학생의 패스트푸드를 한번에 먹는 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볼 때 대학생들은 결식과 불규칙한 식사로 인해 식습관에서의 문제점이 많았고, 또한 외식보다 집에서 먹는 식사를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푸드와 같은 즉석 편이 식품에 대한 외식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외식음식을 선택할 때 음식의 영양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식습관을 올바르게 확립하고, 외식음식선택시 영양을 고려하는 습관이 영양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1) A report by the American council on Science and Health(1982), "Fast foods" and the Americal consumer. *J.Am. Dietet.* A. 81 .p 579.

42) 윤혜진·위성언(1994)의 전제논문.

43) 윤혜진·위성언(1994)의 전제논문.

44) 모수미·김창임(1986)의 전제논문.

2) 대학생의 음주행동 연구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 관대하고 음주에 대한 사회적, 집단적 압력이 매우 큰 독특한 공동체적 집단 음주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개인이 자신의 의지대로 주량에 알맞게 술을 적당히 마시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술자리는 대부분이 2·3차로 이어지고 있으며, 계속되는 술 권유 등 잘못된 음주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대학생의 경우 단합대회나 서클모임 등에서 집단적 음주를 하는 과정에서 각 개인의 음주여부에 관계없이 무분별한 음주강요에 따른 각종 음주 사고가 빈발하여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특별한 놀이문화가 없이 놀이의 대용으로 음주를 즐기게 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음주관련 문제가 주로 성인 남자들의 문제였으나 최근 들어 부녀자·청소년층에서의 음주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음주를 시작하는 연령도 낮아지면서 음주관련 문제는 이제 성별, 나이의 구분이 없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음주인구조사⁴⁵⁾에 의하면 20대는 71.9%, 30대는 69.4%, 40대 이상은 62.2%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음주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회사원이 75.6%, 대학생이 73.8%, 자영업자가 62.1% 순이었고, 미성년계층인 고등학생의 음주인구도 23.8%에 이르고 있는 것⁴⁶⁾으로 나타났다. 음주 인구 중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1회 평균 음주량이 과다하여 고등학생은 소주 1.36병, 맥주 3.04병, 대학생은 소주 1.35병, 맥주 3.21병으로 회사원 소주 1.15병, 맥주 2.86병, 자영업자는 소주 1.14병, 맥주 2.10병인 다른 계층에 비해 1회 평균 음주량이 많았다. 또한 음주자의 66.1%가 음주 강요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였는데, 강요받은 경험이 “자주”가 11.5%, “가끔”이 54.6%였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비용은 월평균 130,4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이 월 165,000원, 여성이 월 40,710원을 지출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4.1배 많은 술값을 지출하였으며, 대학생은 74,640원, 고등학생은 41,270원을 지출하는 것⁴⁷⁾으로 나

45) 한국소비자보호원(1999), “음주행태의 문제와 개선방안”.

46) 한국소비자보호원(1999). p. 4.

47) 한국소비자보호원(1999). p. 17.

타났다. 또한 대학생은 39.3%, 고등학생은 36.0%가 술값 때문에 경제적 곤란을 겪은 경험이 있다⁴⁸⁾고 하였다.

알코올 의존성 여부를 분석한 결과로 우리나라 음주자중 21.2%가 '알코올 의존성향'이 높은 문제음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별로는 남성음주자의 23.6%, 여성음주자의 9.8%정도가 알코올 의존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영업자가 27.6%, 회사원 21.7%, 대학생이 20.9%, 고등학생이 19.2%, 가정주부가 4.0% 순으로 나타났다.⁴⁹⁾

오래 전부터 스트레스해소용으로 이용되어온 술은 뇌세포막에 변화를 일으켜 쉽게 흥분하게 하고 후회를 잘하게 되며, 핑계가 늘어나고, 책임능력이 감퇴하여 현실도피가 빈번해지고 성격이 나약해지고, 진취력이 떨어지고, 습관화되어 기억력이 점차 감퇴되므로 음주와 정신건강간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우울상태의 발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⁵⁰⁾ 음주와 관련된 문제는 술의 과다소비 문제와 음주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 재산, 정신상의 피해문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비합리적인 음주소비행태는 자신 뿐만 아니라 제 3자에게까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줄 우려가 높고, 폭력사고 등 각종 사고를 유발하여 막대한 경제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합리적 음주문화의 정착이 시급하다. 우리 선조들은 술을 적당히 빚어 즐기으로써 생활의 여유를 누렸다. 그러나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향락주의가 만연해지면서 흡연과 함께 술의 소비는 점점 증가추세에 있으며, 음주생활이 점차 무질서해지고 사회각층으로 술이 범람하게 되었다.

건국대학교 남녀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음주경향연구⁵¹⁾에서는 70%가 '매주 한차례 이상'술을 마신다고 응답했으며, '2차 이상' 술자리가 이어지는 경우가 61%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필름이 끊길 정도'라는 응답도 5%나 있었다. 음주목적은 51%가 '교제 때문'이라고 했으나 상습음주파도 16%나 차지하였다. 또한 한국소비자보호원⁵²⁾의 연구에 의하면 음주자의 60.1%가 술 마신 다음날 일 또

48) 한국소비자보호원(1999). p. 18.

49) 한국소비자보호원(1999), "음주행태의 문제와 개선방안".

50) Otto MW(1992), "Alcohol dependence in panninc disorder patients", J Psych Res. 26, p. 29-28.

51) 중앙일보(1995), 4, 27일자 인용.

는 공부를 하는데 곤란을 겪은 경험이 있고, 13.1%는 음주 후 실수를 해서 재해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 20.8%는 말다툼이나 싸움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음주 후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받은 경험이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

음주의 양과 호흡기, 소화기 등의 증세호소는 상관관계를 보여 음주의 양이 많을수록 두 척도의 증세호소 경향도 증가하고 있었다. 유정순⁵³⁾의 연구에서 남자 대학생의 경우 63.6%가 음주와 흡연을 같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1980년 이기열 등⁵⁴⁾의 연구에서 결과와 비교하여 거의 3배나 증가하였고, 음주만 하는 학생도 18.6%에서 32.2%로 증가하였다. 흡연, 음주 모두 안 하는 학생은 52.8%에서 2.1%로 현저히 감소하였고, 여학생은 음주만 하는 학생이 82.5%나 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김성이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경험한 흡연, 음주, 피로회복제 복용율이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비행청소년의 93.3%가 음주를 한 경험이 있는 것⁵⁵⁾으로 나타났는데, 음주는 때로는 생활의 범위를 벗어나 약물로까지 취급될 만큼 그 의미가 변색되어 가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음주는 대학생들에게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학습장애와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까지도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대학생기의 과다하고 무절제한 음주습관은 교육을 통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52) 한국소비자보호원(1999), “음주행태의 문제와 개선방안”.

53) 유정순·장경자(1995)의 전제논문.

54) 이기열·이양자·김숙영·박계숙(1980), “대학생의 영양실태조사”, 한국영양학회지, 13(2), p. 73-80.

55) 장유경·오은주·선영실(1988), “대학생의 식습관과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6(3), p. 51.

III. 연구 방법

1. 연구문제

이 연구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의 외식소비행동실태와 외식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제주도 대학생의 식생활 행동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제주도 대학생의 외식정도 동기 목적은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제주도 대학생의 외식만족도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제주도 대학생의 음식점 선택행동은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5) 제주도 대학생의 음주행동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측정 도구의 작성

이 연구의 측정도구는 강남이 등⁵⁶⁾, 김두진⁵⁷⁾, 윤혜진등⁵⁸⁾, 황혜선⁵⁹⁾, 유정순 등⁶⁰⁾김준숙 등⁶¹⁾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연구자에 의해 연구목적에 맞게 작성된 질

56) 강남이 · 조이숙(1992), “식품영양학 전공 여대생과 비전공 여대생의 외식산업식품에 대한 식생활 태도 조사”, 한국식품영양학회지, 5(3), p.150-162.

57) 김두진(1994)의 전제논문.

58) 윤혜진 · 위성언(1994)의 전제논문.

59) 황혜선(1991)의 전제논문.

60) 유정순 · 장경자(1995)의 전제논문

61) 김준숙 · 안성순 · 김인숙(1995), “20대의 음주생활에 관한 연구 -청주시역 대학생과 직

문지를 사용하였다(부록 참조). 질문지는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식생활관련 일반적사항을 묻는 문항, 외식행동을 측정하는 문항, 음주행동을 측정하는 문항, 식생활관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되었다.

1) 외식행동 관련

외식행동과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을 얻기 위한 문항으로 외식정도, 외식동기, 외식목적, 음식점 선택행동 등과 관련하여 3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문항 중 36개의 문항은 명목척도로 나머지 2문항은 등간 척도로 구성되었다.

2) 음주행동 측정

음주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16문항 모두 명목척도로 구성되었다.

3) 식생활관 척도

대학생의 식생활관이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로 식도락정도를 알아보는 문항, 전통적 식습관을 알아보는 문항 4문항, 육식과 채식을 구분하는 문항 2문항, 영양과 관련된 문항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정말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5점 Likert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척도는 14점에서 70점까지 범위를 갖는다. Cronbach α 계수는 0.71이었다.

4) 외식만족도 척도

대학생의 외식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척도의 각 문항은 '매우 만족'에서 '매우 불만족'까지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척도는 9점에서 45점까지 범위를 갖는다. 점수가 높을수록 외식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Cronbach α 계수는 0.70이었다.

장인을 대상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4(1), p.113-121.

3.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이 연구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은 계열별, 성별을 고려하여 의도적 무선 표집 방법으로 추출하였다.

1999년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기초로 부적절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1999년 11월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700부를 배부하여 600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자료 중 부실 기록된 67부를 제외하고 총 533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의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7.5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고,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식생활관련 일반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백분율, 빈도분석을 행하였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외식정도, 동기, 목적, 음식점 선택행동, 음주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χ^2 검증을 행하였다.

셋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외식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 검증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 검증으로 Scheffe의 다중범위 검증을 행하였다.

넷째, 척도의 신뢰도는 내적일관성법으로 분석하였고, 크론바하 α 계수로 나타냈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 과 같다.

<표 1> 에 의하면 남자는 45.6%, 여자는 54.4%였으며, 계열별로 보면 인문계열 31.1%, 자연계열 60.8%, 예·체능계열 8.1%이었다. 1학년이 27.2%, 2학년이 29.6%, 3학년이 25.3%, 4학년이 17.8%이었으며, 연령은 20세미만이 27.6%, 20-22세미만이 48.4%, 22세 이상이 24.0%였다.

주거형태는 자기집에서 거주하는 학생이 63.6%로 가장 많았고, 자취하는 학생이 24.6%, 하숙하는 학생이 11.9%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89.7%, 확대가족이 10.3%로 대부분 핵가족이었다.

체중은 50kg미만이 24.8%, 50-60kg미만이 36.2%, 60kg이상이 39.0%이었으며, 신장은 160-170cm미만이 44.1%로 가장 많았고, 170-180cm미만이 32.1%, 160cm미만이 16.7%, 180cm이상이 7.1% 순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5.4%, 과체중은 15.4%, 정상이 69.0%, 저 체중이 15.4%로 과반수 이상이 자신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의 월용돈은 10-20만원이 43.3%로 가장 많았고, 20-30만원은 25.3%, 30만원이상이 16.5%, 10만원미만이 14.8%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수는 4인 이하가 39.8%, 5인이 34.5%, 6인이 13.7%, 7인 이상이 12.0%로 4인가족이 가장 많았다. 가계소득은 월150-200만원이 35.5%로 가장 많았으며, 150만원미만이 29.3%, 200-300만원이 25.7%, 300만원이상이 9.6%이었다.

아버지의 연령은 50-60세미만이 40.2%, 50세미만이 33.2%, 60세이상이 26.6%이었으며, 어머니의 연령은 40대가 55.5%, 50대가 27.6%, 60대가 16.9%이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6.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문대졸이상이 23.8%이었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40.7%, 중학교 졸업이 30.0%, 전문대졸이상은 10.7%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은 농어업직에 종사하는

〈표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변 수		빈 도 백분율		변 수		빈 도 백분율	
성 별	남	243	45.6	가 족	핵 가족	478	89.7
	여	290	54.4		확대 가족	55	10.3
계 열	인문 계열	166	31.1	주 거	자 가	339	63.6
	자연 계열	324	60.8		하 숙	63	11.9
	예·체능 계열	43	8.1		자 취	131	24.6
연 령	20세미만	135	27.6	체 중	50kg미만	132	24.8
	20-22세	258	48.4		60kg	193	36.2
	22세이상	128	24.0		60kg이상	208	39.0
키	160cm미만	89	16.7	비 만 인 식	비 만	29	5.4
	160-170cm	235	44.1		과 체중	82	15.4
	170-180cm	171	32.1		정 상	368	69.0
	180cm이상	38	7.1		저 체중	54	15.4
학 년	1	145	27.2	가 족 수	4인 이하	212	39.8
	2	158	29.6		5인	184	34.5
	3	135	25.3		6인	73	13.7
	4	95	17.8		7인 이상	64	12.0
가 계 소 득	150만원미만	156	29.3	월 용 돈	10만원미만	79	14.8
	150-200만원	189	35.5		10-20만원	231	43.3
	200-300만원	137	25.7		20-30만원	135	25.3
	300만원이상	51	9.6		30만원이상	88	16.5
부 연 령	50세미만	177	33.2	모 연 령	50세미만	296	55.5
	50-60세	214	40.2		50-60세	147	27.6
	60세이상	142	26.6		60세이상	90	16.9
부 학 력	초졸 이하	33	6.2	모 학 력	초졸 이하	99	18.6
	중 졸	74	13.9		중 졸	160	30.0
	고 졸	299	56.1		고 졸	217	40.7
	전문대졸이상	127	23.8		전문대졸이상	57	10.7
부 직 업	농어업직	196	36.8	모 직 업	농어업직	186	34.9
	행정관리사무직	93	17.4		행정관리사무직	17	3.2
	생산단순노무직	79	14.8		생산단순노무직	15	2.8
	전문기술직	54	10.1		전문기술직	21	3.9
	서비스직	53	9.9		서비스직	74	13.9
	판매직	36	6.8		판매직	35	6.6
	무직	22	4.1		전업주부	185	34.7
계		533	100.0	계		533	100.0

경우가 36.8%로 가장 많았고, 행정사무직이 17.4%, 생산단순노무직이 14.8%이었다. 어머니 직업은 취업주부가 65.3%이었으며 그중 농어업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34.9%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직이 13.9%, 판매직이 6.6% 순이었고, 전업주부는 34.7%로 나타났다.

2. 식생활관련 일반적 사항

대학생의 식생활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은 <표 2> 와 같다.

<표 2> 에 의하면 가족의 월식료품비 지출은 20-40만원이 63.2%로 가장 많았고, 40-60만원이 15.9%, 20만원미만이 14.3%, 60만원이상이 6.6%로 나타났다. 가족의 월 외식비는 10-15만원이 44.1%, 5-10만원이 39.2%, 15-20만원이 10.7%, 20만원이상이 6.0%이었다. 가족의 외식빈도는 자주 한다가 6.9%, 가끔 한다가 55.9%, 거의 안 한다가 32.8%, 전혀 안 한다가 4.7%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의 가족들이 가끔 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도시락을 지참하지 않는 학생이 88.2%, 가끔 지참하는 학생이 7.5%로 대부분이 도시락을 지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중요시하는 식사로는 저녁이 44.8%로 가장 많았고, 점심과 아침이 각각 20.9%, 매끼마다 중요하다는 경우는 10.2%, 기타로는 아침과 저녁, 점심과 저녁 등으로 3.6%이었다.

식사소비시간은 10-30분이 64.9%로 가장 많았으며 10분미만이 22.1%, 30분 이상은 12.9%에 불과하였다. 자신이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식습관은 폭식이 36.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결식이 27.2%, 편식이 14.8%, 자극적인 식사가 11.3%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의 식습관이 폭식이 31.9%, 결식이 30.5%, 자극적인 식사가 13.6%, 편식이 10.6%라는 유정순·장경자의 연구⁶²⁾에서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62) 유정순, 장경자(1995)의 전제논문.

〈표 2〉 식생활관련 일반적 사항

빈도(%)

변 수		빈 도 백분율		변 수		빈 도 백분율				
도 시 락	꼭 지참	5	0.9	월 외 식 비	5만원미만	213	40.0			
	자주 지참	18	3.4		5-10만원	111	20.7			
	가끔 지참	40	7.5		10-15만원	196	36.8			
	지참하지 않음	470	88.2		15만원이상	13	2.4			
다 이 얼	경험 있다	244	45.8	가 중 요 한 식 장	아 침	111	20.9			
	경험 없다	289	54.2		점 심	111	20.9			
식 사 시 간	10분미만	118	22.1		저 녀	238	44.8			
	10-30분	346	64.9		매 끼	54	10.2			
	30분이상	69	12.9		기 타	19	3.6			
외 식 횟 수	매일	71	13.3	식 습 관	폭식	192	36.9			
	주5-6회	50	9.4		자극적 식사	59	11.3			
	주3-4회	104	19.5		결식	145	27.2			
	주1-2회	165	31.0		편식	79	14.8			
월2-3회	월2-3회	143	26.8	기타	58	10.9				
	흡 연	한다	169	31.7	음 주	한다	479	89.9		
안한다		364	68.3	안한다		54	10.1			
식 생 활 관	상 중 하	143	26.8	편 식	전혀안함	156	29.3			
		152	28.5		가끔함	264	49.5			
		238	44.7		약간심함	89	16.7			
		24	4.5		매우심함					
가 족 외 식	자주함	37	6.9	외 식 형 태	식사위주	213	40.0			
	가끔함	296	55.5		술위주	111	20.7			
	거의안함	175	32.8		식사와술	196	36.8			
	전혀안함	25	4.7		기타	13	2.4			
가 계 월 비	20만원미만	76	14.3	가 외 식 월 비	5-10만원미만	209	39.2			
	20-40만원	337	63.2		10-15만원	235	44.1			
	40-60만원	85	15.9		15-20만원	57	10.7			
	60만원이상	35	6.6		20만원이상	32	6.0			
일 회 외 식 비	아 침	천원미만	19	결 식 정 도	아 침	항상먹음	107	20.1		
		천원-오천원	114			70.4	가끔안먹음	140	26.3	
		오천원-만원	18			11.1	자주안먹음	202	37.9	
		기타	21			6.8	항상안먹음	84	15.8	
	계	162	100.0		점 심	항상먹음	206	38.6		
		천원미만	15			3.5	가끔안먹음	263	49.3	
			천원-오천원			329	61.7	자주안먹음	46	8.6
			오천원-만원			49	11.4	항상안먹음	18	3.4
	계		430		100.0	저 녁	항상먹음	248	46.5	
		오천원미만	193		41.4		가끔안먹음	223	41.8	
			오천원-만원		132		28.3	자주안먹음	46	8.6
			만원-이만원		77		16.4	항상안먹음	16	3.0
	계		64		13.7	계	533	100.0		
		466	100.0							

주) 결측치로 인하여 빈도수에 차이가 있음.

학생의 외식횟수는 월2-3회 한다가 26.8%, 주 1-2회가 31.0%, 주 3-4회가 19.5%, 매일 한다는 경우도 13.3%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정순·장경자⁶³⁾의 연구에서 일 1회 외식한다는 경우가 32.4%로 가장 많고 주2-3회 외식하는 경우가 20.8%라는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유정순·장경자의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먹는 점심식사는 외식으로 포함하지 않았으나 이 연구에서는 포함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외식의 형태는 식사를 위주로 한다가 40.0%로 가장 많았고, 식사와 술을 함께 하는 경우도 36.8%이었고, 술을 위주로 하는 경우는 20.7%이었다. 대부분의 학생이 술을 겸함 식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노정미 등⁶⁴⁾의 연구에서 식사 중에 술을 많이 마시는 경우는 10.4%, 식사 중에 조금 술을 마시는 경우는 20.2%, 식사만 하는 경우는 69.4%로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생의 월외식비는 5만원미만이 29.3%, 5-10만원미만이 32.8%, 10-15만원미만이 18.2%, 15만원이상이 12.0%이었다. 외식끼니별로 보면 아침, 점심과 저녁 모두 천원-오천원미만이 각각 70.4%, 61.7%, 41.4%순서로 가장 많았으며, 오천원-만원은 아침은 11.1%, 점심은 11.4%, 저녁은 28.3%이었다. 만원-이만원미만의 경우는 아침과 점심은 없었으나 저녁은 16.4%인 것으로 나타나 아침과 점심보다는 저녁 외식비용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노정미⁶⁵⁾의 연구에서 1인 외식비용이 500원-1,500원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나, 김두진⁶⁶⁾의 연구에서 점심과 저녁비용으로 천원-2천원을 가장 많이 지출한다는 결과와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자신의 편식정도에 있어서는 전혀 안 한다가 29.3%, 가끔 한다가 49.5%, 약간 심하다가 16.7%, 매우 심하다가 4.5%로 나타나, 70%에 이르는 학생이 편식을 어느 정도하고 있었다. 이는 유정순·장경자⁶⁷⁾의 연구에서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식정도는 아침을 항상 먹는 경우는 20.1%에 불과하였으며 37.9%는 자주,

63) 유정순, 장경자(1995)의 전제논문.

64) 노정미, 유영상(1989), "서울지역대학생의 외식실태 및 기호도 조사연구(II)", 대한가정학회지, 27(4), P. 3.

65) 노정미, 유영상(1989)의 전제논문.

66) 김두진(1994)의 전제논문.

67) 유정순, 장경자(1995)의 전제논문.

26.3%는 가끔, 15.8%는 항상 안 먹는 것으로 나타나 아침결식율이 약 80%에 이르고 있었다. 점심의 경우는 38.6%가 항상 먹는다고 하였고, 3.4%는 항상 안 먹는 것으로 나타나 12%가 점심결식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녁결식정도는 46.5%가 항상 먹는다고 하여 거의 50%의 학생들이 저녁은 꼭 먹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상 안 먹는 경우는 3.0%였고, 41.8%는 가끔, 8.6%는 자주 안 먹는다고 하여 아침이나 점심에 비해 저녁식사 섭취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문현경 등⁶⁸⁾의 연구에 의하면 빈약한 아침식사 습관은 어린 나이에 시작되고 있으며, 아침을 결식할 경우 저혈당 증세로 말미암아 집중력이 떨어지고 수업시간에 졸릴 뿐만 아니라, 지적 능력 점수도 아침을 잘 먹고 오는 어린이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을 결식하게 되면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의 섭취가 부족하게 되고 하루의 음식물섭취가 불충분하여 자연히 간식섭취가 증가하게 된다. 또한 점심식사로 1일 전체 섭취 열량과 그 밖의 영양소 필요량의 약 1/3이 공급되어야 하나 이 연구에서 점심을 항상 먹는 경우는 38.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식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식습관이며 이에 대한 영양교육이 요구된다.

3. 외식정도

대학생의 외식정도의 일반적 경향과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외식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아침의 경우는 전혀 외식을 하지 않는 경우가 63.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가끔 외식하는 경우가 26.3%였으며, 자주하는 경우가 5.3%, 항상하는 경우가 4.9%이었으나 점심은 가끔 외식하는 경우가 32.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자주 하는 경우가 29.3%, 항상 하는 경우가 27.8%였고, 전혀 안하는 경우는 10.5%에 불과하였다. 저녁의 경우는 자주 외식하는 경우가 49.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가끔하는 경우가 44.7%이었고 항상하는 경우가 3.8% 전혀 안하는 경우는 1.7%이었다. 이상의 결과로 대학생들은 점심에 외식을 가장 많이 하였고, 그 다음으로 저녁이었으며, 아침에는 외식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68) 문현경 · 정혜량 · 황성희(1992), “성인과 어린이 식품섭취와 영양소 섭취량 분포에 관한 연구”, 한국식품위생학회지, 7(2,3), p. 113-121.

〈표 3〉 끼니별 외식정도

빈도(%)

변 수			항상 한다	자주한다	가끔한다	전혀안한다	계	비 고
아 침	계		26(4.9)	28(5.3)	140(26.3)	339(63.6)	533(100.0)	
	성 별	남 여	60(24.7) 88(30.3)	60(24.7) 96(33.1)	90(37.0) 83(28.6)	33(13.6) 23(7.9)	243(100.0) 290(100.0)	$\chi^2 = 11.62^{**}$ df = 3
점 심	계 열	인문	41(24.7)	60(36.1)	52(31.3)	13(7.8)	166(100.0)	$\chi^2 = 16.46^*$ df = 6
		자연	10(31.5)	84(25.9)	104(32.1)	34(10.5)	324(100.0)	
		예체능	5(11.6)	12(27.9)	17(39.5)	9(20.9)	43(100.0)	
계			148(27.8)	156(29.3)	173(32.5)	56(10.5)	533(100.0)	
저 녁	성 별	남	1(0.4)	128(52.7)	109(44.9)	5(2.1)	243(100.0)	$\chi^2 = 14.34^{**}$ df = 3
		여	19(6.6)	138(47.6)	129(44.5)	4(1.4)	290(100.0)	
	학 년	1		71(49.0)	73(50.0)	1(0.7)	145(100.0)	$\chi^2 = 19.02^*$ df = 9
		2	7(4.4)	68(43.0)	78(49.4)	5(3.2)	158(100.0)	
		3	9(6.7)	74(54.8)	50(37.0)	2(1.5)	135(100.0)	
		4	4(4.2)	53(55.8)	37(38.9)	1(1.1)	95(100.0)	
계		20(3.8)	266(49.9)	238(44.7)	9(1.7)	533(100.0)		

1) * p<.05 ** p<.01 *** p<.001

2) 유의성이 없는 것은 표에서 제외하였음.

한편,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차이를 보면 아침외식정도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점심 외식정도는 성별, 계열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연령, 학년, 주거형태, 식생활관의 수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으며, 저녁외식은 성별, 학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연령이나 계열, 주거형태, 식생활관의 수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심에서는 남자의 경우는 항상 한다가 24.7%, 여자는 30.3%, 자주 한다에서는 남자가 24.7%, 여자는 33.1%, 가끔 하는 경우는 남자가 37.0%, 여자가 28.6%였으며, 전혀 안하는 경우는 남자가 13.6%, 여자는 7.9%인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점심외식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계열에 따라서는 '항상 외식한다'는 자연계열이 31.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인문계열로 24.7%였으며, 예체능계열이 11.6%로 가장 낮았으나, 전혀 안한다에서는 예체능계열이 20.9%로 가장 많았고, 자연계열이 10.5%, 인문계열 7.8%이었다. 자주 하는

경우는 인문계열이 36.1%로 가장 많았고 가끔 하는 경우는 예체능계열이 39.5%로 가장 많았다. 이것은 예체능계열 학생들에 비하여 자연계열과 인문계열 학생들의 점심외식정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녁외식에서는 남자는 저녁에 항상 한다가 0.4%인데 비해 여자는 6.6%이었으며, 자주 한다면에서는 남자는 52.7%, 여자는 47.6%인 것으로 나타나 항상 하는 경우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많았으나 자주 하는 경우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년에 따라서는 저녁 외식정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1학년과 2학년은 가끔 외식하는 경우가 각각 50.0%, 49.4%로 3학년 37.0%, 4학년 38.9%보다 많았으며 자주하는 경우는 3학년, 4학년은 각각 54.8%, 55.8%로 1학년 49.0%, 2학년 43.0%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저학년 보다 고학년이 저녁외식빈도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외식동기

1순위를 중심으로 외식동기의 일반적인 경향과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외식동기는 아침에는 끼니해결을 위하여가 84.6%로 가장 많았고,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가 7.9%였으나, 점심은 끼니해결을 위해서가 71.7%,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가 25.8%이었다. 아침과 점심 모두 모임이나 가족외식으로 외식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녁은 끼니해결을 위해서가 28.9%였고,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가 42.8%, 모임 때문에가 19.4%, 가족외식이 5.9%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보다는 점심이 그리고 아침이나 점심보다는 저녁이 외식동기가 다양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아침은 대부분 끼니해결을 위해서 외식을 하고 있었고 점심은 끼니해결과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외식을 하였으며 저녁은 과반수이상이 친구를 만나거나 모임 때문에 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침과 점심에 비해 시간이 자유로운 저녁외식은 대인관계형성을 위한 장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는 김두진⁶⁹⁾의 결과에서 끼니해결을 위

해 65.57%, 친구 만날 때 55.74%, 모임 있을 때 34.43%, 가족외식시 16.39%인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황혜선의 연구⁷⁰⁾에서는 식사 목적의 배고픔의 해결이라는 사람이 37.0%, 습관적인 일이라고 답한 사람이 34.0%, 영양보충이 0.9%, 맛 즐기거나 대인관계형성이 15.0%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차이를 보면 아침은 식생활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성별, 연령, 주거형태, 학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점심은 사회인구학적요인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저녁은 주거형태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성별, 연령, 계열, 학년, 식생활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4〉 외식의 동기

빈도 (%)

변 수			끼니해결	친구만남	모임시	가족외식	기 타	계	비 고
아 침	식 생 활 관	상	72(77.4)	13(14.0)			8(8.6)	93(100.0)	$\chi^2 = 13.19^{**}$ df = 4
		중	110(82.7)	10(7.5)			13(9.8)	133(100.0)	
		하	87(94.6)	2(2.2)			3(3.3)	92(100.0)	
	계		269(84.6)	25(7.9)			24(7.5)	318(100.0)	
점 심	계		347(71.7)	125(25.8)			12(2.5)	484(100.0)	
저 녁	주 거 형 태	자가	80(24.0)	155(46.4)	62(18.6)	24(7.2)	13(3.9)	334(100.0)	$\chi^2 = 17.84^*$ df = 8
		자취	52(39.7)	48(36.6)	26(19.8)	3(2.3)	2(1.5)	131(100.0)	
		하숙	20(32.8)	22(36.1)	14(23.0)	4(6.6)	1(1.6)	61(100.0)	
	계		152(28.9)	225(42.8)	102(19.4)	31(5.9)	12(2.5)	484(100.0)	

1) * p<.05 **p<.01 *** p<.001

2) 유의성이 없는 것은 표에서 제외하였으며 빈공간은 해당사항 없음.

아침은 식행동이 미식가이며 전통적이고 영양지식이 풍부한 집단은 식행동이 일반적이고 전통음식보다 서양음식을 선호하며 영양지식이 낮은 집단보다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외식하는 경우는 높았으나 끼니해결을 위해서 외식하는 경우는 낮

69) 김두진(1994)의 전계논문, p. 214.

70) 황혜선(1991)의 전계논문.

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녁외식동기는 주거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끼니해결을 위해서는 자취가 39.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하숙하는 경우가 32.8%였고 자가는 24.0%였다. 그러나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외식하는 경우는 자가가 46.4%로 자취 36.6%나 하숙 36.1%보다 많았다. 모임으로 외식하는 경우는 하숙이 23.0%로 자취 19.8%, 자가 18.6%보다 많았으며 가족외식은 자가와 하숙이 7.2%와 6.6%로 자취 2.3%보다 많았다. 이상의 결과로 자취나 하숙하는 학생들은 자가의 경우보다 끼니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자가는 자취나 하숙하는 학생들보다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외식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외식의 목적

1순위를 중심으로 외식의 목적의 일반적인 경향과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 와 같다.

<표 5> 에 의하면 아침과 점심은 모두 영양보충을 위해서가 37.8%와 3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아침은 시간절약이 27.4%, 친목도모가 17.2%이었으며 맛을 즐기는 경우는 7.1%였고, 점심은 친목도모를 위해서가 21.6%, 시간절약을 위해서가 20.7%, 맛을 즐기는 경우가 16.6%였다. 그러나 저녁은 친목도모를 위해서가 6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맛을 즐기기 위해서가 19.1%, 영양보충을 위해서가 13.8%, 시간절약을 위해서는 3.8%에 불과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아침은 영양을 보충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외식을 하고 있었으나 점심은 영양보충, 친목도모, 맛을 즐김, 시간절약 등 다양한 동기로 외식을 하였으며, 저녁은 약 2/3의 학생들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외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맛을 즐기고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아침외식은 배고픔의 해결이라는 본질적 기능의 성격이 강하고 점심은 배고픔의 해결과 친목도모 등 본질적 기능과 사회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저녁외식은 배고픔의 해결보다는 친목도모와 같은 사회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외식의 목적

빈도 (%)

변 수			친목도모	맛즐김	시간절약	영양보충	기 타	계	비 고
아 침	계		51(17.2)	21(7.1)	81(27.4)	112(37.8)	31(10.5)	296(100.0)	
	성 별	남 여	61(29.9) 39(15.0)	30(14.7) 47(18.1)	45(22.1) 51(19.6)	53(26.0) 107(41.2)	15(7.4) 16(6.2)	204(100.0) 260(100.0)	$\chi^2 = 20.77^{***}$ df = 4
점	연 령	-20세	25(18.9)	24(18.2)	29(22.0)	43(32.6)	11(8.3)	132(100.0)	$\chi^2 = 21.66^{**}$ df = 8
		20-22	40(17.5)	45(19.7)	41(18.0)	89(39.0)	13(5.7)	228(100.0)	
		22세-	35(33.7)	8(7.7)	26(25.0)	28(26.9)	7(6.7)	104(100.0)	
심	식 생 활 관	상	19(15.1)	20(15.9)	29(23.0)	50(39.7)	8(6.3)	126(100.0)	$\chi^2 = 18.28^*$ df = 8
		중	40(19.6)	36(17.6)	50(24.5)	61(29.9)	17(8.3)	204(100.0)	
		하	41(30.6)	21(15.7)	17(12.7)	49(36.6)	6(4.5)	134(100.0)	
계		100(21.6)	7(16.6)	96(20.7)	160(34.5)	31(6.7)	464(100.0)		
저 녁	성 별	남	153(64.6)	21(8.9)	11(4.6)	45(19.0)	7(3.0)	237(100.0)	$\chi^2 = 18.40^{***}$ df = 4
		여	184(65.0)	54(19.1)	9(3.2)	27(9.5)	9(3.2)	283(100.0)	
	계		337(65.0)	54(19.1)	20(3.8)	72(13.8)	16(3.1)	520(100.0)	

1) * p<.05 **p<.01 *** p<.001

2) 유의성이 없는 것은 표에서 제외하였음..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차이를 보면, 아침은 모든 요인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점심은 성별, 연령, 식생활관의 수준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계열, 주거형태, 학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저녁은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연령, 계열, 학년, 주거형태, 식생활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별에 따른 점심외식의 목적을 보면 친목도모를 위해서는 남학생이 29.9%로 여학생 15.0%보다 높았으나 영양보충을 위해서는 여학생은 41.2%로 남학생 26.0%보다 높게 나타나 외식할 때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친목도모를 위하여,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영양보충을 고려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친목도모를 위한 목적으로는 22세이상 집단이 33.7%로 가장 높았고, 20

세미만은 18.9%, 20-22세미만은 17.5%였으나, 맛을 즐기기 위해서는 20세-22세미만과 20세미만이 각각 19.7%, 18.2%로 22세이상 집단 7.7%보다 높게 나타났다. 영양보충에서도 20-22세미만 집단과 20세미만 집단이 39.0%와 32.6%로, 22세이상 집단 26.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시간절약에서는 22세이상 집단과 20세미만 집단이 25.0%와 22.0%로 18.0%인 20-22세미만 집단보다 높았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점심외식을 할 때 연령이 많은 대학생들은 친목도모를 위해서, 연령이 적은 대학생들은 연령이 많은 대학생들 보다 영양보충을 하거나 맛을 즐기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식생활관에 따라서는 친목도모를 위해서가 식생활행동이 미식가이고 전통적이며 영양지식 점수가 높은 집단은 15.1%였으나 미식가가 아니고 서양음식을 선호하며 영양지식 점수가 낮은 집단은 30.6%로 높게 나타났다. 시간절약을 위해서는 식생활행동이 보통에 이르는 집단이 24.5%로 높고, 영양지식이 낮은 집단에서 12.7%로 가장 낮았다. 식생활관 점수가 낮은 집단은 친목도모와 영양보충에, 중간 집단은 영양보충과 시간절약에, 높은 집단은 영양보충에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

저녁외식에서는 친목도모는 남·여학생이 모두 약 65%로 거의 같았으나 맛을 즐기기 위해서는 남학생은 8.9%인데 비하여 여학생은 19.1%였으며, 영양보충을 위해서는 남학생은 19.0%이었으나 여학생은 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저녁외식에서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는 맛을 즐기는 경향이,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영양보충을 고려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녁의 주된 목적은 남·녀 모두 친목도모에 각각 64.6%, 65.0%로 나타났는데 부차적인 목적에서 여자의 경우 맛을 즐기는데, 남자는 영양보충을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6. 외식 만족도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대학생들의 외식만족도는 <표 6> 과 같다.

<표 6> 에 의하면 기호에 대한 만족도는 성별, 식사시간에 따라, 영양에 대한 만족도는 연령, 학년, 계열, 편식정도에 따라, 간편성에 대한 만족도는 연령에 따라, 시간절약에 대한 만족도는 연령, 학년에 따라, 가격에 대한 만족도는 주거형태

〈표 6〉 외 식 만 족 도

번 수		기호	영양	간편성	시간절약	가격	위생	서비스	분위기	양	계
		평균 S	평균 S	평균 S	평균 S	평균 S	평균 S	평균 S	평균 S	평균 S	평균 S
성 별	남자	3.62	3.46	3.49	3.28	2.96	2.92	3.00	3.21	3.29	29.23
	여자	3.85	3.33	3.57	3.33	2.93	2.71	2.97	3.19	3.29	19.19
	t	4.56***	1.94	-1.20	-0.65	0.40	2.83	0.35	0.87	.00	.09
연 령	20세미만	3.67	3.34	3.31 a	3.17 a	2.89	2.80	2.99	3.19	3.42 a	28.92
	20-22세	3.83	3.33	3.61 b	3.42 b	3.01	2.77	3.01	3.22	3.32 a	29.47
	22세이상	3.66	3.55	3.63 b	3.23 ab	2.89	2.88	2.88	3.23	3.09 b	28.74
	F	2.46	3.75*	7.45***	4.78**	1.19	.65	.05	.62	5.29**	1.52
학 년	1	3.68	3.32	3.44	3.23 a	2.93	2.79	3.01	3.14	3.48	29.06
	2	3.72	3.43	3.49	3.21 a	2.92	2.82	2.98	3.26	3.25	29.10
	3	3.77	3.29	3.64	3.49 b	3.03	2.81	2.99	3.19	3.19	29.41
	4	3.84	3.57	3.61	3.33 a	2.89	2.78	2.93	3.19	3.20	29.34
	F	.81	2.91*	1.86	3.32*	.65	.07	.19	.44	3.48*	.24
계 열	인 문	3.81	3.45 ab	3.55	3.31	2.98	2.71 a	2.99	3.23 a	3.17	29.20
	자 연	3.73	3.32 a	3.51	3.31	2.94	2.81 a	2.98	3.14 a	3.35	29.10
	예 체능	3.58	3.65 b	3.65	3.23	2.93	3.16 b	2.98	3.51 b	3.30	30.02
	F	1.37	4.11*	.61	.18	.15	5.01**	.00	3.71*	2.15	.96
주 거 형 태	자가	3.74	3.36	3.54	3.27	2.90	2.77	2.97	3.19	3.28	29.02
	하숙	3.63	3.41	3.32	3.22	2.89	2.78	2.89	3.14	3.32	29.99
	자취	3.82	3.47	3.61	3.44	3.10	2.92	3.08	3.26	3.31	29.41
	F	1.09	.97	2.78	2.40	3.01*	1.53	1.12	.48	.09	2.94*
편 식 정 도	전혀 안함	3.81	3.51	3.58	3.36	3.01	2.96 a	3.06	3.22	3.20	29.70
	가끔 함	3.76	3.29	3.51	3.28	2.94	2.68 b	2.95	3.19	3.35	28.96
	약간 심함	3.63	3.44	3.45	3.26	2.90	2.89 ab	2.90	3.21	3.26	28.93
	매우 심함	3.63	3.54	3.79	3.46	2.79	2.88 ab	3.17	3.17	3.33	29.75
	F	1.10	3.02*	1.38	.67	.67	3.96**	1.06	.06	1.04	1.34
식 사 시 간	10분 미만	3.53 a	3.38	3.37	3.24	2.89	2.86	2.90	3.04	3.10 a	28.32 a
	10-30분	3.82 b	3.42	3.58	3.31	2.94	2.79	3.04	3.25	3.36 b	29.53 b
	30분-1시간	3.72 ab	3.22	3.58	3.39	3.09	2.75	2.87	3.22	3.26 ab	29.10 ab
	F	5.60**	1.98	2.88	.76	1.31	.45	1.75	2.45	3.95*	3.91*
외 식 형 태	식사위주	3.76	3.34	3.51	3.33	2.93	2.76	2.87	3.14	3.32	28.95
	술위주	3.68	3.43	3.50	3.35	3.02	2.86	3.12	3.21	3.32	29.50
	식사외술	3.73	3.40	3.56	3.25	2.90	2.81	3.01	3.26	3.20	29.14
	기타	4.15	3.62	3.77	3.31	3.31	3.08	3.46	3.31	3.85	31.85
	F	1.33	.78	.56	.47	1.34	.88	3.35*	.71	2.67*	2.3
외 식 횟 수	매 일	3.87	3.44	3.64	3.35	2.99	2.72	2.87	3.03	3.45	29.35
	주5-6회	3.86	3.34	3.42	3.36	2.72	2.50	2.74	3.14	3.12	28.20
	주3-4회	3.77	3.44	3.57	3.29	3.00	2.92	3.09	3.39	3.33	29.79
	주1-2회	3.65	3.33	3.62	3.35	2.95	2.83	3.10	3.24	3.23	29.30
	월2-3회	3.73	3.41	3.40	3.22	2.97	2.84	2.92	3.12	3.31	28.97
	F	1.29	.45	1.95	.58	1.15	2.47*	2.41*	2.34	1.35	1.45

1) * p <.05 ** <.01, *** p<.001, S : Sch é ffe's Multiple Range Test

에 따라, 위생에 대한 만족도는 계열, 편식정도, 외식횟수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외식형태, 외식횟수에 따라, 분위기에 대한 만족도는 계열에 따라, 양은 연령, 학년, 식사시간, 외식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전체적인 외식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거형태와 식사소비시간 이었다. 주거형태는 전체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하위집단간에는 유의차가 없었으며, 식사소비시간은 하위집단간에는 30분미만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호에 대한 만족도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다. 식사소비시간에서는 10분미만 집단과 10-30분 집단간에 차이가 있었으며 10-30분에 걸쳐서 식사하는 대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영양에 대한 만족도는 자연계열과 예체능계열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예체능계열 학생들이 다른 계열 학생들보다 높았다. 연령과 학년, 편식정도에 따라서는 전체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하위집단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간편성에 대한 만족도는 20세미만 집단과 20-22세미만 집단 및 22세이상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22세이상 집단이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시간절약에 대한 만족도는 20세미만 집단과 20-22세미만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20-22세미만 집단의 만족도가 높았다. 학년에 따라서는 하위집단간에는 1학년, 2학년, 4학년과 3학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3학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에 대한 만족도는 주거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하위집단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위생에 대한 만족도는 인문계열 및 자연계열과 예체능계열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예체능계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편식정도에 따라서는 전혀 안 하는 집단과 가끔 하는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전혀 안 하는 집단의 만족도가 높았다. 외식횟수에 따라서는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각 하위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외식형태와 외식횟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모두 하위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위기에 대한 만족도는 인문계열 및 자연계열과 예체능계열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예체능계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에 대한 만족도는 20-22세 집단과 22세이상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나이가 어린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하위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나이가 어린 경우는 질보다 양이 풍족한 분식류와 같은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나이가 어릴수록 양에 대해 민감하다고 볼 수 있다. 식사소비시간에 따라서는 10분미만 집단과 10-30분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10분-30분 집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형태에서는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하위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7. 외식 음식점 선택 기준

음식점 선택기준에 대하여 일반적인 경향과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7> 과 같다.

<표 7> 에서와 같이 아침은 1순위에서 간편성이 31.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기호도가 18.0%, 시간절약이 17.5%였으며, 2순위에서는 시간절약이 26.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간편성이 22.8%, 가격이 14.9% 순으로 나타났다. 점심은 1순위에서 기호도가 23.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간편성이 21.4%, 가격이 15.6%이었으며, 2순위에서 가격이 21.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시간절약이 16.6%, 기호도가 14.2% 였다. 저녁은 1순위에서는 기호도가 3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주위의 권유가 17.2% 였으며, 2순위에서는 분위기가 20.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가격이 16.9%, 서비스가 13.2% 였다. 이상의 결과로 대학생들은 아침은 주로 간편성과 시간절약을 기준으로, 점심은 기호·간편성·가격을 기준으로, 그리고 저녁은 기호·주위의 권유·분위기·가격을 기준으로 음식점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차이를 보면 1순위에서는 아침은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점심은 계열에 따라, 저녁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순위에서는 아침은 주거형태에 따라, 점심은 성별과 식생활관에 따라, 저녁은 식생활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7〉 음식점 선택 기준

빈도 (%)

변수	기호	건강	영양	간편성	시간	가격	양	권유	분위기	위생	서비스	기타	계
1 순 위	아 침	계	67(18.0)	27(7.3)	55(14.8)	116(31.2)	65(17.5)	24(6.5)				18(4.8)	372(100.0)
		인문	36(22.6)	4(2.5)	17(10.7)	34(21.4)	17(10.7)	34(21.4)	10(6.3)			7(4.4)	159(100.0)
	점 심	자연	75(24.8)	14(4.6)	32(10.6)	66(21.9)	49(16.2)	36(11.9)	14(4.6)			16(5.3)	302(100.0)
		예체능	4(10.0)	5(12.5)	7(17.5)	7(17.5)	3(7.5)	8(20.0)	4(10.0)			2(5.0)	40(100.0)
		계	115(23.0)	23(4.6)	56(11.2)	107(21.4)	69(13.8)	78(15.6)	28(5.6)			25(5.0)	501(100.0)
	$\chi^2 = 24.50^*$ df = 14												
	저 녁	성남	66(27.4)	13(5.4)	38(15.8)	16(6.6)	9(3.7)	29(12.0)	11(4.6)	10(4.1)	34(14.1)	15(6.2)	241(100.0)
		성녀	127(44.1)	4(1.4)	33(11.5)	10(3.5)	5(1.7)	22(7.6)	5(1.7)	14(4.9)	57(19.8)	11(3.8)	288(100.0)
		계	193(36.5)	17(3.2)	71(3.4)	26(4.9)	14(2.6)	51(9.6)	24(4.5)	91(17.2)	16(3.0)	26(4.9)	529(100.0)
	$\chi^2 = 33.32^{***}$ df = 4												
2 순 위	아 침	주가	12(5.9)	6(3.0)	29(14.4)	43(21.3)	65(32.2)	28(13.9)				19(9.4)	202(100.0)
		자취	8(9.0)	9(10.1)	9(10.1)	20(22.5)	15(16.9)	17(19.1)				11(12.4)	89(100.0)
		하숙	4(10.5)	1(10.5)	6(15.8)	12(31.6)	7(18.4)	4(10.5)				4(10.5)	38(100.0)
		계	24(7.3)	16(4.9)	44(13.4)	75(22.8)	87(26.4)	49(14.9)				34(10.3)	329(100.0)
	$\chi^2 = 19.58^*$ df = 12												
	점 심	성남	28(14.0)	18(9.0)	14(7.0)	28(14.0)	40(20.0)	34(17.0)	8(4.0)	9(4.5)		21(10.5)	200(100.0)
		성녀	38(14.4)	8(3.0)	21(8.0)	36(13.6)	37(14.0)	67(25.4)	20(7.6)	11(4.2)		26(9.8)	264(100.0)
		계	66(14.2)	26(5.6)	35(7.5)	64(13.8)	77(16.6)	101(21.8)	28(6.0)	20(4.3)		47(10.1)	464(100.0)
		식생활관	17(12.9)	4(3.0)	8(6.1)	23(17.4)	21(15.9)	21(15.9)	7(5.3)	13(9.8)		18(13.6)	132(100.0)
	저 녁	중	32(15.4)	13(6.3)	16(7.7)	22(10.6)	40(19.2)	53(25.5)	14(6.7)	4(1.9)		14(6.7)	208(100.0)
		하	17(13.7)	9(7.3)	11(8.9)	19(15.3)	16(12.9)	27(21.8)	7(5.6)	3(2.4)		15(12.1)	124(100.0)
		계	66(14.2)	26(5.6)	35(7.5)	64(13.8)	77(16.6)	101(21.8)	28(6.0)	20(4.3)		47(10.1)	464(100.0)
		식생활관	10(7.3)		12(8.8)	5(3.6)	27(19.7)	5(3.6)	14(10.2)	28(20.4)	5(3.6)	24(17.5)	137(100.0)
	저 녁	중	32(14.4)		15(6.8)	15(6.8)	37(16.7)	10(4.5)	6(2.7)	52(23.4)	14(6.3)	29(13.1)	222(100.0)
		하	21(15.9)		11(8.3)	5(3.8)	19(14.4)	9(6.8)	10(7.6)	21(15.9)	18(13.6)	12(9.1)	132(100.0)
		계	63(12.8)		38(7.7)	25(5.1)	83(16.9)	24(4.9)	30(6.1)	101(20.6)	37(7.5)	65(13.2)	491(100.0)
		식생활관											
	$\chi^2 = 34.23^*$ df = 18												

1) * p<.05 **p<.01 *** p<.001

2) 유의성이 없는 것은 표에서 제외하였으며 빈공간은 해당사항 없음.

점심의 경우 기호에 있어서는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은 24.8%와 22.6%로, 예체능계열 10.0%보다 높았으나, 건강상태에 있어서는 예체능계열이 12.5%로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의 4.6%와 2.6%보다 높았다. 간편성에서는 예체능계열이 17.5%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10.7%, 16.2%에 비해 높았으며, 양에서는 예체능계열이 10.0%로 인문계열 6.3%, 자연계열 4.6%보다 높았다. 반면 시간절약에서는 자연계

열이 16.2%로 인문계열 10.7%, 예체능계열 7.5%보다 높았으며, 가격에서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이 21.4%, 20.0%로 자연계열 11.9%보다 높았다. 즉 점심외식을 위하여 음식점을 선택할 때 예체능계열 학생은 자연계나 인문계열학생보다 건강상태, 영양, 양을 더 중요시하고 있었으나 자연계열과 인문계열학생들은 예체능계열에 비하여 기호, 간편성, 시간을 더 중요시하였다. 또 인문계열이나 예체능계열 학생들은 자연계열 학생들에 비해 가격을 더 중요시하고 있었다.

저녁의 경우는 기호와 분위기에서는 여학생은 44.1%, 19.8%로 남학생 27.4%, 14.1%보다 높았으나 건강상태, 가격, 양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5.4%, 12.0%, 4.6%로 여학생의 1.4%, 7.6%, 1.7%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저녁외식을 위하여 음식점을 선택할 때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건강상태, 가격, 양을 더 중요시하였으며, 여학생들은 남학생들 보다 기호, 분위기를 더 중요시하고 있었다.

한편 2순위에서는 아침의 경우 기호와 건강상태 및 간편성에서는 하숙하는 학생이 10.5%, 10.5%, 31.6%로 다른 집단보다 높았으나, 시간절약에서는 자기집에 사는 학생이 32.2%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격에서는 자취하는 학생이 19.1%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 하숙하는 학생은 기호와 건강상태, 간편성을 중시하고 자기집에 사는 학생은 시간절약을, 자취하는 학생은 가격을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점심의 경우는 건강상태와 시간절약에서 남학생이 9.0%, 20.0%로 여학생 3.0%, 14.0%보다 높게 나타났다. 식생활관에 따라서는 간편성과 주위의 권유에서 미식가이고 전통적인 음식을 선호하는 사람이 17.4%, 9.8%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시간절약과 가격에서는 식생활관이 보통인 사람이 19.2%, 25.5%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건강상태에서 서양적인 음식을 선호하고 맛에 대해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 7.3%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 즉 전통적인 음식을 선호하고 미식가인 사람은 간편성과 주위의 권유를 중시하였고 서양음식을 선호하고 맛에 대해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건강상태를, 맛에 대해 보통인 사람은 시간절약과 가격을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녁의 경우 식생활이 전통적인 음식을 선호하고 미식가인 집단은 가격, 주위의 권유, 서비스에서 각각 19.7%, 10.2%, 17.5%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

으며, 식생활이 보통인 집단은 간편성과 분위기에서 각각 6.8%, 23.4%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 반면 서양음식을 선호하고 맛에 대해 민감하지 않은 집단은 양, 위생에서 각각 6.8%, 13.6%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8. 자주 가는 음식점

1) 일반적인 경향

끼니, 계절, 동기에 따라 자주 가는 음식점의 일반적인 경향은 <표 8-1> 과 같다.

<표 8-1> 자주 가는 음식점 일반적 경향

빈도(%)

변수	스낵	분식	중국집	일반 한식	치 킨집	갈땃집	경 양식	학교 식당	햄버 거집	일식 (횃집)	피 자집	한식 뷔페	기 타	계
끼 니	아침	27(9.7)	50(18.1)	50(18.1)				135(48.7)					15(5.4)	277(100.0)
	점심	25(5.1)	106(21.5)	22(4.5)	24(4.9)			281(57.0)					35(7.1)	493(100.0)
	저녁	10(1.9)	155(29.6)	22(4.2)	79(12.4)	17(3.2)	129(24.6)	40(7.6)	43(8.2)	11(2.1)			18(3.4)	524(100.0)
계 절	봄	45(8.8)	148(28.9)	26(5.1)	67(13.1)	24(4.7)	72(14.1)	101(19.7)	10(2.0)				19(3.7)	512(100.0)
	여름	32(6.2)	103(19.8)	21(4.0)	50(9.6)		66(12.7)	86(16.6)	33(6.4)	93(17.7)			36(6.9)	519(100.0)
	가을	26(5.0)	112(21.7)	24(4.6)	54(10.4)		101(19.5)	25(4.8)	90(17.4)	22(4.3)	17(3.3)	17(3.3)	29(5.6)	517(100.0)
	겨울	21(4.0)	113(21.7)	19(3.6)	56(10.7)		126(24.2)	21(4.0)	83(15.9)	13(4.6)	21(4.0)	24(4.6)	24(4.6)	521(100.0)
동 기	끼니 해결	28(5.4)	179(34.5)	24(4.6)	60(11.6)		17(3.3)	200(38.5)					11(2.1)	519(100.0)
	친구 만남	36(6.9)	246(47.1)	19(3.6)	34(6.5)	10(2.2)	51(9.8)	23(4.4)	26(5.0)	37(7.1)		19(3.6)	11(2.1)	519(100.0)
	모임		59(11.8)	16(3.2)	83(16.7)		214(43.0)	34(6.8)		14(2.6)	31(2.6)	14(2.8)	39(7.8)	498(100.0)

1) 빈공간은 해당사항 없음.

<표8-1> 에 의하면 아침의 경우는 48.7%가 학교식당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한식집과 분식집이 18.1%, 스낵집이 9.7%로 나타났다. 점심은 과반수가 넘는 57.0% 학생이 학교식당을 이용하였고, 21.5%가 분식집을, 5.1%가 스낵집을 이용하고 있었다. 저녁은 분식집을 29.6%로 가장 많이 이용하였

고, 그 다음으로는 갈빗집 24.6%, 일반한식집 12.4%, 학교식당 8.2%, 경양식집 7.6%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대학생들은 아침과 점심은 학교식당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분식집이었으나, 저녁은 분식집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그 다음으로 갈빗집이었다. 아침과 점심의 경우 과반수의 학생이 학교식당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제주대학교의 지역적 특성상 학교주변에 상가나 음식점의 수가 적고, 시내 음식점까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동하기가 어려워 학교구내식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침과 점심 두 끼니를 학교에서 해결하는 것이므로 제주도 대학교의 구내 식당의 식단구성이나 음식의 질은 학생들의 영양에 아주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대학생의 기호를 고려한 식사형태 개발과 적절한 영양공급을 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식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미경·서은숙⁷¹⁾의 연구에서 점심의 종류로는 전체의 57.6%가 학교식당을 이용하고 있다는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계절에 따라서는 봄에는 28.9%로 분식집을 가장 많이 갔고, 그 다음으로 학교식당 19.7%, 갈빗집 14.1%, 일반한식집 13.1%였고, 여름에는 분식집을 19.8%로 가장 많이 갔고, 그 다음으로 학교식당을 16.6%, 갈빗집 12.7%, 일식 17.7%로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에는 분식집을 21.7%로 가장 많이 갔고, 그 다음으로 갈빗집 19.5%, 학교식당 17.4%로 갔고, 겨울에는 갈빗집이 24.2%로 가장 많이 갔으며, 그 다음으로 분식집 21.7%, 학교식당 15.9%, 일반한식집 10.7%로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은 봄·여름·가을에는 모두 분식집을, 겨울에는 갈빗집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봄에는 학교식당, 갈빗집을, 여름에는 학교식당, 일식을, 가을에는 갈빗집, 학교식당을, 겨울에는 분식집, 일반한식집을 이용하고 있었다.

외식동기에 따라서는 끼니해결을 위해서는 학교식당이 38.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분식집이 34.5%, 일반한식집이 11.6%, 그 외 스낵집이 5.4%, 중국집이 4.6%, 갈빗집이 3.3%였으며,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분식집이 4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갈빗집이 9.8%, 햄버거집이 7.1%, 스낵집이 6.9%, 일반한식집이

71) 신미경·서은숙(1995), “대학생의 식습관과 식품선호도에 관한 조사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1), p. 94.

6.5%, 학교식당이 5.0%, 경양식집이 4.4%, 중국집이 3.6%, 피자집이 3.6% 순으로 나타났다. 모임이 있을 때는 43.0%가 갈빗집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적인식집이 16.7%, 11.8%가 분식집, 6.8%가 경양식집, 3.2%가 중국집, 그 외 한식뷔페가 2.8%, 일식이 4.9%, 피자집이 2.6%, 일식집이 2.3%이었다. 이상의 결과로 끼니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식당과 분식집을,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분식집을, 모임이 있을 때는 갈빗집을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외식 끼니에 따라 자주 가는 음식점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외식끼니에 따라 자주 가는 음식점을 1순위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8-2> 과 같다.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차이를 보면, 아침은 연령에 따라, 점심은 성별, 계열에 따라, 저녁은 성별, 연령, 주거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아침의 경우 스낵은 20세미만이 18.8%, 20-22세가 8.3%, 22세이상이 1.5%인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적을수록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일반적인식은 20세미만이 13.8%, 20-22세가 15.2%, 22세이상이 29.2%로 연령이 많을수록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학교식당은 20-22세가 56.1%로 20세미만과 22세이상의 41.3%, 43.1%보다 높았으나 분식집은 20-22세가 15.9%로 20세 미만과 22세이상의 21.3%, 18.5%보다 낮아 20-22세 학생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학교식당은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나 분식집은 더 적게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점심의 경우는 중국집은 남자가 7.8%로 여자의 1.8%보다 많았고, 학교식당은 여자가 61.3%로 남자 51.6%보다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일반적인식집은 예체능계열이 22.5%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3.9%, 3.0%보다 자주 이용하였고 중국집도 예체능계열이 12.5%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2.6%, 4.4%보다 이용률이 높았다. 반면에 학교식당은 인문계열이 61.9%, 자연계열이 58.4%로 예체능계열의 27.5%보다 이용율이 높게 나타나 예체능계열은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보다 일반적인식집과 중국집을 더 많이 이용하였고,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은 예체능계열보다 학교식당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8-2〉 끼니에 따라 자주 가는 음식점

빈도 (%)

변수			스낵	분식	일반 한식	갈빗집	중국집	일식 (횃집)	경양식	치킨집	학교 식당	기 타	계
아 침	연 령	-20세	15(18.8)	17(21.3)	11(13.8)						33(41.3)	4(5.0)	80(100.0)
		20-22세	11(8.3)	21(15.9)	20(15.2)						74(56.1)	6(4.5)	132(100.0)
		22세-	1(1.5)	12(18.5)	19(29.2)						28(43.1)	5(7.7)	65(100.0)
	$\chi^2 = 21.78^{**}$ df = 8												
점 심	성 별	남	13(5.9)	45(20.5)	14(6.4)		17(7.8)				113(51.6)	17(7.8)	219(100.0)
		여	12(4.4)	61(22.3)	10(3.6)		5(1.8)				168(61.3)	18(6.6)	274(100.0)
	$\chi^2 = 14.51^*$ df = 5												
	계 열	인 문	5(3.2)	33(21.3)	6(3.9)		4(2.6)				96(61.9)	11(7.1)	86(100.0)
		자 연	18(6.0)	64(21.5)	9(3.0)		13(4.4)				174(58.4)	20(6.7)	169(100.0)
		예체능	2(5.0)	9(22.5)	9(22.5)		5(12.5)				11(27.5)	4(10.0)	22(100.0)
$\chi^2 = 44.00^{***}$ df = 10													
저 녁	성 별	남	6(2.5)	53(21.9)	34(14.0)	79(32.6)	13(5.4)	5(2.1)	11(4.5)	10(4.1)	21(8.7)	10(4.1)	242(100.0)
		여	4(1.4)	102(36.2)	45(16.0)	50(17.7)	9(3.2)	6(2.1)	29(10.3)	7(2.5)	22(7.8)	8(2.8)	282(100.0)
	$\chi^2 = 30.76^{***}$ df = 9												
	연 령	-20세	2(1.4)	43(29.7)	22(15.2)	40(27.6)	3(2.1)	2(1.4)	14(9.7)	4(2.8)	8(5.5)	7(4.8)	145(100.0)
		20-22세	7(2.8)	85(33.9)	39(15.5)	44(17.5)	11(4.4)	6(2.4)	22(8.8)	9(3.6)	21(8.4)	7(2.8)	251(100.0)
		22세-	1(0.8)	27(21.1)	18(14.1)	45(35.2)	8(6.3)	3(2.3)	4(3.1)	4(3.1)	14(10.9)	4(3.1)	128(100.0)
	$\chi^2 = 30.08^*$ df = 18												
	주거 형태	자가	4(1.2)	102(30.9)	48(14.5)	82(24.8)	14(4.2)	10(3.0)	23(7.0)	14(4.2)	21(6.4)	12(3.6)	330(100.0)
자취		4(3.1)	39(29.8)	28(21.4)	25(19.1)	5(3.8)	· ·	10(7.6)	2(1.5)	16(12.2)	2(1.5)	131(100.0)	
하숙		2(3.2)	14(22.2)	3(4.8)	22(34.9)	3(4.8)	1 (1.6)	7(11.1)	1(1.6)	6(9.5)	4(6.3)	63(100.0)	
$\chi^2 = 31.19^*$ df = 18													

1) * p<.05 **p<.01 *** p<.001

2) 유의성이 없는 것은 표에서 제외하였으며 빈공간은 해당사항 없음.

저녁은 분식집은 남자가 21.9%, 여자가 36.2%였고, 경양식집도 남자는 4.5%, 여자가 10.3%로 남자보다 여자가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갈빗집은 남자가 32.6%, 여자가 17.7%로 남자가 여자보다 자주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분식집은 20-22세 미만집단이 33.9%로 20세미만 29.7%, 22세이상 21.1%보다 높았으나 갈빗집은 20-22세가 17.5%로 20세미만 27.6%, 20세이상 35.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식집은 연령과 더불어 이용이 증가하다가 감소하였으

나 갈빗집은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있었다.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중국집은 2.1%, 4.4%, 6.3%로 학교식당은 5.5%, 8.4%, 10.9%로 높아졌으나 경양식집은 9.7%, 8.8%, 3.1%로 낮아지고 있어 중국집과 학교식당은 연령이 많을수록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나 경양식집은 연령이 적을수록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거형태에 따라서는 하숙하는 사람은 갈빗집을 34.9%로 자기집에 사는 사람과 자취생의 24.8%, 19.1%보다 자주 갔고, 경양식도 하숙하는 사람이 11.1%로 자기집에 사는 사람과 자취생의 7.0%, 7.6%보다 이용율이 높았다. 반면 일반한식집은 자취생이 21.4%로 자기집에 사는 사람과 하숙생의 14.5%, 4.8%보다 많이 갔고, 학교식당은 자취생이 12.2%로 자기집에 사는 사람의 6.4%, 하숙생의 9.5%보다 이용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계절에 따라 자주 가는 음식점

외식하는 계절에 따른 음식점 선택행동이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내용은 <표 8-3> 와 같다.

<표 8-3> 에 의하면 봄에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여름에는 성별, 연령, 계절에 따라, 가을에는 성별, 연령, 학년, 주거형태에 따라, 겨울에는 성별, 계절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봄의 경우 분식집은 남자가 20.8%, 여자는 35.9%로 남자보다 여자가 자주 갔으며 일반한식집은 남자가 16.9%, 여자는 9.8%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식당은 남자는 16.5%, 여자는 22.5%로 여자가 자주 갔고 갈빗집은 남자가 16.9%, 여자는 11.6%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이용율이 높았다. 분식집은 20-22세미만 집단이 35.0%로 20세미만 25.2%, 22세 이상 21.1%보다 더 많이 갔고, 학교식당은 연령이 어릴수록 자주 가는 것으로 나타나 20세 미만집단이 21.7%로 20-22세 20.3%, 22세이상 16.3%보다 높았다. 반면 일반한식집은 나이가 많을수록 자주 가는 것으로 나타나, 22세 이상 집단은 21.1%, 20-22세미만 집단은 11.8%, 20세 미만 집단은 8.4%로 22세 이상집단이 가장 많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3〉 계절에 따라 자주 가는 음식점

빈도(%)

변 수		스낵	분식	중국집	일반 한식	치킨집	갈비집	일식 (횃집)	경양식	학교 식당	햄버 거집	피자집	기 타	계
봄	성별	남 여	18(7.6) 27(9.8)	49(20.8) 99(35.9)	21(8.9) 5(1.8)	40(16.9) 27(9.8)	14(5.9) 10(3.6)	40(16.9) 32(11.6)	39(16.5) 62(22.5)	39(16.5) 62(22.5)	2(0.8) 8(2.9)		13(5.5) 6(2.2)	236(100.0) 276(100.0)
	$\chi^2 = 41.16^{***}$ df = 9													
	연령	-20세	18(12.6)	36(25.2)	5(3.5)	12(8.4)	8(5.6)	24(16.8)	31(21.7)		31(21.7)	5(3.5)		143(100.0)
		20-22세	22(8.9)	86(35.0)	10(4.1)	29(11.8)	11(4.5)	26(10.6)	50(20.3)		50(20.3)	4(1.6)		246(100.0)
		22세-	5(4.1)	26(21.1)	11(8.9)	26(21.1)	5(4.1)	22(17.9)	20(16.3)		20(16.3)	1(0.8)		123(100.0)
여름	$\chi^2 = 35.56^{**}$ df = 18													
	성별	남 여	13(5.5) 19(6.7)	37(15.6) 66(23.4)	16(6.8) 5(1.8)	32(13.5) 18(6.4)		36(15.2) 30(10.6)	49(20.7) 43(15.3)		36(15.2) 50(17.7)	14(5.9) 22(7.8)		237(100.0) 282(100.0)
	$\chi^2 = 39.39^{***}$ df = 8													
	연령	-20세	17(11.9)	26(18.2)	3(2.1)	9(6.3)		21(14.7)	23(16.1)		25(17.5)	14(9.8)		143(100.0)
		20-22세	14(5.6)	60(23.9)	9(3.6)	21(8.4)		27(10.8)	38(15.2)		43(17.1)	19(7.6)		251(100.0)
		22세-	1(0.8)	17(13.6)	9(7.2)	20(16.0)		18(14.4)	31(24.8)		18(14.4)			125(100.0)
가을	$\chi^2 = 52.16^{***}$ df = 16													
	계열	인문	11(6.9)	41(25.6)	6(3.8)	11(6.9)		10(6.3)	27(16.9)		21(13.1)	19(11.9)		160(100.0)
		자연	18(5.7)	59(18.6)	12(3.8)	36(11.3)		49(15.4)	54(17.0)		57(17.9)	13(4.1)		318(100.0)
		예체능	3(7.3)	3(7.3)	3(7.3)	3(7.3)		7(17.1)	11(26.9)		8(19.5)	1(2.4)		41(100.0)
	$\chi^2 = 36.16^{**}$ df = 16													
겨울	성별	남 여	9(3.8) 17(6.0)	34(14.4) 78(27.8)	14(5.9) 10(3.6)	23(9.7) 31(11.0)		60(25.4) 41(14.6)	11(4.7) 6(2.1)	15(6.4) 10(3.6)	35(14.8) 55(19.6)	12(5.1) 10(3.6)	5(2.1) 12(4.3)	236(100.0) 281(100.0)
	$\chi^2 = 33.18^{***}$ df = 10													
	학년	1	6(4.2)	28(19.7)	6(4.2)	13(9.2)		27(19.0)	4(2.8)	8(5.6)	25(17.6)	7(4.9)	5(3.5)	142(100.0)
		2	10(6.7)	33(22.1)	6(4.0)	15(10.1)		35(23.5)	2(1.3)	4(2.7)	26(17.4)	10(6.7)	5(3.4)	149(100.0)
		3	7(5.3)	33(25.0)	5(3.8)	17(12.9)		17(12.9)	7(5.3)	10(7.6)	24(18.2)	3(2.3)	4(3.0)	132(100.0)
		4	3(3.2)	18(19.1)	7(7.4)	9(9.6)		22(23.4)	4(4.3)	3(3.2)	15(16.0)	2(2.1)	3(3.2)	94(100.0)
봄	$\chi^2 = 32.26^{***}$ df = 30													
	연령	-20세	9(6.3)	28(19.4)	5(3.5)	8(5.6)		32(22.2)	4(2.8)	9(6.3)	27(18.8)	9(6.3)	4(2.8)	144(100.0)
		20-22세	15(6.0)	67(26.9)	10(4.0)	28(11.2)		37(14.9)	8(3.2)	8(3.2)	43(17.3)	10(4.0)	12(4.8)	249(100.0)
		22세-	2(1.6)	17(13.7)	9(7.3)	18(14.5)		32(25.8)	5(4.0)	8(6.5)	20(16.1)	3(2.4)	1(0.8)	124(100.0)
	$\chi^2 = 35.73^*$ df = 20													
여름	주거형태	자가	17(5.2)	84(25.7)	19(5.8)	31(9.5)		70(21.4)	8(2.4)	17(5.2)	49(15.0)	11(3.4)	6(1.8)	327(100.0)
		자취	4(3.1)	25(19.4)	3(2.3)	18(14.0)		17(13.2)	4(3.1)	4(3.1)	32(24.8)	6(4.7)	9(7.0)	129(100.0)
		하숙	5(8.2)	3(4.9)	2(3.3)	5(8.2)		14(23.0)	5(8.2)	4(6.6)	9(14.8)	5(8.2)	2(3.3)	61(100.0)
	$\chi^2 = 47.81^{***}$ df = 20													
	$\chi^2 = 35.88^*$ df = 16													

1) * p<.05 **p<.01 *** p<.001

2) 유의성이 없는 것은 표에서 제외하였으며 빈공간은 해당사항 없음.

여름에는 분식집은 여자가 23.4%로 남자의 15.6%보다 자주 갔고, 일반한식집은 남자가 13.5%로 여자인 6.4%보다 자주 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갈빗집과 일식, 중국집도 남자가 여자보다 자주 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갈빗집은 남자가 15.2%, 여자는 10.6% 였고, 일식은 남자가 30.7%, 여자는 15.3%로, 중국집은 남자가 6.8%, 여자는 1.8%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분식집은 20-22세미만 집단이 23.9%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많이 갔고, 중국집과 일반한식집은 나이가 많을수록 자주 가는 경향을 보여 중국집과 일반한식집은 20세미만이 각각 2.1%, 6.3%, 20-22세가 3.6%, 8.4%, 22세이상이 7.2%, 16.0%로 나타났다. 또한 일식도 나이가 많을수록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 22세이상이 15.2%로 20세미만이 29.6%, 20세미만 23.1%보다 자주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낵집은 나이가 어릴수록 많이 가는 경향으로 20세 미만이 11.9%로 20-22세 5.6%, 22세이상 0.8%보다 이용율이 높았다. 즉 나이가 어린 계층은 스낵집을 다른 계층에 비해 선호하고, 나이가 많은 계층은 중국집, 일반한식집, 일식을 다른 계층에 비해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계열에 따른 차이를 보면 분식집과 햄버거집은 예체능계열과 자연계열보다 인문계열이 많이 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분식집은 인문계열이 25.6%로 자연계열 18.6%, 예체능계열 7.3%보다 많았고, 햄버거집은 인문 계열이 11.9%로 자연계열 4.1%, 예체능계열 2.4%보다 높았다. 반면 갈빗집, 일식, 학교식당은 다른 계열에 비해 예체능계열에서 자주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체능계열, 자연계열, 인문계열에서 갈빗집은 각각 17.1%, 15.4%, 6.3%였고, 일식은 34.2%, 26.4%, 14.4%, 학교식당은 19.5%, 17.9%, 13.1%로 나타났다. 자연계열은 일반한식집이 11.3%로 인문계열 6.9%와 예체능계열 7.3%보다 자주 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을에는 갈빗집은 남자가 25.4%로 여자 14.6%보다 자주 갔고, 일식집도 남자가 4.7%로 여자 2.1%보다 이용율이 높았고, 분식집과 일반한식집, 학교식당은 남자보다 여자가 이용율이 높았는데, 분식집은 여자가 27.8%로 남자 14.4%보다 많았고, 일반한식집은 여자가 11.0%로 남자 9.7%보다, 학교식당은 여자가 19.6%로 남자 14.8%보다 자주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갈빗집과 일식집은 여자보다 남자가, 학교식당, 일반한식집, 분식집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년에 따라서는 분식집은 3학년이 25.0%로 1학년 19.7%,

2학년 22.1%, 4학년 19.1%보다 자주 갔고, 일반한식집도 3학년이 12.9%로 1학년 9.2%, 2학년 10.1%, 4학년 9.6%보다 이용율이 높았고, 경양식은 3학년이 7.6%로 다른 학년에 비해 자주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빗집은 2학년과 4학년이 23.5%와 23.4%로 1학년 19.0%, 3학년 12.9%보다 자주 갔으며, 중국집은 4학년이 7.4%로 1학년, 2학년, 3학년의 4.2%, 4.0%, 3.8%보다 더 자주 가고 있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스낵집과 학교식당은 나이가 어릴수록 자주 가는 경향으로 스낵집은 20세미만이 6.3%, 20-22세가 6.0%, 22세이상이 1.6%였고, 학교식당은 20세미만이 18.8%, 20-22세가 17.3%, 22세이상이 16.1%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한식집과 중국집은 나이가 많을수록 자주 가는 경향을 보여 중국집은 22세이상이 7.3%로 20세미만 3.5%, 20-22세 4.0%보다 많았고, 일반한식은 22세이상이 14.5%로 20세미만 5.6%와 20-22세 11.2%보다 자주 갔다. 분식집은 20-22세가 26.9%로 다른 연령에 비해 많이 갔고 갈빗집은 20-22세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덜 가는 것으로 나타나 20세미만이 22.2%, 22세이상이 25.8%, 20-22세가 14.9%로 나타났다. 주거형태에 따라서는 분식집은 자기집에 사는 학생이 25.7%로 자취생 19.4%, 하숙생 4.9%보다 자주 갔으며 일반한식, 학교식당, 피자집은 자취생이 자기집에 사는 학생과 하숙생에 비해 자주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한식은 자취가 14.0%로 자가 9.5%, 하숙 8.2%보다 자주 갔고 학교식당은 자취 24.8%로 자가 15.0%, 하숙 14.8%보다 많았으며 피자집은 자취 7.0%로 자가 1.8%, 하숙 3.3%보다 자주 갔다.

겨울에는 분식집은 여자가 28.3%, 남자는 13.9%로 여자가 남자보다 자주 갔고, 찜집은 남자가 6.3%, 여자는 2.1%였고, 중국집은 남자는 5.9%, 여자는 1.8%로 나타나 남자가 여자보다 찜집과 중국집 이용율이 높았다. 분식집은 인문계열이 31.9%로 자연계열 18.4%와 예체능계열 7.3%보다 자주 갔고, 갈빗집과 경양식집은 예체능계열이 다른 계열에 비해 자주 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갈빗집은 예체능계열이 41.5%로 인문계열 18.8%, 자연계열 24.7%보다 자주 갔으며, 경양식은 예체능계열이 12.2%로 인문계열 3.8%, 자연계열 3.1%보다 자주 갔다. 일반한식집은 자연계열이 12.5%로 인문계열 8.8%, 예체능계열 4.9%보다 많았으며 학교식당도 자연계열이 17.5%로 인문계열 13.8%, 예체능계열 12.2%보다 자주 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외식동기에 따라 자주 가는 음식점

외식하는 동기에 따른 음식점 선택행동이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내용은 <표 8-4>와 같다.

끼니해결을 위해서는 성별, 연령, 계열, 주거형태에 따라,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성별, 연령, 학년, 계열, 식생활관에 따라, 모임있을 때는 성별,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끼니해결을 위해서 외식할 때 남자는 분식집을 30.1%, 여자는 38.2%였고, 학교식당은 남자가 31.4%, 여자는 44.5%로 여자가 남자보다 자주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집은 남자가 8.5%, 여자는 1.4%였고, 일반한식집을 남자는 15.7%, 여자는 8.1%, 갈빗집은 남자가 5.9%, 여자는 1.1%로 나타나 남자가 여자보다 중국집, 일반한식집, 갈빗집 이용율이 높았다. 22세 이상 집단이 일반한식집과 갈빗집을 각각 16.9%, 8.1%로 다른 연령에 비해 많이 갔고, 학교식당은 20세 미만 집단이 42.3%로 다른 연령에 비해 자주 갔고, 22세 이상 집단은 29.8%로 이용율이 낮게 나타났다. 분식집과 학교식당은 인문계열이 다른 계열에 비해 이용율이 높았고 예체능계열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반면 일반한식집은 예체능계열이 35.7%로 다른 계열에 비해 자주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식집은 자기집에 사는 사람은 38.0%로 하숙생과 자취생에 비해 이용율이 높았고, 일반한식집은 자취생이 16.0%, 하숙생이 16.0%로 자기집에 사는 사람보다 자주 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분식집을 남자가 31.4%, 여자는 과반수가 넘는 60.1%로 여자가 남자보다 자주 갔으며, 또한 햄버거집은 남자가 3.0%, 여자가 10.5%, 피자집은 남자 0.8%, 여자가 5.9%로 남자보다 여자가 자주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반한식집은 남자가 10.6%, 여자가 3.1%였고, 갈빗집도 남자가 19.5%, 여자가 1.7%, 중국집은 남자가 6.8%, 여자가 1.0%로 남자가 여자보다 자주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식집이용율은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져 20세 미만 집단은 과반수가 넘는 58.7%, 20-22세미만 집단은 50.6%인데 비해 22세 이상집단은 26.6%로 낮았다. 반면에 일반한식집과 갈빗집은 나이가 많을수록 이용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일반한식집은 22세이상 집단이 12.9%로 다른 연령에 비해 자주 갔으

〈표 8-4〉 동기에 따라 자주 가는 음식점

빈도 (%)

변 수		스넥	분식	중국집	일반 한식	치킨집	갈뽕집	일식 (회집)	정양식	학교 식당	햄버 거집	한식 뷔페	피자집	기타	계	
꺼 니 해 결	성 별	남	14(5.9)	71(30.1)	20(8.5)	37(15.7)		14(5.9)			74(31.4)			6(2.5)	236(100.0)	
		여	14(4.9)	108(38.2)	4(1.4)	23(8.1)		3(1.1)			126(44.5)			5(1.8)	283(100.0)	
	$\chi^2 = 38.37^{***}$ df = 6															
	연 령	-20세	10(7.0)	47(33.1)	6(4.2)	13(9.2)		3(2.1)			60(42.3)			3(2.1)	142(100.0)	
		20-29세	15(5.9)	91(36.0)	8(3.2)	26(10.3)		4(1.6)			103(40.7)			6(2.4)	253(100.0)	
		30세-	3(2.4)	41(33.1)	10(8.1)	21(16.9)		10(8.1)			37(29.8)			2(1.6)	124(100.0)	
	$\chi^2 = 26.73^{**}$ df = 12															
	계 열	인 문	9(5.7)	59(37.3)	6(3.8)	10(6.3)		3(1.9)			68(43.0)			3(1.9)	158(100.0)	
		자 연	16(5.0)	110(34.5)	15(4.7)	35(11.0)		12(3.8)			123(38.6)			8(2.5)	319(100.0)	
		예제능	3(7.1)	10(23.8)	3(7.1)	15(35.7)		2(4.8)			9(21.4)			-	42(100.0)	
$\chi^2 = 34.56^{***}$ df = 12																
주거 형태	자가	18(5.5)	124(38.0)	13(4.0)	29(8.9)		127(39.0)			13(4.0)			2(0.6)	328(100.0)		
	차취	5(3.8)	40(30.5)	6(4.6)	21(16.0)		51(38.9)			2(1.5)			6(4.6)	131(100.0)		
	하숙	5(8.1)	15(24.2)	5(8.1)	10(16.1)		22(35.5)			2(3.2)			3(4.8)	62(100.0)		
$\chi^2 = 23.67^{*}$ df = 12																
모 임	성 별	남		21(9.1)	10(4.3)	32(13.8)		107(46.1)	15(9.5)	12(5.2)			8(3.4)	1(0.4)	26(11.2)	232(100.0)
		여		38(14.3)	6(2.3)	51(19.2)		107(40.2)	11(4.1)	22(8.3)			6(2.3)	12(4.5)	13(4.9)	266(100.0)
	$\chi^2 = 27.83^{***}$ df = 89															
	연 령	-20세		24(17.6)	3(2.2)	23(16.9)		57(41.9)	4(2.9)	6(4.4)			5(3.7)	3(2.2)	11(8.1)	136(100.0)
20-29세			28(11.6)	5(2.1)	42(17.4)		91(37.6)	20(8.2)	22(9.1)			6(2.5)	9(3.7)	21(8.7)	242(100.0)	
30세-			7(5.8)	8(6.7)	18(15.0)		66(55.0)	3(2.5)	6(5.0)			3(2.5)	1(0.8)	7(5.8)	120(100.0)	
$\chi^2 = 32.74^{*}$ df = 16																
친 구 만 남	성 별	남	20(8.5)	74(31.4)	16(6.8)	25(10.6)	3(1.3)	46(19.5)		8(3.4)	19(8.1)	7(3.0)		2(0.8)	16(6.8)	236(100.0)
		여	16(5.6)	172(60.1)	3(1.0)	9(3.1)	7(2.4)	5(1.7)		15(5.2)	7(2.4)	30(10.5)		17(5.9)	5(1.7)	286(100.0)
	$\chi^2 = 126.41^{***}$ df = 10															
	연 령	-20세	14(9.8)	84(58.7)	4(2.8)	5(3.5)	2(1.4)	3(2.1)		3(2.1)	9(6.3)	11(7.7)		4(2.8)	4(2.8)	143(100.0)
		20-29세	18(7.1)	129(50.6)	7(2.7)	13(5.1)	7(2.7)	18(7.1)		13(5.1)	9(3.5)	2(9.8)		12(4.7)	4(1.6)	255(100.0)
		30세-	4(3.2)	33(26.6)	8(6.5)	16(12.9)	1(0.8)	30(24.2)		7(5.6)	8(6.5)	1(0.8)		3(2.4)	13(10.5)	124(100.0)
	$\chi^2 = 105.90^{***}$ df = 20															
	학 년	1	14(9.8)	78(54.5)	5(3.5)	5(3.5)	2(1.4)	8(5.6)		3(2.1)	9(6.3)	10(7.0)		1(0.7)	8(5.6)	143(100.0)
		2	12(7.9)	65(43.0)	4(2.6)	10(6.6)	1(0.7)	19(12.6)		5(3.3)	8(5.3)	14(9.3)		10(6.6)	3(2.0)	151(100.0)
		3	7(5.3)	69(51.9)	4(3.0)	8(6.0)	5(3.8)	6(4.5)		12(9.0)	5(3.8)	9(6.8)		3(2.3)	5(3.8)	133(100.0)
		4	3(3.2)	34(35.8)	6(6.3)	11(11.6)	2(2.1)	18(18.9)		3(3.2)	4(4.2)	4(4.2)		5(5.3)	5(5.3)	95(100.0)
	$\chi^2 = 61.01^{***}$ df = 30															
계 열	인 문	7(4.4)	84(52.5)	5(3.1)	9(5.6)	2(1.3)	8(5.0)		7(4.4)	8(5.0)	19(11.9)		9(5.6)	2(1.3)	160(100.0)	
	자 연	22(6.9)	151(47.2)	13(4.1)	20(6.3)	8(2.5)	34(10.6)		14(4.4)	1(4.7)	17(5.3)		9(2.8)	17(5.3)	320(100.0)	
	예제능	7(16.7)	11(26.2)	1(2.4)	5(11.9)	-	9(21.4)		2(4.8)	3(7.1)	1(2.4)		1(2.4)	2(4.8)	42(100.0)	
$\chi^2 = 41.61^{**}$ df = 20																
식 생 활 관	상	8(5.4)	74(50.3)	9(6.1)	6(4.1)	2(1.4)	8(5.4)		8(5.4)	7(4.8)	13(8.8)		8(5.4)	4(2.7)	140(100.0)	
	중	17(7.2)	117(49.8)	4(1.7)	14(6.0)	7(3.0)	30(12.8)		3(1.3)	14(6.0)	14(6.0)		7(3.0)	8(3.4)	235(100.0)	
	하	11(7.9)	55(39.3)	6(4.3)	14(10.0)	1(0.7)	13(9.3)		12(8.6)	5(3.6)	10(7.1)		4(2.9)	9(6.4)	147(100.0)	
$\chi^2 = 37.87^{**}$ df = 20																

1) * p<.05 **p<.01 *** p<.001

2) 유의성이 없는 것은 표에서 제외하였으며 빈공간은 해당사항 없음.

며, 갈빗집도 22세 이상집단이 24.2%로 이용율이 높고, 20세 미만집단이 2.1%로 이용율이 낮았다. 분식집은 1학년이 54.5%로 다른 학년에 비해 자주 갔으며, 일반한식과 갈빗집은 4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자주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한식집은 4학년이 11.6%로 가장 높고, 1학년이 3.5%로 가장 이용율이 낮았고, 갈빗집은 4학년이 18.9%, 3학년이 4.5%로 가장 낮았다. 예체능계열은 스낵집, 일반한식집, 갈빗집을 다른 계열보다 자주 가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햄버거집과 분식집은 인문계열이 다른 계열보다 자주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식가인 집단이 분식집을 50.3%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주 갔고, 일반한식집은 맛에 민감하지 못한 사람이 10.0%로 미식가 집단 4.1%보다 이용율이 높게 나타났다.

모임이 있을 때 남자는 분식집이 9.1%, 여자는 14.3%로 여자가 남자보다 자주 갔고, 일반한식집은 남자가 13.8%, 여자가 19.2%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자주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빗집은 남자가 46.1%, 여자는 40.2%, 중국집도 남자는 4.3%, 여자는 2.3%로 남자가 이용율이 높았다.

나이가 많을수록 분식집 이용율이 낮아져 20세 미만 집단은 17.6%, 20-22세 미만 집단은 11.6%, 22세 이상 집단은 5.8%순으로 나타났으며, 갈빗집은 22세 이상 집단에서 55.0%로 가장 자주 갔고, 20세 미만 집단은 41.9%, 20-22세미만 집단은 37.6%였다. 경양식집은 20-22세미만 집단이 9.1%로 다른 연령에 비해 자주 갔고, 20세 미만 집단이 4.4%로 이용율이 낮았으며, 중국집은 22세 이상 집단이 6.7%로 다른 연령에 비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음식점 재 선택 행동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음식점 재 선택 요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9-1> 과 <표 9-2> 와 같다.

<표 9-1> 과 <표 9-2> 에 의하면 다시 가게 되는 이유는 맛이 좋아서가 69.8%로 가장 많았고, 친절해서가 9.6%, 가격이 저렴해서가 7.2%, 위생적이어서가 4.3%, 메 뉴가 다양해서가 2.3%였으며, 한 번 갔던 음식점에 다시 가지 않는 이유도 맛이 없어서가 57.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격이 비싸서가 19.7%, 불친절

해서가 10.9%, 비위생적이어서가 8.8%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한 번 갔던 음식점에 다시 가는 이유와 다시 가지 않는 요인은 모두 맛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차이를 보면, 한 번 갔던 음식점에 다시 가는 이유는 성별, 계열, 주거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다시 가지 않는 이유는 성별, 식생활관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다시 가는 요인에 있어서 맛이 좋아서는 여학생이 76.8%로 남학생의 61.3%보다 높았으나 친절해서와 가격이 저렴해서는 남자가 15.4%, 8.8%로 4.8%, 5.9%인 여학생보다 높았다. 또한 다시 가지 않는 요인에 있어서도 맛이 없어서가 여학생이 66.2%로 45.8%인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불친절해서와 가격이 비싸서는 남학생이 14.0%, 27.5%로 8.4%, 13.2%인 여학생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번 갔던 음식점에 다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맛을 더 중요시하고 있으나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친절면과 가격면을 더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김두진⁷²⁾의 연구에서 남녀 모두 음식 맛이 좋아서가 각각 88.89%, 91.36%로 나타난 결과와는 유사하나, 그 다음으로 남자는 음식가격이 싸서가 45.68%, 여자는 위생적이어서가 45.45%로 나타난 결과와는 다소 다르다. 계열에 따라서는 다시 가는 요인에 있어서 예체능 계열은 친절해서가 12.7%로 다른 계열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맛이 좋아서는 인문 계열과 자연계열이 예체능계열보다 높게 나타났다.

분위기가 좋아서와 가격이 저렴해서는 인문계열이 다른 계열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숙생은 친절해서가 19.4%로 자기집에 사는 사람이나 자취생보다 많았고, 자취생이 3.8%로 가장 낮았고, 가격도 하숙생이 11.3%, 자취생이 7.6%, 자기집에 사는 사람이 6.3%로 나타나 하숙하는 사람이 친절과 가격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집에 사는 사람은 분위기가 좋아서가 4.5%로 많았고, 자취생이 1.5%로 낮았으며, 메뉴가 다양해서는 자취생이 4.6%, 자기집에 사는 사람이 1.5%로 자기집에 사는 사람이 분위기를 더 많이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72) 김두진(1994)의 전제논문.

〈표 9-1〉 다시 가는 이유

빈도 (%)

변 수		친절면	위생면	맛	메뉴	분위기	가격	기타	계	비 고
성 별	남	37(15.4)	12(5.0)	147(61.3)	5(2.1)	7(2.9)	21(8.8)	11(4.6)	240(100.0)	$\chi^2 = 23.86^{***}$ df = 6
	여	14(4.8)	11(3.8)	222(76.8)	7(2.4)	11(3.8)	17(5.9)	7(2.4)	289(100.0)	
계 열	인 문	12(7.3)	3(1.8)	118(71.5)	3(1.8)	10(6.1)	14(8.5)	5(3.0)	165(100.0)	$\chi^2 = 27.69^{**}$ df = 12
	자 연	28(8.7)	16(5.0)	228(71.0)	8(2.5)	6(1.9)	23(7.2)	12(3.7)	321(100.0)	
	예체능	11(25.6)	4(9.3)	23(53.5)	1(2.3)	2(4.7)	1(2.3)	1(2.3)	43(100.0)	
주 거	자 가	34(10.1)	14(4.2)	235(69.9)	5(1.5)	15(4.5)	21(6.3)	12(3.6)	336(100.0)	$\chi^2 = 25.10^*$ df = 12
	자 취	5 (3.8)	9(6.9)	95(72.5)	6(4.6)	2(1.5)	10(7.6)	4(3.1)	131(100.0)	
	하 숙	12(19.4)	· ·	39(62.9)	1(1.6)	1(1.6)	7(11.3)	2(3.2)	62(100.0)	
계		51(9.6)	23(4.3)	369(69.8)	12(2.3)	18(3.4)	38(7.2)	18(3.4)	529(100.0)	

1) * p<.05 **p<.01 *** p<.001

2) 유의성이 없는 것은 표에서 제외하였음.

〈표 9-2〉 다시 가지 않는 이유

빈도 (%)

변 수		친절면	위생면	맛	가격	기타	계	비 고
성 별	남	33(14.0)	20(8.5)	108(45.8)	65(27.5)	10(4.2)	236(100.0)	$\chi^2 = 27.18^{***}$ df = 4
	여	24(8.4)	26(9.1)	190(66.2)	38(13.2)	9(3.1)	287(100.0)	
식 생 활 관	상	23(15.4)	19(12.8)	68(45.6)	34(22.8)	5(3.4)	143(100.0)	$\chi^2 = 19.27^*$ df = 8
	중	20(8.7)	20(8.7)	144(62.3)	36(15.6)	11(4.8)	231(100.0)	
	하	14(9.8)	7(4.9)	86(60.1)	33(23.1)	3(2.1)	149(100.0)	
계		57(10.9)	46(8.8)	298(57.0)	103(19.7)	19(3.6)	529(100.0)	

1) * p<.05 **p<.01 *** p<.001

2) 유의성이 없는 것은 표에서 제외하였음.

다시 가지 않는 이유로는 맛이 없어서가 남자는 45.8%인데 비해 여자는 66.2%로 나타나 여자가 남자보다 맛에 민감하고 가격이 비싸서는 남자가 27.5%, 여자는 13.2%였고, 불친절해서는 남자가 14.0%, 여자는 8.4%로 남자가 여자보다

가격과 친절면에 민감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다시 가는 이유에서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식생활관에 따라서는 다시 가지 않는 요인이 불친절해서와 위생적이지 못해서는 전통적인 음식을 선호하고 미식가인 집단이 각각 15.4%, 12.8%로 다른 집단에 비해 더 고려하였고, 맛이 없어서는 맛에 대해 보통인 집단이 62.3%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아 더 중요시하였다. 반면 가격이 비싸서는 전통적인 식생활과 미식가인 집단이 22.8%, 서양적인 식생활과 맛에 민감하지 않은 집단이 23.1%로 비슷하였으나 보통인 집단이 15.6%로 다른 집단에 비해 낮아 가격면을 덜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김두진⁷³⁾의 연구에서 남녀 각각 음식 맛이 없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10. 음주 행동

성별에 따른 음주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10> 과 같다.

<표 10> 에 의하면 대학생들은 술에 대한 기호에서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6.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좋아한다는 경우가 43.2%이었으며, 과음 경험은 87.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술을 마시는 장소는 호프집이 6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민속주점이 28.9%이었으며, 술을 마시는 횟수는 월 1-2회가 35.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 1회 30.0%, 주 2-3회 27.1%로 나타났다. 주로 마시는 술의 종류는 소주가 54.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6.4%가 맥주였고, 소주와 맥주를 같이 마시는 경우도 14.9%이었다. 그 술만 마시는 이유는 값이 싸서가 43.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술이 순해서 14.1%, 친목도 모를 위하여 13.4%, 맛이 있어서 12.5%로 나타나 주로 소주는 값이 싸서 마시고, 맥주는 순해서 마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음주비용은 만원미만이 과반수를 넘는 60.1%이었으며, 만원에서 2만원이 26.4%이었다. 술을 처음 마신 나이는 20세 이후가 45.4%로 가장 많았으며 31.2%가 18에서 20세 사이에 술을 처음 마셨고, 18세 이전에 마셨다는 경우도 23.4%이었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76.7%가 대학에 입학하

73) 김두진(1994)의 전제논문.

고 난 이후에 술을 마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량은 1병 이하가 57.0%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2병에서 3병 미만이 36.2%이었다. 음주를 하게 되는 이유는 1순위에서 친목도모를 위해서가 65.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모임 있을 때 마신다가 16.0%이었고, 그 외 스트레스해소, 술이 좋아서가 각각 6.4%, 6.8%로 나타났고, 2순위에서는 모임으로 마시는 경우가 40.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19.8%, 주위의 권유 12.2%, 술이 좋아서 10.7%로 나타났다. 3순위에서는 모임 있을 때 마신다가 31.3%로 가장 많았고, 주위의 권유가 21.2%, 기분이 나빠서가 16.5%, 기분이 좋아서가 15.8%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주로 모임 등을 통한 친목도모를 위해 음주를 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스트레스 해소, 주위의 권유, 기분 때문에 술을 마시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교협에서 실시한 대학생들의 놀이문화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도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의 음주이유는 친구 또는 선후배간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그냥 술이 좋아서와 술자리가 좋아서인 것으로 나타났다.⁷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면 술에 대한 기호, 과음경험, 장소, 차수, 빈도, 비용, 음주를 처음 시작한 나이, 주량, 술의 종류, 음주이유 등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음주를 하지 않는 이유, 음주여부, 음주를 처음 하게 된 동기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술에 대한 기호는 남자는 49.4%가 좋아하는데 반해 여자는 52.4%가 술에 대해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보통이다라고 하였고 좋아하는 경우는 37.9%로 나타났다. 음주비용은 남자는 만원미만이 46.3%로 가장 많았고, 만원에서 2만원이 33.5%, 2만원에서 3만원이 14.8%인데 여자는 72.9%가 만원미만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술을 마실 때 남자가 비용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음주장소에서는 남자는 호프집이 51.6%로 가장 많았고, 민속주점이 34.7%, 여자는 민속주점 23.8%, 호프집 72.7%로 나타나 호프집은 여자가 남자보다 많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주로 민속주점이 소주를 많이 취급하고 호프집은 맥주를 취급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외 기타로는 양식집, 단란주점, 카페 등이 있었다.

74) 매일경제신문(1995), 9.20일자 인용.

〈표10〉 성별에 따른 음주행동

빈도 (%)

변수		남	여	계	비고	변수		남	여	계	비고
기호	좋아함	120(49.4)	110(37.9)	230(43.2)	$\chi^2 = 12.68^{**}$ df = 3	비용	만원미만	94(46.3)	161(72.9)	255(60.1)	$\chi^2 = 33.51^{***}$ df = 3
	보통	94(38.7)	152(52.4)	246(46.2)			만-2만원	68(33.5)	44(19.9)	112(26.4)	
	싫어함	21(8.6)	25(8.6)	46(8.6)			2-3만원	30(14.8)	10(4.5)	40(9.4)	
	잘모름	8(3.3)	3(1.0)	11(2.1)			기타	11(5.4)	6(2.7)	17(4.0)	
	계	243(100.0)	290(100.0)	533(100.0)			계	203(100.0)	221(100.0)	424(100.0)	
과음	경험 있다	205(91.5)	214(83.9)	419(87.5)	$\chi^2 = 6.28^*$ df = 1	음주	한 다	223(91.8)	256(88.3)	479(89.9)	$\chi^2 = 1.77$ df = 1
	경험 없다	19(8.5)	41(16.1)	60(12.5)			안한다	20(8.2)	34(11.7)	54(10.1)	
	계	224(100.0)	255(100.0)	479(100.0)			계	243(100.0)	290(100.0)	533(100.0)	
비음주이유	건강	7(3.8)	11(28.9)	18(30.0)	$\chi^2 = 2.87$ df = 3	동기	주위권유	40(17.9)	38(14.8)	78(16.2)	$\chi^2 = 1.63$ df = 3
	알레르기	3(1.6)	8(21.1)	11(18.3)			호기심	57(25.4)	62(24.1)	119(24.7)	
	맛없음	9(40.9)	9(23.7)	18(30.0)			대인관계	109(48.7)	139(54.1)	248(51.6)	
	기타	3(1.6)	10(26.3)	13(21.7)			기타	18(8.0)	18(7.0)	36 (7.5)	
	계	22(100.0)	38(100.0)	60(100.0)			계	224(100.0)	257(100.0)	481(100.0)	
장소	민속주점	78(34.7)	61(23.8)	139(28.9)	$\chi^2 = 28.53^{***}$ df = 2	시작연령	18세미만	73(32.7)	39(15.3)	112(23.4)	$\chi^2 = 23.80^{***}$ df = 2
	호프집	116(51.6)	186(72.7)	302(62.8)			18-20세	70(31.4)	79(31.0)	149(31.2)	
	기타	31(13.8)	9(3.5)	40(8.3)			20세이상	80(35.9)	137(53.7)	217(45.4)	
	계	225(100.0)	256(100.0)	481(100.0)			계	223(100.0)	255(100.0)	478(100.0)	
차수	1 차	12(5.4)	20(7.8)	32(6.7)	$\chi^2 = 20.17^{***}$ df = 3	주량	1병이하	95(46.3)	154(66.4)	249(57.0)	$\chi^2 = 20.99^{***}$ df = 3
	2 차	89(39.9)	142(55.7)	231(48.3)			2-3병	88(42.9)	70(30.2)	158(36.2)	
	3 차	109(48.9)	90(35.3)	199(41.6)			3-4병	13(6.3)	5(2.2)	18 (4.1)	
	4차이상	13(5.8)	3(1.2)	16(3.3)			기타	9(4.4)	3(1.3)	12 (2.7)	
	계	223(100.0)	255(100.0)	478(100.0)			계	205(100.0)	232(100.0)	437(100.0)	
빈도	주6회	9(4.0)	1(0.4)	10(2.1)	1순위	음주이유	천목도모	143(63.6)	172(66.9)	315(65.4)	$\chi^2 = 13.56^{***}$ df = 4
	주4-5회	18(8.1)	8(3.1)	26(5.4)			스트레스해소	18(8.0)	13(5.1)	31(6.4)	
	주2-3회	81(36.3)	49(19.1)	130(27.1)			좋아서	23(10.2)	10(3.9)	33(6.8)	
	주1회	64(28.7)	81(31.6)	145(30.3)			모임	27(12.0)	50(19.5)	77(16.8)	
	월1-2회	51(22.9)	117(45.7)	168(35.1)			기타	14(6.2)	12(4.7)	26(5.4)	
	계	223(100.0)	156(100.0)	479(100.0)			계	225(100.0)	257(100.0)	482(100.0)	
종류	소주	151(68.3)	105(42.3)	256(54.6)	2순위	음주이유	천목도모	12(7.9)	15(8.5)	27(8.2)	$\chi^2 = 10.88$ df = 5
	맥주	33(14.9)	91(36.7)	124(26.4)			스트레스해소	33(21.9)	32(18.1)	65(19.8)	
	레몬소주	3(1.4)	12(4.8)	15(3.2)			좋아서	24(15.9)	11(6.2)	35(10.7)	
	소주+맥주	31(14.0)	39(15.7)	70(14.9)			모임	55(36.4)	79(44.9)	134(40.9)	
	기타	3(1.4)	1(0.4)	4(0.9)			주위권유	18(11.9)	22(12.4)	40(12.2)	
	계	221(100.0)	248(100.0)	469(100.0)			기타	9(6.0)	18(10.2)	27(8.2)	
	계	221(100.0)	248(100.0)	469(100.0)			계	151(100.0)	177(100.0)	328(100.0)	
이유	저렴	108(50.7)	86(36.8)	194(43.4)	3순위	음주이유	스트레스해소	6(4.1)	14(8.3)	20(6.3)	$\chi^2 = 12.70^*$ df = 5
	맛있음	29(13.6)	27(11.5)	56(12.5)			모임	31(20.9)	19(11.3)	99(31.3)	
	그냥	23(10.5)	20(8.5)	43(9.6)			주위권유	32(21.6)	35(20.8)	67(21.2)	
	순함	21(9.9)	42(17.9)	63(14.1)			기분좋아	49(33.1)	50(29.8)	50(15.8)	
	천목도모	19(8.9)	41(17.5)	60(13.4)			기분나빠	16(10.8)	36(21.4)	52(16.5)	
	기타	13(6.1)	18(7.7)	31(6.9)			기타	14(9.5)	14(8.3)	28(8.9)	
	계	213(100.0)	234(100.0)	447(100.0)			계	148(100.0)	168(100.0)	316(100.0)	

1) * p<.05 **p<.01 *** p<.001

술을 마실 때 술자리의 이동은 2차는 남학생이 39.9%, 여자는 55.7%였으며, 3차는 남학생이 48.9%, 여학생은 35.3%였다. 4차 이상 가는 경우는 남학생 5.8%, 여학생 1.2%로 나타나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술자리 이동이 더 많았다. 87.5%의 학생들이 과음경험이 있었으며, 남학생은 91.5%, 여학생은 83.9%인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과음경험이 있었다.

음주를 시작한 나이는 남자는 18세 미만이 32.7%인데 비해 여자는 15.3%로 남자가 여자보다 일찍 음주를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세 이후에 시작하였다는 사람이 남자는 35.9%, 여자는 과반수가 넘는 53.7%로 여자의 경우 대부분이 대학생이 되고 난 후에 음주를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량에서는 남자는 1병 이하가 46.3%인데 비해 여자는 66.4%로 나타나 여자의 경우 1병 이하가 과반수 이상이 주량이 1병 정도임을 알 수 있었다. 음주 빈도는 남자의 경우 주 2-3회가 36.3%로 가장 많았고, 주 1회가 28.7%, 월 1-2회가 22.9%인데 반해 여자의 경우 주 2-3회 한다가 19.1%, 주 1회가 31.6%, 월 1-2회가 45.7%로 나타나 여자는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술을 마시고 남자는 주에 2-3번 정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두진⁷⁵⁾의 연구결과와 비슷하였다.

자주 마시는 술의 종류에서 남자는 과반수가 넘는 68.3%가 소주를 즐겨 마시는 반면 여자는 42.3%이었고, 맥주는 남자가 14.9%, 여자는 36.7%로 나타났고, 레몬소주도 남자는 1.4%인데 비해 여자는 4.8%로 남자는 여자보다 소주를 즐겨 마시고 여자는 남자보다 맥주와 레몬소주를 즐겨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그 술만 마시는 이유는 남자는 값이 싸서가 50.7%인데 여자는 36.8%로 남자가 여자보다 가격에 민감하였다. 이는 아마 술값을 계산하는 사람이 주로 남자이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한다. 술이 순해서 남자가 9.9%인데 비해 여자는 17.9%로 나타났는데 여자는 맥주나 레몬소주를 남자보다 많이 마시는 이유가 술이 순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친목도모를 위해서는 남자가 8.9%인데 비해 여자는 17.5%로 남자보다 여자가 자신의 기호보다는 주위의 대인관계를 위해 모임시에 동료들과 같은 술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음주를 하게 되는 이유는 1순위에서 남자는 술이 좋아서가 10.2%인데 비해

75) 김두진(1995)의 전제논문.

여자는 3.9%였고, 모임이 있을 때 술을 마신다가 남자는 12.0%인데 여자는 19.5%로 나타나 남자는 여자보다 술 자체가 좋아서 술을 마시고 여자는 술 자체가 좋아서라기 보다는 모임등을 통해 술을 마시게 되는 경우가 남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순위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3순위에서는 남자는 모임시에 술을 마신다가 20.9%인데 비해 여자는 11.3%로 나타났고, 기분이 좋아서가 남자는 33.1%, 여자는 29.8%였으며, 기분이 나빠서는 남자가 10.8%인데 비해 여자는 21.4%로 남자는 기분이 좋을 때 술을 마시고 여자는 기분이 나쁠 때 술을 마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가 남자는 4.1%인데 반해 여자는 8.3%로 여자가 남자보다 스트레스해소를 위해 술을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제주도 대학생들의 일반적인 외식행동과 외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이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식습관은 폭식이 36.9%, 결식이 27.2%, 편식이 14.8%, 자극적인 식사가 11.3%이었고, 학생의 외식횟수는 주 1-2회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월외식비는 5-10만원미만이었으며, 1회 외식비용은 천원-오천원이 가장 많았다.

둘째, 아침은 63.6% 학생들이 전혀 외식을 하지 않았으나 점심은 10.5%, 저녁은 1.7%에 불과하였다. 점심·저녁 모두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하여 외식비용이 높았으며 점심외식비용은 인문, 자연계열학생들이 예체능계열보다 높았으며, 저녁외식비용은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높았다.

셋째, 아침은 대부분 끼니해결을 위해서 외식을 하고 있었고 점심은 끼니해결과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외식을 하였으며 저녁은 과반수 이상이 친구를 만나거나 모임 때문에 외식을 하고 있어 저녁외식은 대인관계형성을 위한 장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점심외식동기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아침은 식생활관에 따라 저녁은 주거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취나 하숙하는 학생들은 자가의 경우보다 끼니해결을 위하여 외식하는 비율이 높았고 자가의 학생들은 자취나 하숙하는 학생들보다 친구를 만나기 위해 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넷째, 아침외식시에는 영양 보충과 시간 절약을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었으나 점심외식시에는 영양보충, 친목도모, 맛, 시간절약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고 있었으며, 저녁외식시에는 약 2/3의 학생들이 친목 도모를 위해 외식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맛과 영양 보충을 고려하고 있었다. 아침은 식사の本질적 기능의 성격이 강하고 점심은 본질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저녁은 사회적 성격이 강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점심외식시에는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친

목도모를,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영양보충을 고려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저녁외식시에는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영양보충을,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맛을 즐기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점심외식에서 연령이 많은 대학생들은 친목도모를, 연령이 적은 대학생들은 영양보충이나 맛을 즐기는 경향이 높았다.

다섯째, 기호에 대한 만족도는 성별, 식사시간에 따라, 영양에 대한 만족도는 연령, 학년, 전공, 편식정도에 따라, 간편성에 대한 만족도는 연령에 따라, 시간절약에 대한 만족도는 연령, 학년에 따라, 가격에 대한 만족도는 주거형태에 따라, 위생에 대한 만족도는 전공, 편식정도, 외식횟수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외식형태, 외식횟수에 따라, 분위기에 대한 만족도는 전공에 따라, 양은 연령, 학년, 식사시간, 외식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전체적인 외식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거형태와 식사소비시간 이었다.

여섯째, 아침은 주로 간편성과 시간절약을 기준으로, 점심은 기호·간편성·가격을 기준으로, 그리고 저녁은 기호·주위의 권유·분위기·가격을 기준으로 음식점을 선택하고 있었다. 아침은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점심은 계열에 따라 저녁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점심외식시 예체능계열학생들은 건강상태·영양면을,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은 기호·간편성·시간을 고려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저녁외식시 남학생은 건강상태·가격·양을 여학생은 기호·분위기를 중요시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일곱째, 아침과 점심은 학교식당을, 저녁은 분식집을, 봄·여름·가울에는 분식집을, 겨울에는 갈빗집을, 끼니해결을 위해서는 학교식당을,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분식집을, 모임이 있을 때는 갈빗집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아침만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그 외의 모든 요인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들은 점심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 있어서 여학생들보다 갈빗집을,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분식집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남학생은 중국집을 여학생은 학교식당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친구를 만날 때는 여학생은 햄버거집을, 남학생은 일반한식집을 더 많이 이용하였고, 여학생들은 모임이 있을 경우는 일반한식집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여덟째, 한 번 갔던 음식점에 다시 가는 이유는 맛이 좋아서가 69.8%로 가장

많았고, 다시 가지 않는 이유도 맛이 없어서가 57.0%로 가장 많아 모두 맛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친절면과 가격면울,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맛을 고려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아홉째, 남자는 여자보다 소주를, 여자는 남자보다 맥주를 더 많이 마시고 있으며, 그 이유는 남자는 가격이 저렴해서이고 여자는 순해서였다. 음주를 하게 되는 이유는 주로 친목도모를 위해서 였으며, 여자는 남자보다 모임 때문에, 남자는 여자보다 술이 좋아서 마시는 경우가 더 많았고, 남자는 기분이 좋을 때, 여자는 기분이 나쁠 때 술을 마시는 경우가 더 많았다. 여자는 한 달에 한 두 번, 남자는 일주일에 2-3회 정도 술을 마셨으며, 남자의 주량은 2-3병 정도이고, 여자는 과반수 이상이 1병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대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외식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아침·점심의 경우 과반수의 학생들이 학교식당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학교 식당에 대하여 영양, 위생, 서비스, 가격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학생들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생들은 외식을 할 때 영양을 많이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양교육을 해야할 것이며 대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영양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생들은 간편성·시간절약·가격·기호 등을 많이 고려하여 음식점을 선택하고 있으므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은 대학생의 요구에 맞게 신속, 간편하면서도 가격이 저렴하고 대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음식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영양지식점수와 외식행동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지 못했는데, 제주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양지식점도와 일반식생활행동 및 외식행동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만이 · 조이숙(1992), “식품영양학 전공 여대생과 비전공 여대생의 외식산업식품에 대한 식생활 태도 조사”, 한국식품영양학회지, 5(3).
- 김두진(1994), “부산지역의 외식실태조사”, 한국식품영양학회지, 7(3).
- 김숙희외 2인 (1976), “영양교육”, 동명사.
- 김영재(1998), “소비자 환경 보전 행동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준숙 · 안성순 · 김인숙(1995), “20대의 음주생활에 관한 연구- 청주지역 대학생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4(1).
- 김초영 · 남순란 · 박동경(1990), 한국식품과학지, 5(3).
- 김향희 · 황춘선(1991), “한국절식의 시행실태에 관한 지역별 비교연구”, 한국식문화학회지, 6(2).
- 김화영(1984), “대학생의 영양지식과 식습관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17(3).
- 노정미 · 유영상(1989), “서울지역대학생의 외식실태 및 기호도 조사연구(II)”, 대한가정학회지, 27(4).
- 동아일보(1996), “외식산업 2000년에 30조원에 달할 전망”; 1996. 4. 27일자 재인 용.
- 매일경제신문(1995), 9.20일자.
- 모수미(1986), “외식산업의 발달이 국민영양 및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양학회지, 19(2).
- 모수미 · 김창영 · 윤은영 · 이경신 · 최경숙(1986), 한국식문화 학회지, 1(3).
- 문수재 · 김정연(1992), “도시대학생들의 식품에 대한 가치평가 분석”, 한국식품영양학회지, 7(1).
- 문현경 · 정해량 · 황성희(1992), “성인과 어린이 식품섭취와 영양소 섭취량 분포에 관한 연구”, 한국식품위생학회지, 7(2).

- 박찬옥·박미혜·송미영(1992), “우리나라 기혼여성 및 미혼여성의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비교연구”, 소비자학연구, 3(2), p. 84.
- 백현순(1988), “체중조절 관심도에 따른 섭식태도 및 기호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 내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정희(1996), 가정학 연구방법론, 도서출판 하우.
- 성화선(1999), “제주도 중·고등학생의 용돈관리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 원태연·정성원(1998), 한글SPSS통계조사분석, SPSS아카데미.
- 유정순·장경자·변기원(1994), “대학생의 영양섭취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4).
- 윤혜진·위성언(1994), “대학생의 패스트푸드의 외식행동에 관한 실태조사”, 한국식품영양학회지, 7(4).
- 이기열·이양자·김숙영·박계숙(1980), “대학생의 영양실태조사”, 한국영양학회지, 13(2).
- 이명미(1986), “도시청소년의 식생활행동과 식품에 대한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혜옥(1984), “개인의 가치관과 식생활과의 관계분석”, 이화여대 석사 학위 논문.
- 임희진(1993), “외식산업 정보시스템의 효과적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유경(1988), “대학생의 식습관과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6(3).
- 전미정(1990), 대한가정학회지, 28(2).
- 전혜경(1998), “소비자의 외식서비스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장건(1992), “관광정보시스템”, 일신사, p. 301.
- 중앙일보(1995), 4.27일자 인용.
- 중앙일보(1997), “외식 씹씹이 헤프다”, 1997. 10.1일자.
- 통계청(1993), “1992 도소매업통계조사 보고서”, 통계청.

- 한국경제신문(1996), “외식비 지출증가와 함께 외식업체들의 점포수 크게 늘어”, 1996. 5. 7일자 재인용.
- 한국도시행정연구소편(1993), “1993 전국통계년감”, 신광출판사.
- 한국소비자보호원(1999), “음주형태의 문제와 개선방안”.
- 한국일보(1997), “음식점의 수 7년동안 2배로 증가”, 1997.10.9일자 재인용.
- 함인숙(1984), “주부의 식품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황혜선(1991), “목포지역 대학생의 식생활 행동 및 영양실태조사”, 한국영양학회지, 20(1).
- A report by the American council on Science and Health(1982), “Fast foods” and the Americal consumer. J.Am. Dietet. A. 81 .p 579.
- Otto MW(1992), “Alcohol dependence in panninc disorder patients”, J Psych Res. 26.

<abstract>

A Study on Dining-out Consumption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in Cheju Do

Jeong, Eun-Jeong

Home Economic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Jeong-Sook

This study aimed at investigating the types(kinds) of Dining out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living in Jeju. The data obtained from returned by college student, 533 questionnaires. The result are marked with percentage and significance level is verified by means of Chi-Square(χ^2), t-test, one way ANOVA analysis method.

The results obtained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Major dietary problems of Food habits Students thought were 36.9% over-eating, 27.2% skipping meal, 14.8% unbalanced diet, 11.3% indulging in hot and spicy food, and the frequency of eating out was 1-2 day per week, average eating out costs were payed out 50,000-100,000 won per month, 1,0000-5,000 won per one.

2, In case of breakfast, 63.6% of students did not eat out at all, however, In case of lunch, only 10.5%, In case of dinner, only 1.7% did not. In the dining-out percentage, That of Females were higher than that of males at both lunch and dinner. and that of student studying at the college of humanities, student studying at the college of science were higher than that of student studying at the college of arts in the eat-out percentage in lunch.

※ A thesis submitted to she Committee of s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0.

Finally in the eat-out percentage in dinner, that of high grade was higher than that of low grade.

3. The motivations of eat-out at breakfast were almost a meal, at lunch were a meal and a meeting with friends. at supper were for meeting with friends and for social meeting, therefore, in case of eat-out at supper, many students made it for making with friends.

4. The purposes of eat-out at breakfast were for intake nutrition and for time saving, at lunch, students had various motivations and ate out for intake nutrition and for time saving, for making with relationships, for enjoying delicious taste of foods, and so on. at supper approximately, two-thirds of students ate out for making good terms with friends, others ate out for enjoying delicious taste of foods, for intake nutrition.

5. A feelings of satisfaction of ate out on the food preference were different significantly by a sex, a time of meal, on the nutrition were by an age, a grade, a major, a degree of unbalanced diet, on the convenience were by an age, on the time saving were by an age, a grade, on the price were by a form of living, on the sanitation were by a grade, a degree of unbalanced diet, a frequency of eat out, on the service were by a type of eat out, a frequency of eat out, on the an atmosphere were by a grade, on the amount were by an age, a grade, a time of a meal, a type of eat out and factors affecting a general feeling of satisfaction of ate out were types of living, time of meal.

6. College students chosen restaurant due to convenience, time saving on breakfast, on lunch, food preference, convenience, price, and, on supper, food preference, invitation of others, atmosphere, price.

7. College students used school restaurant on breakfast, on lunch and In case of supper, they ate in Bun Sik, A result of investigation based on a season showed that college students ate in a Bun Sik on spring, summer, fall also, in winter, they had a meal in a Kalbi house. and they ate a meal for meal in a school restaurant and used a chophouse in order to meet with friends, When they had a meeting, they used mainly Kalbi house.

8. The main reason that students went again a restaurant which they had went once was a food of delicious taste, as a result of study, 69.8% of students agreed with

that. Also, the result of study showed that 57.0% of students did not go a restaurant which they had went once because of a food of bad taste. therefore, a factor of quality of food had a important factor for student of choosing a restaurants. Males had a more important considerations than female about services and prices and females had a more important considerations than males about a taste.

9. The male students drunk soju than females because of low price and female had beer than males because of mild taste. The reason that they drunk was mainly for friendly terms with others and In case of female, for meeting, males drunk for only preference for drunk, The frequency of drunk of Male was 2-3 per week, of female was 1-2 per month, and male's drinking capacity was 2-3 bottles, female's drinking capacity was 1 bottle mainly.

This study will be used as the basic material to form right food habit of college students.

부 록

〈부표 1〉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결식정도

빈도 (%)

변수			항상 먹음	가끔안먹음	자주안먹음	항상안먹음	계	비 고
아 침	성 별	남	44 (18.1)	70 (28.8)	92 (37.9)	37 (15.2)	243 (100.0)	$\chi^2 = 2.04$ df = 3
		여	63 (21.7)	70 (24.1)	110 (37.9)	47 (16.2)	290 (100.0)	
	연 령	20세미만	30 (20.4)	39 (26.5)	57 (38.8)	21 (14.3)	147 (100.0)	$\chi^2 = 3.57$ df = 6
		20-22세	53 (20.5)	72 (27.9)	89 (34.5)	44 (17.1)	258 (100.0)	
		22세이상	24 (18.8)	29 (22.7)	56 (43.8)	19 (14.8)	128 (100.0)	
	학 년	1	26 (17.9)	35 (24.1)	60 (42.8)	22 (15.2)	145 (100.0)	$\chi^2 = 10.8$ df = 9
		2	31 (19.6)	50 (31.6)	60 (38.0)	17 (10.8)	158 (100.0)	
		3	30 (22.2)	29 (21.5)	47 (34.7)	29 (21.5)	135 (100.0)	
		4	107 (20.1)	140 (26.3)	33 (37.9)	16 (16.8)	95 (100.0)	
	전 공	인문계열	42 (25.3)	42 (25.3)	54 (32.5)	28 (16.9)	166 (100.0)	$\chi^2 = 10.9$ df = 6
		자연계열	63 (19.4)	85 (26.2)	129 (39.8)	47 (14.5)	324 (100.0)	
		예체능계	2 (4.7)	13 (30.2)	19 (44.2)	9 (20.9)	43 (100.0)	
	식 생 활 관	상	22 (14.5)	41 (23.8)	61 (40.1)	28 (18.4)	152 (100.0)	$\chi^2 = 7.15$ df = 6
		중	48 (20.2)	65 (27.3)	87 (36.6)	38 (16.0)	238 (100.0)	
		하	37 (25.9)	41 (27.0)	54 (37.8)	18 (12.6)	143 (100.0)	
점 심	성 별	남	95 (39.1)	109 (44.9)	30 (12.3)	9 (3.7)	243 (100.0)	$\chi^2 = 9.13^*$ df = 3
		여	111 (38.3)	154 (53.1)	16 (5.5)	9 (3.1)	290 (100.0)	
	연 령	20세미만	47 (32.0)	81 (55.1)	14 (9.5)	5 (3.4)	147 (100.0)	$\chi^2 = 5.82$ df = 6
		20-22세	103 (39.9)	125 (48.4)	23 (8.9)	7 (2.7)	258 (100.0)	
		22세이상	56 (43.8)	57 (44.5)	9 (7.0)	6 (4.7)	128 (100.0)	
	학 년	1	51 (35.2)	77 (53.1)	12 (8.3)	5 (3.4)	145 (100.0)	$\chi^2 = 26.81^{**}$ df = 9
		2	53 (33.5)	78 (49.4)	19 (12.0)	8 (5.1)	158 (100.0)	
		3	45 (33.3)	76 (56.3)	11 (8.1)	3 (2.2)	135 (100.0)	
		4	57 (60.0)	32 (33.7)	4 (4.2)	2 (2.1)	95 (100.0)	
	전 공	인문계열	48 (28.9)	95 (57.2)	15 (9.0)	8 (4.8)	166 (100.0)	$\chi^2 = 25.6^{***}$ df = 6
		자연계열	145 (44.8)	150 (46.3)	21 (6.5)	8 (2.5)	324 (100.0)	
		예체능계	13 (30.2)	18 (41.9)	10 (23.3)	2 (4.7)	43 (100.0)	
	식 생 활 관	상	50 (32.9)	78 (51.3)	20 (13.2)	4 (2.6)	152 (100.0)	$\chi^2 = 12.67^*$ df = 6
		중	88 (37.0)	126 (52.9)	15 (6.3)	9 (3.8)	238 (100.0)	
		하	68 (47.6)	59 (41.3)	11 (7.7)	5 (3.5)	143 (100.0)	
저 녁	성 별	남	137 (56.4)	79 (32.5)	16 (6.6)	11 (4.5)	243 (100.0)	$\chi^2 = 24.3^{***}$ df = 3
		여	111 (38.3)	144 (49.7)	30 (10.3)	5 (1.7)	290 (100.0)	
	연 령	20세미만	81 (56.6)	47 (32.9)	9 (6.3)	6 (4.2)	143 (100.0)	$\chi^2 = 23.75^{***}$ df = 6
		20-22세	107 (45.0)	110 (46.2)	13 (5.5)	8 (3.4)	238 (100.0)	
		22세이상	60 (39.5)	66 (43.4)	24 (15.8)	2 (1.3)	152 (100.0)	
	학 년	1	54 (37.2)	71 (49.0)	18 (12.4)	2 (1.4)	145 (100.0)	$\chi^2 = 21.89^{**}$ df = 9
		2	71 (44.9)	65 (41.1)	13 (8.2)	9 (5.7)	158 (100.0)	
		3	65 (48.1)	59 (43.7)	8 (5.9)	3 (2.2)	135 (100.0)	
		4	58 (61.1)	28 (29.5)	7 (7.4)	2 (2.1)	95 (100.0)	
	전 공	인문계열	73 (44.0)	69 (41.6)	16 (9.6)	8 (4.8)	166 (100.0)	$\chi^2 = 7.73$ df = 6
		자연계열	155 (47.8)	136 (42.0)	28 (8.6)	5 (1.5)	324 (100.0)	
		예체능계	20 (46.5)	18 (41.9)	2 (4.7)	3 (7.0)	43 (100.0)	
	식 생 활 관	상	60 (39.5)	66 (43.4)	24 (15.8)	2 (1.3)	152 (100.0)	$\chi^2 = 23.75^{***}$ df = 6
		중	107 (45.0)	110 (46.2)	13 (5.5)	8 (3.4)	238 (100.0)	
		하	81 (56.6)	47 (32.9)	9 (6.3)	6 (4.2)	143 (100.0)	

1)* p<.05 ** p<.01 *** p<.001

〈부표 2〉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외식의 동기 2순위 빈도 (%)

외식동기		끼니해결	친구 만남	친지방문	모임시	가족외식	기타	계	비 고
아	성 별	남	16(14.2)	58 (51.3)	9 (8.0)	12 (10.6)		18(15.9)	$r^2 = 3.08$ df = 4
		여	209(17.5)	52 (45.6)	8 (7.0)	8 (7.0)		26(22.8)	
	연 령	20세미만	15(19.7)	38 (50.0)	6 (7.9)	5 (6.6)		12(15.8)	$r^2 = 5.31$ df = 8
		20-22세	14(12.8)	54 (49.5)	6 (5.5)	12 (11.0)		23(21.1)	
		22세이상	7 (16.7)	18 (42.9)	5 (11.9)	3 (7.1)		9 (21.4)	
	학 년	1	13(16.7)	37 (47.4)	5 (6.4)	8 (10.3)		15(19.2)	$r^2 = 13.29$ df = 12
		2	8 (11.8)	36 (52.9)	6 (8.8)	8 (11.8)		10(14.7)	
		3	7 (14.3)	25 (51.0)	6 (12.2)	2 (4.1)		9 (18.4)	
		4	8 (25.0)	12 (37.5)	·	2 (6.3)		10(31.3)	
	전 공	인문	14(18.7)	36 (48.0)	5 (6.7)	7 (9.3)		13(17.3)	$r^2 = 6.69$ df = 6
자연 예체능		22(16.2)	64 (47.1)	12(8.8)	12 (8.8)		26(19.1)		
점	식 생 활 관		·	·	·	1 (6.3)	5 (31.3)	16 (100.0)	$r^2 = 10.24$ df = 8
		상 중 하	14(19.2)	30 (41.1)	7 (9.6)	9 (12.3)		13(17.8)	
		14(14.6)	50 (52.1)	7 (7.3)	10 (10.4)		15(15.6)	73 (100.0)	$r^2 = 5.81$ df = 6
		8 (13.8)	30 (51.7)	3 (5.2)	1 (1.7)		16(27.6)	58 (100.0)	
			36(15.9)	110(48.5)	17(7.5)	20 (8.8)		44(19.4)	227(100.0)
심	성 별	남	25(14.3)	114(65.1)	9 (5.1)			27(15.4)	$r^2 = 1.15$ df = 3
		여	359(14.3)	169(69.0)	9 (3.7)			32(13.1)	
	연 령	20세미만	28(22.0)	77 (60.6)	10(7.9)			12(9.4)	$r^2 = 20.71^{**}$ df = 6
		20-22세	23(11.2)	150(72.8)	4 (1.9)			29(14.1)	
		22세이상	9 (10.3)	56 (64.4)	4 (4.6)			18(20.7)	
	학 년	1	22(18.5)	75 (63.0)	9 (7.6)			13(10.9)	$r^2 = 18.06^*$ df = 9
		2	21(17.9)	69 (59.0)	4 (3.4)			23(19.7)	
		3	10(8.8)	88 (77.2)	2 (1.8)			14(12.3)	
		4	7 (10.0)	51 (72.9)	3 (4.3)			9 (12.9)	
	전 공	인문	23(16.7)	87 (63.0)	1 (0.7)			27(19.6)	$r^2 = 13.30^*$ df = 6
자연 예체능		31(12.3)	177(70.2)	15(6.0)			29(11.5)		
저	식 생 활 관		6 (20.0)	19 (63.3)	2 (6.7)			3 (10.0)	$r^2 = 5.81$ df = 6
		상 중 하	21(16.4)	79 (61.7)	9 (7.0)			19(14.8)	
		25(13.9)	128(71.1)	5 (2.8)			22(12.2)	180(100.0)	$r^2 = 12.80$ df = 8
		14(12.5)	76 (67.9)	4 (3.6)			18(16.1)	112(100.0)	
			60(14.3)	283(67.4)	18(4.3)			59(14.0)	420(100.0)
년	성 별	남	33(15.8)	61 (29.2)		68 (32.5)	29(13.9)	18(8.6)	$r^2 = 2.10$ df = 4
		여	34(12.7)	82 (30.6)		89 (33.2)	45(16.8)	18(6.7)	
	연 령	20세미만	19(13.9)	46 (33.6)		32 (23.4)	28(20.4)	12(8.8)	$r^2 = 12.52$ df = 8
		20-22세	29(12.4)	69 (29.6)		84 (36.1)	35(15.0)	16(6.9)	
		22세이상	19(17.8)	28 (26.2)		41 (38.3)	11(10.3)	8 (7.5)	
	학 년	1	17(13.1)	42 (32.3)		30 (23.1)	28(21.5)	13(10.0)	$r^2 = 25.30^*$ df = 12
		2	20(14.3)	41 (29.3)		41 (29.3)	24(17.1)	14(10.0)	
		3	16(12.9)	34 (27.4)		52 (41.9)	18(14.5)	4 (3.2)	
		4	14(16.9)	26 (31.3)		34 (41.0)	4 (4.8)	5 (6.0)	
	전 공	인문	23(15.1)	44 (28.9)		47 (30.9)	28(18.4)	10(6.6)	$r^2 = 8.13$ df = 8
자연 예체능		39(13.5)	84 (29.1)		102(35.3)	43(14.9)	21(7.3)		
년	식 생 활 관		5 (13.9)	15 (41.7)		8 (22.2)	3 (8.3)	5 (13.9)	$r^2 = 12.80$ df = 8
		상 중 하	26(19.1)			38 (27.9)	26(19.1)	13(9.6)	
		25(11.8)			80 (37.9)	29(13.7)	15(7.1)	211(100.0)	$r^2 = 12.80$ df = 8
		16(12.3)			39 (30.0)	19(14.6)	8 (6.2)	130(100.0)	
			67(14.0)	143(30.0)		157(32.9)	74(15.5)	36(7.5)	477(100.0)

1) * p<.05 **p<.01 *** p<.001 2) 빈공간은 해당사항 없음.

〈부표 3〉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외식의 목적 2순위 빈도 (%)

외식목적			친목도로	맛 즐김	시간절약	영양보충	기타	계	비 고
아침	성별	남	13 (11.8)	26 (23.6)	26 (23.6)	31 (28.2)	14 (12.7)	110 (100.0)	$\chi^2 = 1.84$ df = 4
		여	16 (15.1)	21 (19.8)	31 (29.2)	27 (25.5)	11 (10.4)	106 (100.0)	
	연령	20세미만	10 (13.5)	19 (25.7)	16 (21.6)	19 (25.7)	10 (13.5)	74 (100.0)	$\chi^2 = 5.36$ df = 8
		20-22세	11 (11.0)	19 (19.0)	29 (29.0)	31 (31.0)	10 (10.0)	100 (100.0)	
		22세이상	8 (19.0)	9 (21.4)	12 (28.6)	8 (19.0)	5 (11.9)	42 (100.0)	
	학년	1	8 (10.3)	19 (24.4)	21 (26.9)	21 (26.9)	9 (11.5)	78 (100.0)	$\chi^2 = 5.65$ df = 12
		2	9 (15.0)	12 (20.0)	15 (25.0)	17 (28.3)	7 (11.7)	60 (100.0)	
		3	7 (15.6)	7 (15.6)	12 (26.7)	15 (33.3)	4 (8.9)	45 (100.0)	
		4	5 (15.2)	9 (27.3)	9 (27.3)	5 (15.2)	5 (15.2)	33 (100.0)	
	전공	인문	8 (11.4)	17 (24.3)	17 (24.3)	16 (22.9)	12 (17.1)	70 (100.0)	$\chi^2 = 5.31$ df = 8
		자연	18 (13.5)	27 (20.3)	37 (27.8)	39 (29.3)	12 (9.0)	133 (100.0)	
		예체능	3 (23.1)	3 (23.1)	3 (23.1)	3 (23.1)	1 (7.7)	13 (100.0)	
식생활관	상	8 (12.3)	15 (23.1)	20 (30.8)	13 (20.0)	9 (13.6)	65 (100.0)	$\chi^2 = 5.57$ df = 8	
	중	1 (10.8)	22 (21.5)	25 (26.9)	27 (29.0)	11 (11.8)	93 (100.0)		
	하	11 (19.0)	12 (20.7)	12 (20.7)	18 (31.0)	5 (8.6)	58 (100.0)		
			29 (13.4)	47 (21.8)	57 (26.4)	58 (26.9)	25 (11.6)	216 (100.0)	
점심	성별	남	33 (19.3)	46 (26.9)	43 (25.1)	37 (21.6)	12 (7.0)	171 (100.0)	$\chi^2 = 10.32^*$ df = 4
		여	62 (29.8)	66 (31.7)	42 (20.2)	29 (13.9)	9 (4.3)	208 (100.0)	
	연령	20세미만	28 (23.9)	39 (33.3)	20 (17.1)	23 (19.7)	7 (6.0)	117 (100.0)	$\chi^2 = 8.08$ df = 8
		20-22세	51 (27.9)	46 (25.1)	49 (26.8)	28 (15.3)	9 (4.9)	183 (100.0)	
		22세이상	16 (20.3)	27 (34.2)	16 (20.3)	15 (19.0)	5 (6.3)	79 (100.0)	
	학년	1	29 (25.4)	38 (33.3)	19 (16.7)	22 (19.3)	6 (5.3)	114 (100.0)	$\chi^2 = 13.56$ df = 12
		2	21 (20.8)	25 (24.8)	30 (29.7)	20 (19.8)	5 (5.0)	101 (100.0)	
		3	31 (31.0)	25 (25.0)	23 (23.0)	13 (13.0)	8 (8.0)	100 (100.0)	
		4	14 (21.9)	24 (37.5)	13 (20.3)	11 (17.2)	2 (3.1)	64 (100.0)	
	전공	인문	33 (28.0)	36 (30.5)	25 (21.2)	20 (16.9)	4 (3.4)	118 (100.0)	$\chi^2 = 7.66$ df = 8
		자연	59 (25.5)	65 (28.1)	50 (21.6)	41 (17.7)	16 (6.9)	231 (100.0)	
		예체능	3 (10.0)	11 (36.7)	10 (33.3)	5 (16.7)	1 (3.3)	30 (100.0)	
식생활관	상	24 (20.2)	40 (33.6)	29 (24.4)	22 (18.5)	4 (3.4)	119 (100.0)	$\chi^2 = 6.36$ df = 8	
	중	42 (26.3)	41 (25.6)	36 (22.5)	30 (18.8)	11 (6.9)	160 (100.0)		
	하	29 (29.0)	31 (31.0)	20 (20.0)	14 (14.0)	6 (6.0)	100 (100.0)		
			95 (25.1)	112(29.6)	85 (22.4)	66 (7.4)	21 (5.5)	379 (100.0)	
저녁	성별	남	39 (19.9)	76 (38.8)	15 (7.7)	51 (26.0)	15 (7.7)	196 (100.0)	$\chi^2 = 15.61^{**}$ df = 4
		여	42 (17.6)	13 (54.6)	15 (6.3)	46 (19.3)	5 (2.1)	238 (100.0)	
	연령	20세미만	29 (22.7)	58 (45.3)	8 (6.3)	25 (19.5)	8 (6.3)	128 (100.0)	$\chi^2 = 11.66$ df = 8
		20-22세	38 (18.1)	110(52.4)	12 (5.7)	43 (20.5)	7 (3.3)	210 (100.0)	
		22세이상	14 (14.6)	38 (39.6)	10 (10.4)	29 (30.2)	5 (5.2)	96 (100.0)	
	학년	1	30 (24.0)	55 (44.0)	5 (4.0)	29 (23.2)	6 (4.8)	125 (100.0)	$\chi^2 = 9.57$ df = 12
		2	23 (19.3)	56 (47.1)	11 (9.2)	24 (20.4)	5 (4.2)	119 (100.0)	
		3	16 (13.8)	62 (53.4)	9 (7.8)	23 (19.8)	6 (5.2)	116 (100.0)	
		4	12 (16.2)	33 (44.6)	5 (6.8)	21 (28.4)	3 (4.1)	74 (100.0)	
	전공	인문	18 (13.3)	83 (61.5)	5 (3.7)	24 (17.8)	5 (3.7)	135 (100.0)	$\chi^2 = 20.35^{**}$ df = 8
		자연	59 (22.3)	105(39.6)	21 (7.9)	66 (24.9)	14 (5.3)	265 (100.0)	
		예체능	4 (11.8)	18 (52.9)	4 (11.8)	7 (20.6)	1 (2.9)	34 (100.0)	
식생활관	상	22 (17.2)	59 (46.1)	13 (10.2)	25 (19.5)	9 (7.0)	128 (100.0)	$\chi^2 = 8.28$ df = 8	
	중	35 (18.6)	95 (50.5)	9 (4.8)	41 (21.8)	8 (4.3)	188 (100.0)		
	하	24 (20.3)	52 (44.1)	8 (6.8)	31 (26.3)	3 (2.5)	118 (100.0)		
			81 (18.7)	206(47.5)	30 (6.9)	97 (22.4)	20 (4.6)	434 (100.0)	

1) * p<.05 **p<.01 *** p<.001

<부표 4> 계절에 따라 자주 가는 음식점 2순위 빈도 (%)

변수	스낵	분식	중국집	일반 한식	차킨집	갈빗집	일식	횃집	경양식	학교 식당	햄버 거집	피자집	기타	계	
봄	성남	13(6.5)	53(26.6)	25(12.6)	22(11.1)	13(6.5)	22(11.1)	9(4.5)			10(5.0)	10(5.0)	5 (2.5)	17(8.5)	199(100.0)
	별여	31(12.9)	75(31.1)	16(6.6)	10(4.1)	17(7.1)	14(5.8)	6(2.5)			19(7.9)	24(10.0)	15(6.2)	14(5.8)	241(100.0)
	$\chi^2 = 30.65^{***}$ df = 10														
	학1	17(13.8)	41(33.3)	9 (7.3)	7 (5.7)	4 (3.3)	9 (7.3)	5(4.1)			4 (3.3)	10(8.1)	3 (2.4)	14(11.4)	123(100.0)
	2	7 (5.7)	34(27.9)	16(13.1)	9 (7.4)	8 (6.6)	6 (4.9)	5(4.1)			11(9.0)	6 (4.9)	11(9.0)	9 (7.4)	122(100.0)
	3	12(10.1)	34(28.6)	7 (5.9)	6 (5.0)	14(11.8)	11(9.2)	3(2.5)			9 (7.6)	15(12.6)	4 (3.4)	4 (3.4)	119(100.0)
	4	8 (10.5)	19(25.0)	9 (11.8)	10(13.2)	4 (5.3)	10(13.2)	2(2.6)			5 (6.6)	3 (3.9)	2 (2.6)	4 (5.3)	76 (100.0)
	$\chi^2 = 18.53$ df = 24														
	연20세미만	15(12.0)	44(35.2)	10(8.0)	9 (7.2)	4 (3.2)	7 (5.6)	4(3.2)			5 (4.0)	11(8.8)	4 (3.2)	12(9.6)	125(100.0)
	20-22세	22(10.3)	58(27.2)	18(8.5)	10(4.7)	19(8.9)	12(5.6)	7(3.3)			22(10.3)	21(9.9)	13(6.1)	11(5.2)	213(100.0)
	22세이상	7 (6.9)	26(25.5)	13(12.7)	13(12.7)	7 (6.9)	17(16.7)	4(3.9)			2 (2.0)	2 (2.0)	3 (2.9)	8 (7.8)	102(100.0)
여름	$\chi^2 = 46.71^{***}$ df = 20														
	성남	16(7.9)	41(20.20)	22(10.8)	13(6.4)	10(4.9)	21(10.3)	19(9.4)	19(9.4)	7 (3.4)	6 (3.0)	9 (4.4)	9 (4.4)	14(6.9)	203(100.0)
	별여	15(6.0)	56(22.3)	7 (2.8)	21(8.4)	15(6.0)	10(4.0)	34(13.5)	34(13.5)	10(4.0)	16(6.4)	29(11.6)	16(6.4)	7 (2.8)	251(100.0)
	$\chi^2 = 36.40^{***}$ df = 12														
	연20세미만	11(8.7)	33(26.0)	7 (5.5)	10(7.9)	8 (6.3)	6 (4.7)	17(13.4)	17(13.4)	4(3.1)	8 (6.3)	5 (3.9)	7 (5.5)	7 (5.5)	127(100.0)
	20-22세	14(6.3)	44(19.6)	11(4.9)	19(8.5)	14(6.3)	11(4.9)	21(9.4)	21(9.4)	9(4.0)	12(5.4)	31(13.8)	16(7.1)	6 (2.7)	224(100.0)
	22세이상	6 (5.8)	20(19.4)	11(10.7)	5 (4.9)	3 (2.9)	14(13.6)	15(14.6)	15(14.6)	4(3.9)	2 (1.9)	2 (1.9)	2 (1.9)	8 (7.8)	103(100.0)
	$\chi^2 = 51.65^{***}$ df = 24														
	주자가	19(6.6)	63(21.9)	19(6.6)	15(5.2)	21(7.3)	21(7.3)	24(8.3)	33(11.5)	12(4.2)	13(4.5)	23(8.0)	16(5.6)	9 (3.1)	288(100.0)
	차취	8 (7.1)	22(19.5)	5 (4.4)	18(15.9)	2 (1.8)	4 (3.5)	3 (2.7)	14(12.4)	2 (1.8)	8 (7.1)	13(11.5)	6 (5.3)	8 (7.1)	113(100.0)
	하숙	4 (7.5)	12(22.6)	5 (9.4)	1 (1.9)	2 (3.8)	6 (11.3)	4 (7.5)	6 (11.3)	3 (5.7)	1 (1.9)	2 (3.8)	3 (5.7)	4 (7.5)	53 (100.0)
가을	$\chi^2 = 39.59^*$ df = 24														
	성남	13(6.4)	40(19.7)	14(6.9)	18(8.9)	10(4.9)	22(10.8)	17(8.4)		10(4.9)	4 (2.0)	12(5.9)	12(5.9)	31(15.3)	203(100.0)
	별여	12(4.9)	68(27.6)	13(5.3)	15(6.1)	19(7.7)	18(7.3)	10(4.1)		11(4.5)	15(6.1)	27(11.0)	16(6.5)	22(8.9)	246(100.0)
	$\chi^2 = 23.00^{**}$ df = 11														
	학1	13(10.4)	31(24.8)	4 (3.2)	7 (5.6)	9 (7.2)	9 (7.2)	9(7.2)		2 (1.6)	2(1.6)	16(12.8)	7 (5.6)	16(12.8)	125(100.0)
	2	5 (4.0)	32(25.4)	9 (7.1)	11(8.7)	3 (2.4)	7 (5.6)	7(5.6)		10(7.9)	8(6.3)	7 (5.6)	13(10.3)	14(11.1)	126(100.0)
	3	4 (3.3)	31(25.6)	10(8.3)	4 (13.2)	12(9.9)	16(13.2)	6(5.0)		5 (4.1)	6(5.0)	10(8.3)	7 (5.8)	10(8.3)	121(100.0)
	4	3 (3.9)	14(18.2)	4 (5.2)	11(14.3)	5 (6.5)	8 (10.4)	5(6.5)		4 (5.2)	3(3.9)	6 (7.8)	1 (1.3)	13(16.9)	77 (100.0)
	$\chi^2 = 53.81^{**}$ df = 33														
	연20세미만	8 (6.3)	34(26.6)	5 (3.9)	9 (7.0)	9 (7.4)	7 (5.5)	7 (5.5)		4 (3.1)	4 (3.1)	18(14.1)	9 (7.0)	14(10.9)	128(100.0)
	20-22세	11(5.1)	58(26.7)	15(6.9)	13(6.0)	16(6.2)	17(7.8)	9 (4.1)		15(6.9)	13(6.0)	18(8.3)	16(7.4)	18(8.3)	217(100.0)
22세이상	6 (5.8)	16(15.4)	7 (6.7)	11(10.6)	4 (5.8)	16(15.4)	11(10.6)		2 (1.9)	2 (1.9)	3 (2.9)	3 (2.9)	21(20.2)	104(100.0)	
$\chi^2 = 47.00^{***}$ df = 22															

1) * p<.05 **p<.01 *** p<.001

2) 유의성이 없는 것은 표에서 제외하였고 빈공간은 해당사항 없음.

〈부표 5〉 천지방문시 자주 가는 음식점

빈도 (%)

변 수		중국집	일반 한식	갈빗집	일식	한식 뷔페	경양식	횃집	기타	계	비 고
성 별	남	10(4.6)	46(21.2)	90 (41.5)	14(6.5)	10(4.6)	14(6.5)	16(7.4)	17(7.8)	217(100.0)	$\chi^2 = 18.50^{**}$ df = 7
	여	8 (3.1)	41(15.8)	156(60.2)	1 (5.4)	10(3.9)	8 (3.1)	11(4.2)	11(4.2)	259(100.0)	
학 년	1	5 (3.8)	31(23.7)	69 (52.7)	10(7.6)	4 (3.1)	·	5(3.8)	7 (5.3)	131(100.0)	$\chi^2 = 34.49^*$ df = 21
	2	5 (3.6)	22(16.1)	69 (50.4)	10(7.3)	8 (5.8)	8 (5.8)	4(2.9)	11(8.0)	137(100.0)	
	3	2 (1.6)	20(16.4)	68 (55.7)	6 (4.9)	2 (1.6)	7 (5.7)	9(7.4)	8 (6.6)	122(100.0)	
	4	6 (7.0)	14(16.3)	40 (46.5)	2 (2.3)	6 (7.0)	7 (8.1)	9(10.5)	2 (2.3)	86 (100.0)	
연 령	20세미만	2 (1.5)	29(22.1)	77 (58.8)	7 (5.3)	4 (3.1)	1 (0.8)	4 (3.1)	7 (5.3)	131(100.0)	$\chi^2 = 25.42^*$ df = 14
	20-22세	10(4.3)	35(15.0)	124(53.0)	15(6.4)	7 (3.0)	14(6.0)	13(5.6)	16(6.8)	234(100.0)	
	22세이상	6 (5.4)	23(20.7)	45 (40.5)	6 (5.4)	9 (8.1)	7 (6.3)	10(9.0)	5 (4.5)	111(100.0)	
계 열	인문	6 (4.3)	23(16.5)	78 (56.1)	9 (6.5)	6 (4.3)	4 (2.9)	4 (2.9)	9 (6.5)	139(100.0)	$\chi^2 = 19.06$ df = 14
	자연	9 (3.0)	55(18.3)	159(53.0)	15(5.0)	11(3.7)	16(5.3)	20(6.7)	15(5.0)	300(100.0)	
	예체능	3 (8.1)	9 (24.3)	9 (24.3)	4 (10.8)	3 (8.1)	2 (5.4)	3 (8.1)	4 (10.8)	37 (100.0)	
주거 형태	자가	11(3.7)	59(19.6)	152(50.5)	18(6.0)	13(4.3)	10(3.3)	19(6.3)	19(6.3)	301(100.0)	$\chi^2 = 7.57$ df = 14
	자취	5 (4.1)	22(18.2)	63 (52.1)	7 (5.8)	5 (4.1)	7 (5.8)	5 (4.1)	7 (5.8)	121(100.0)	
	하숙	2 (3.7)	6 (11.1)	31 (57.4)	3 (5.6)	2 (3.7)	5 (9.3)	3 (5.6)	2 (3.7)	54 (100.0)	
식생활 관	상	8 (5.8)	30(21.7)	66 (47.8)	6 (4.3)	8 (5.8)	8 (5.8)	7 (5.1)	5 (3.6)	138(100.0)	$\chi^2 = 14.77$ df = 14
	중	6 (2.9)	38(18.3)	114(54.8)	14(6.7)	5 (2.4)	5 (2.4)	13(6.3)	13(6.3)	208(100.0)	
	하	4 (3.1)	19(14.6)	66 (50.8)	8 (6.2)	7 (5.4)	9 (6.9)	7 (5.4)	10(7.7)	130(100.0)	
계		18(3.8)	87(18.8)	246(51.7)	24(4.7)	20(4.4)	22(4.6)	21(4.1)	18(3.8)	476(100.0)	

1) * p<.05 **p<.01 *** p<.001

〈부표 6〉 가족외식시 자주 가는 음식점

빈도 (%)

변 수		중국집	일반 한식	갈빗집	일식	경양식	횃집	기타	계	비 고
성 별	남 여	8 (3.5)	36(15.6)	119(51.5)	13(5.6)	11(4.8)	16(6.9)	28(12.1)	231(100.0)	$\chi^2 = 26.98^{***}$ df = 6
		8 (2.9)	36(12.9)	192(69.1)	11(4.0)	15(5.4)	5 (1.8)	11(4.0)	278(100.0)	
학 년	1	5 (3.5)	21(14.9)	85 (60.3)	5 (3.5)	9 (6.4)	3 (2.1)	13(9.2)	141(100.0)	$\chi^2 = 16.14$ df = 18
	2	7 (4.8)	18(12.3)	82 (56.2)	10(6.8)	7 (4.8)	8 (5.5)	14(9.6)	146(100.0)	
	3	1 (0.8)	17(13.0)	86 (65.6)	6 (4.6)	8 (6.1)	7 (5.3)	6 (4.6)	131(100.0)	
	4	3 (3.3)	16(17.6)	58 (63.7)	3 (3.3)	2 (2.2)	3 (3.3)	6 (6.6)	91 (100.0)	
연 령	20세미만	3 (2.1)	20(14.3)	87 (62.1)	6 (4.3)	9 (6.4)	4 (2.9)	11(7.9)	140(100.0)	$\chi^2 = 10.71$ df = 12
	20-22세	10(4.0)	32(12.9)	158(63.5)	12(4.8)	12(4.8)	7 (2.8)	18(7.2)	249(100.0)	
	22세이상	3 (2.5)	20(16.7)	66 (55.0)	6 (5.0)	5 (4.2)	10(8.3)	10(8.3)	120(100.0)	
계 열	인문	7 (4.6)	20(13.1)	98 (64.1)	7 (4.6)	6 (3.9)	5 (3.3)	10(6.5)	153(100.0)	$\chi^2 = 22.62^*$ df = 12
	자연	8 (2.5)	47(15.0)	195(62.1)	10(3.2)	17(5.4)	14(4.5)	23(7.3)	314(100.0)	
	예체능	1 (2.4)	5 (11.9)	18 (42.9)	7 (16.7)	3 (7.1)	2 (4.8)	6 (14.3)	42 (100.0)	
주거 형태	자가	9 (2.8)	40(12.5)	205(64.3)	15(4.7)	18(5.6)	12(3.8)	20(6.3)	319(100.0)	$\chi^2 = 10.83$ df = 12
	자취	3 (2.3)	20(15.4)	74 (56.9)	7 (5.4)	7 (5.4)	6 (4.6)	13(10.0)	130(100.0)	
	하숙	4 (6.7)	12(20.0)	32 (53.3)	2 (3.3)	1 (1.7)	3 (5.0)	6 (10.0)	60 (100.0)	
식생활 관	상	10(7.0)	21(14.7)	85 (59.4)	6 (4.2)	9 (6.3)	4 (2.8)	8 (5.6)	143(100.0)	$\chi^2 = 16.80$ df = 12
	중	4 (1.7)	36(15.7)	144(62.9)	11(4.8)	9 (3.9)	9 (3.9)	16(7.0)	229(100.0)	
	하	2 (1.5)	15(10.9)	82 (59.9)	7 (5.1)	8 (5.8)	8 (5.8)	15(10.9)	137(100.0)	
계		16(3.1)	72(14.1)	311(61.1)	24(4.7)	26(5.1)	21(4.1)	39(7.7)	509(100.0)	

1) * p<.05 **p<.01 *** p<.001

〈부표 7〉 성별에 따른 식생활 관련 행동

빈도(%)

변수		아주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비 고
음식은 잘하는 집을 찾아다니며 먹는다	남	48 (19.8)	131(53.9)	50 (20.6)	10(4.1)	4 (1.6)	243(100.0)	$\chi^2 = 2.84$ df = 4
	여	62 (21.4)	163(56.2)	46 (15.9)	16(5.5)	3 (1.0)	290(100.0)	
	계	110(20.6)	294(55.2)	96 (18.0)	26(4.9)	7 (1.3)	533(100.0)	
음식은 영양보다 맛이 중요하다	남	43 (17.7)	111(45.7)	77 (31.7)	6 (2.5)	6 (2.5)	243(100.0)	$\chi^2 = 9.17$ df = 4
	여	63 (21.7)	120(41.4)	98 (33.8)	9 (3.1)	· ·	290(100.0)	
	계	106(19.9)	231(43.3)	175(32.8)	15(2.8)	6 (1.1)	533(100.0)	
맛있는 것 앞에서는 다이어트가 불필요하다	남	73 (30.0)	77 (31.7)	67 (27.6)	15(6.2)	11(4.5)	243(100.0)	$\chi^2 = 8.61$ df = 4
	여	74 (25.5)	108(37.2)	84 (29.0)	21(7.2)	3 (1.0)	290(100.0)	
	계	147(27.6)	185(34.7)	151(28.3)	36(6.8)	14(2.6)	533(100.0)	
먹는 것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	남	41 (16.9)	69 (28.4)	94 (38.7)	27(11.1)	12(4.9)	243(100.0)	$\chi^2 = 11.26^*$ df = 4
	여	29 (10.0)	100(34.5)	117(40.3)	39(13.4)	5 (1.7)	290(100.0)	
	계	70 (13.1)	169(31.7)	211(39.6)	66(12.4)	17(3.2)	533(100.0)	
먹는 것은 인생의 낙이다	남	33 (13.6)	40 (16.5)	106(43.6)	41(16.9)	23(9.5)	243(100.0)	$\chi^2 = 8.19$ df = 4
	여	45 (15.5)	69 (23.8)	100(34.5)	56(19.3)	20(6.9)	290(100.0)	
	계	78 (14.6)	109(20.5)	206(38.6)	97(18.2)	43(8.1)	533(100.0)	
밥을 먹어야 제대로 식사를 한 느낌이다	남	78 (32.1)	85 (35.0)	51 (21.0)	20(8.2)	9 (3.7)	243(100.0)	$\chi^2 = 5.0$ df = 4
	여	81 (27.9)	97 (33.4)	62 (21.4)	41(14.1)	9 (3.1)	290(100.0)	
	계	159(29.8)	182(34.1)	113(21.2)	61(11.4)	18(3.4)	533(100.0)	
국이나 찌개 중 국물이 있어야 밥을 잘 먹는다	남	57 (23.5)	75 (30.9)	69 (28.4)	34(14.0)	8 (3.3)	243(100.0)	$\chi^2 = 8.10$ df = 4
	여	78 (26.9)	67 (23.1)	77 (26.6)	47(16.2)	21(7.2)	290(100.0)	
	계	135(25.3)	142(26.6)	146(27.4)	81(15.2)	29(5.4)	533(100.0)	
대개의 경우 저녁은 집에서 먹는다	남	30 (12.3)	49 (20.2)	90 (37.0)	55 (22.6)	19(7.8)	243(100.0)	$\chi^2 = 8.68$ df = 4
	여	32 (11.0)	52 (17.9)	93 (32.1)	98 (33.8)	15(5.2)	290(100.0)	
	계	62 (11.6)	101(18.9)	183(34.3)	153(28.7)	34(6.4)	533(100.0)	
서양음식보다 전통음식을 선호한다	남	65 (26.7)	63 (25.9)	89 (36.6)	24(9.9)	2 (0.8)	243(100.0)	$\chi^2 = 8.70$ df = 4
	여	54 (18.6)	81 (27.9)	104(35.9)	45(15.5)	6 (2.1)	290(100.0)	
	계	119(22.3)	144(27.0)	193(36.2)	69(12.9)	8 (1.5)	533(100.0)	
고기를 주로 하는 식사를 한다	남	32 (13.2)	73 (30.0)	105(43.2)	27(11.1)	6 (2.5)	243(100.0)	$\chi^2 = 28.34^{***}$ df = 4
	여	18 (6.2)	54 (18.6)	135(46.6)	71(24.5)	12(4.1)	290(100.0)	
	계	50 (9.4)	127(23.8)	240(45.0)	98(18.4)	18(3.4)	533(100.0)	
채식을 주로 하는 식사를 한다	남	7 (2.9)	32 (13.2)	133(54.7)	56 (23.0)	15(6.2)	243(100.0)	$\chi^2 = 2.26$ df = 4
	여	11 (3.8)	48 (16.6)	156(53.8)	56 (19.3)	19(6.6)	290(100.0)	
	계	18 (3.4)	80 (15.0)	289(54.2)	112(21.0)	34(6.4)	533(100.0)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는 편이다	남	10 (4.1)	37 (15.2)	116(47.7)	69 (28.4)	11(4.5)	243(100.0)	$\chi^2 = 14.08^{**}$ df = 4
	여	5 (1.7)	20 (6.9)	144(49.7)	104(35.9)	17(5.9)	290(100.0)	
	계	15 (2.8)	57 (10.7)	260(48.8)	173(32.5)	28(5.3)	533(100.0)	
전문적인 영양지식이 풍부하다고 생각한다	남	13 (5.3)	27 (11.1)	97 (39.9)	70 (28.8)	36(14.8)	243(100.0)	$\chi^2 = 8.53$ df = 4
	여	7 (2.4)	29 (10.0)	112(38.6)	111(38.3)	31(10.7)	290(100.0)	
	계	20 (3.8)	56 (10.5)	209(39.2)	181(34.0)	67(12.6)	533(100.0)	
좋은 식습관형성을 위해 영양교육이 필요하다	남	49 (20.0)	84 (34.6)	81 (33.3)	22 (9.1)	7 (2.9)	243(100.0)	$\chi^2 = 3.25$ df = 4
	여	56 (19.3)	102(35.2)	109(37.6)	19 (6.6)	4 (1.4)	290(100.0)	
	계	105(19.7)	186(34.9)	190(35.6)	41 (7.7)	11(2.1)	533(100.0)	

1) * $P < .05$ ** $P < .01$ *** $P < .001$

〈부표 8〉 성별에 따른 외식만족도

빈도(%)

변수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아주 불만족	계	비 고
기 호	남	5 (2.1)	6 (2.5)	102(42.0)	94 (38.7)	36(14.8)	243(100.0)	$\chi^2 = 12.70^*$ df = 4
	여	1 (0.3)	6 (2.1)	89 (30.7)	133(45.9)	61(21.0)	290(100.0)	
	계	6 (1.1)	12 (2.3)	191(35.8)	227(42.6)	97(18.2)	533(100.0)	
영 양	남	1 (0.4)	23 (9.5)	106(43.6)	89 (36.6)	24(9.9)	243(100.0)	$\chi^2 = 12.65^*$ df = 4
	여	5 (1.7)	18 (6.2)	165(56.9)	81 (27.9)	21(7.2)	290(100.0)	
	계	6 (1.1)	41 (7.7)	271(50.8)	170(31.9)	45(8.4)	533(100.0)	
간 편 성	남	3 (1.2)	19 (7.8)	116(47.7)	67 (27.6)	38(15.6)	243(100.0)	$\chi^2 = 11.05^*$ df = 4
	여	1 (0.3)	10 (3.4)	136(46.9)	108(37.2)	35(12.1)	290(100.0)	
	계	4 (0.8)	29 (5.4)	252(47.3)	175(32.8)	73(13.7)	533(100.0)	
시간 절약	남	2 (0.8)	37 (15.2)	120(49.4)	59 (24.3)	25(10.3)	243(100.0)	$\chi^2 = 5.40$ df = 4
	여	· ·	40 (13.8)	138(47.6)	89 (30.7)	23(7.9)	290(100.0)	
	계	2 (0.4)	77 (14.4)	258(48.4)	148(27.8)	48(9.0)	533(100.0)	
가 격	남	13(5.3)	47 (19.3)	128(52.7)	46 (18.9)	9 (3.7)	243(100.0)	$\chi^2 = 3.33$ df = 4
	여	9 (3.1)	64 (22.1)	161(55.5)	49 (16.9)	7 (2.4)	290(100.0)	
	계	22(4.1)	111(20.8)	289(54.2)	95 (17.8)	16(3.0)	533(100.0)	
위 생	남	12(4.9)	60 (24.7)	116(47.7)	46 (18.9)	9 (3.7)	243(100.0)	$\chi^2 = 10.88^*$ df = 4
	여	15(5.2)	97 (33.4)	138(47.6)	37 (12.8)	3 (1.0)	290(100.0)	
	계	27(5.1)	157(29.5)	254(47.7)	83 (15.6)	12(2.3)	533(100.0)	
서 비 스	남	16(6.6)	49 (20.2)	108(44.4)	59 (24.3)	11(4.5)	243(100.0)	$\chi^2 = 4.67$ df = 4
	여	11(3.8)	67 (23.1)	138(47.6)	67 (23.1)	7 (2.4)	290(100.0)	
	계	27(5.1)	116(21.8)	246(46.2)	126(23.6)	18(3.4)	533(100.0)	
분 위 기	남	11(4.5)	33 (13.6)	113(46.5)	67 (27.6)	19(7.8)	243(100.0)	$\chi^2 = 4.90$ df = 4
	여	10(3.4)	30 (10.3)	159(54.8)	76 (26.2)	15(5.2)	290(100.0)	
	계	21(3.9)	63 (11.8)	272(51.0)	143(26.8)	34(6.4)	533(100.0)	
양	남	9 (3.7)	26 (10.7)	116(47.7)	69 (28.4)	23(9.5)	243(100.0)	$\chi^2 = 6.35$ df = 4
	여	8 (2.8)	20 (6.9)	168(57.9)	69 (23.8)	25(8.6)	290(100.0)	
	계	17(3.2)	46 (8.6)	284(53.3)	138(25.9)	48(9.0)	533(100.0)	

1) * P<.05 ** P<.01 *** P<.001

〈부표 9-1〉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미각정도

빈도(%)

변 수		소 금 미 각						계
		아주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거의그렇지 않다	전혀그렇지 않다		
성 별	남	23(9.5)	82 (34.0)	92 (38.2)	33 (13.7)	11(4.6)	241(100.0)	$\chi^2 = 24.02^{***}$ df = 4
	여	14(4.9)	68 (23.9)	100(35.1)	76 (26.7)	27(9.5)	285(100.0)	
연 령	20세미만	12(8.8)	37 (27.2)	50 (36.8)	32 (23.5)	5 (3.7)	136(100.0)	$\chi^2 = 5.88$ df = 8
	20-22세	19(6.2)	89 (29.2)	108(35.4)	63 (20.7)	26(8.5)	305(100.0)	
	22세이상	6 (7.1)	24 (28.2)	34 (40.0)	14 (16.5)	7 (8.2)	85 (100.0)	
학 년	1	13(9.1)	47 (32.9)	47 (32.9)	29 (20.3)	7 (4.9)	143(100.0)	$\chi^2 = 9.45$ df = 12
	2	12(7.8)	37 (24.0)	61 (39.6)	33 (21.4)	11(7.1)	154(100.0)	
	3	6 (4.4)	39 (28.9)	46 (34.1)	30 (22.2)	14(10.4)	135(100.0)	
	4	6 (6.4)	27 (28.7)	38 (40.4)	17 (18.1)	6 (6.4)	94 (100.0)	
계 열	인문	11(6.9)	39 (24.4)	58 (36.3)	37 (23.1)	15(9.4)	160(100.0)	$\chi^2 = 8.45$ df = 8
	자연	23(7.1)	96 (29.7)	115(35.6)	69 (21.4)	20(6.2)	323(100.0)	
	예체능	3 (7.0)	15 (34.9)	19 (44.2)	3 (7.0)	3 (7.0)	43 (100.0)	
계		37(7.0)	150(28.5)	192(36.5)	109(20.7)	38(7.2)	526(100.0)	
고 추 미 각								
성 별	남	31(12.8)	88 (36.4)	90 (37.2)	22(9.1)	11(4.5)	242(100.0)	$\chi^2 = 8.77$ df = 4
	여	51(17.9)	105(36.8)	76 (26.7)	36(12.6)	17(6.0)	285(100.0)	
연 령	20세미만	13(9.5)	49 (35.8)	50 (36.5)	22(16.1)	3 (2.2)	137(100.0)	$\chi^2 = 19.21^*$ df = 8
	20-22세	56(18.4)	119(39.0)	88 (28.9)	25(8.2)	17(5.6)	305(100.0)	
	22세이상	13(15.3)	25 (29.4)	28 (32.9)	11(12.9)	8 (9.4)	85 (100.0)	
학 년	1	14(9.8)	53 (37.1)	49 (34.3)	21(14.7)	6 (4.2)	143(100.0)	$\chi^2 = 13.09$ df = 12
	2	22(14.2)	55 (35.5)	52 (33.5)	17(11.0)	9 (5.8)	155(100.0)	
	3	26(19.3)	49 (36.3)	39 (28.9)	11(8.1)	10(7.4)	135(100.0)	
	4	20(21.3)	36 (38.3)	26 (27.7)	9 (9.6)	3 (3.2)	94 (100.0)	
계 열	인문	25(15.5)	60 (37.3)	51 (31.7)	15(9.3)	10(6.2)	161(100.0)	$\chi^2 = 3.51$ df = 8
	자연	52(16.1)	117(36.2)	98 (30.3)	40(12.4)	16(5.0)	323(100.0)	
	예체능	5 (11.6)	16 (37.2)	17 (39.5)	3 (7.0)	2 (4.7)	43 (100.0)	
계		82(15.6)	193(36.6)	166(31.5)	58(11.0)	28(5.3)	527(100.0)	

1) * P<.05 ** P<.01 *** P<.001

〈부표 9-2〉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미각정도 빈도(%)

변수		식 초 미 각						계
		아주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거의그렇지 않다	전혀그렇지 않다		
성 별	남	3 (1.2)	29(12.0)	93 (38.6)	92 (38.2)	24(10.0)	241(100.0)	$\chi^2 = 21.88^{***}$ df = 4
	여	14(4.9)	61(21.4)	77 (27.0)	90 (31.6)	43(15.1)	285(100.0)	
연 령	20세미만	3 (2.2)	19(14.0)	45 (33.1)	49 (36.0)	20(14.7)	136(100.0)	$\chi^2 = 5.36$ df = 8
	20-22세	11(3.6)	59(19.3)	101(33.1)	99 (32.5)	35(11.5)	305(100.0)	
	22세이상	3 (3.5)	12(14.1)	24 (28.2)	34 (40.0)	12(14.1)	85 (100.0)	
학 년	1	2 (1.4)	21(14.7)	50 (35.0)	47 (32.9)	23(16.1)	143(100.0)	$\chi^2 = 8.85$ df = 12
	2	7 (4.5)	25(16.2)	49 (31.8)	53 (34.4)	20(13.0)	154(100.0)	
	3	4 (3.0)	30(22.2)	39 (28.9)	48 (35.6)	14(10.4)	135(100.0)	
	4	4 (4.3)	14(14.9)	32 (34.0)	34 (36.2)	10(10.6)	94 (100.0)	
계 열	인문	11(6.9)	19(11.9)	51 (31.9)	59 (36.9)	20(12.5)	160(100.0)	$\chi^2 = 15.55^*$ df = 8
	자연	6 (1.9)	65(20.1)	102(31.6)	109(33.7)	41(12.7)	323(100.0)	
	예체능	. .	6 (14.0)	17 (39.5)	14 (32.6)	6 (14.0)	43 (100.0)	
계		17(3.2)	90(17.1)	170(32.3)	182(34.6)	67(12.7)	526(100.0)	
설 탕 미 각								
성 별	남	8 (3.3)	56 (23.2)	116(48.1)	52 (21.6)	9 (3.7)	241(100.0)	$\chi^2 = 8.0$ df = 4
	여	10(3.5)	51 (17.8)	123(43.0)	81 (28.3)	21(7.3)	286(100.0)	
연 령	20세미만	4 (2.9)	36 (26.3)	57 (41.6)	33 (24.1)	7 (5.1)	137(100.0)	$\chi^2 = 5.11$ df = 8
	20-22세	10(3.3)	57 (18.7)	144(47.2)	76 (24.9)	18(5.9)	305(100.0)	
	22세이상	4 (4.7)	14 (16.5)	38 (44.7)	24 (28.2)	5 (5.9)	85 (100.0)	
학 년	1	4 (2.8)	35 (24.3)	61 (42.4)	36 (25.0)	8 (5.6)	144(100.0)	$\chi^2 = 9.93$ df = 12
	2	5 (3.2)	26 (16.9)	80 (51.9)	34 (22.1)	9 (5.8)	154(100.0)	
	3	6 (4.4)	27 (20.0)	54 (40.0)	37 (27.4)	11(8.1)	135(100.0)	
	4	3 (3.2)	19 (20.2)	44 (46.8)	26 (27.7)	2 (2.1)	94 (100.0)	
계 열	인문	8 (5.0)	31 (19.3)	74 (46.0)	40 (24.8)	8 (5.0)	161(100.0)	$\chi^2 = 8.68$ df = 8
	자연	10(3.1)	67 (20.7)	147(45.5)	83 (25.1)	16(5.0)	323(100.0)	
	예체능	. .	9 (20.9)	18 (41.9)	10 (23.3)	6 (14.0)	43 (100.0)	
계		18(3.4)	170(32.3)	239(45.4)	133(25.2)	30(5.7)	527(100.0)	

1) * P<.05 ** P<.01 *** P<.001

〈부표 10〉 한번 갔던 음식점에 다시 가는 이유

빈도 (%)

2순위		친절	위생	맛	다양한 메뉴	분위기	가격	양	기타	계	비고
성별	남	35(14.6)	28(11.7)	29(12.1)	28(11.7)	36 (15.0)	51 (21.3)	22(9.2)	11(4.6)	240(100.0)	$\chi^2 = 24.37^{***}$ df = 7
	여	33(11.5)	25(8.7)	26(9.0)	37(12.8)	64 (22.2)	87 (30.2)	15(5.2)	1 (0.7)	288(100.0)	
학년	1	14(9.7)	15(10.3)	12(8.3)	25(17.2)	32 (22.1)	35 (24.1)	11(7.6)	1(0.7)	145(100.0)	$\chi^2 = 25.85$ df = 21
	2	20(13.0)	16(10.4)	22(14.3)	11(7.1)	22 (14.3)	43 (27.9)	14(9.1)	6(3.9)	154(100.0)	
	3	21(15.7)	13(9.7)	13(9.7)	14(10.4)	31 (23.1)	31 (23.1)	9 (6.7)	2(1.5)	134(100.0)	
	4	13(13.7)	9 (9.5)	8 (8.4)	15(15.8)	15 (15.8)	29 (30.5)	3 (3.2)	393.20	95 (100.0)	
계열	인문	19(11.5)	12(7.3)	25(15.2)	19(11.5)	29 (17.6)	51 (30.9)	9 (5.5)	1(0.6)	165(100.0)	$\chi^2 = 16.80$ df = 14
	자연	42(13.1)	35(10.9)	25(7.8)	41(12.8)	64 (19.9)	80 (24.9)	25(7.8)	9(2.8)	321(100.0)	
	예체능	7 (16.7)	6 (14.3)	5 (11.9)	5 (11.9)	7 (16.7)	7 (16.7)	3 (7.1)	2(4.8)	42 (100.0)	
연령	20세미만	14(9.7)	17(11.7)	11(7.6)	21(14.5)	31 (21.4)	37 (25.5)	14(9.7)		145(100.0)	$\chi^2 = 17.82$ df = 14
	20-22세	33(12.8)	21(8.1)	33(12.8)	33(12.8)	49 (19.0)	68 (26.4)	13(5.0)	8(3.1)	258(100.0)	
	22세이상	21(16.8)	15(12.0)	11(8.8)	11(8.8)	20 (16.0)	33 (26.4)	10(8.0)	4(3.2)	125(100.0)	
주거형태	자가	39(11.6)	29(8.6)	40(11.9)	36(10.7)	65 (19.3)	94 (28.0)	26(7.7)	7(2.1)	336(100.00)	$\chi^2 = 19.68$ df = 14
	자취	25(19.2)	15(11.5)	9 (6.9)	18(13.8)	19 (14.6)	33 (25.4)	7 (5.4)	4(3.1)	130(100.0)	
	하숙	4 (6.5)	9 (14.5)	6 (9.7)	11(17.7)	16 (25.8)	11 (17.7)	4 (6.5)	1(1.6)	62 (100.0)	
식생활관	상	20(13.4)	13(8.7)	14(9.4)	15(10.1)	35 (23.5)	38 (25.5)	12(8.1)	2(1.3)	149(100.0)	$\chi^2 = 9.06$ df = 14
	중	30(12.7)	23(9.7)	22(9.3)	33(13.9)	43 (18.1)	63 (26.6)	18(7.6)	5(2.1)	237(100.0)	
	하	18(12.7)	17(12.0)	19(13.4)	17(12.0)	22 (15.5)	37 (26.1)	7 (4.9)	5(3.5)	142(100.0)	
계		68(12.9)	53(10.0)	55(10.4)	65(12.3)	100(18.9)	138(26.1)	37(7.0)	12(2.3)	528(100.0)	
3순위		친절	위생	다양한 메뉴	분위기	가격	양	시간 절약	기타	계	비고
성별	남	35(14.8)	27(11.4)	15(6.3)	35(14.8)	57(24.1)	21(8.9)	22(9.3)	25(10.5)	237(100.0)	$\chi^2 = 13.38$ df = 7
	여	48(16.8)	23(8.1)	19(6.7)	62(21.8)	68(23.9)	34(11.9)	14(4.9)	17(6.0)	285(100.0)	
학년	1	25(17.2)	6 (4.1)	8 (5.5)	30(20.7)	39(26.9)	11(7.6)	14(9.7)	12(8.3)	145(100.0)	$\chi^2 = 27.39$ df = 21
	2	23(15.3)	16(10.7)	9 (6.0)	29(19.3)	29(19.3)	21(14.0)	10(6.7)	13(8.7)	150(100.0)	
	3	26(19.4)	14(10.4)	7 (5.2)	22(16.4)	39(29.1)	10(7.5)	7 (5.2)	9 (6.7)	134(100.0)	
	4	9 (9.7)	14(15.1)	10(10.8)	16(17.2)	18(19.4)	13(14.0)	5(5.4)	8 (8.6)	93 (100.0)	
계열	인문	21(12.9)	18(11.0)	14(8.6)	30(18.4)	33(20.2)	219(12.9)	8 (4.9)	18(11.0)	163(100.0)	$\chi^2 = 18.12$ df = 14
	자연	57(17.9)	26(8.2)	19(6.0)	61(19.2)	81(25.5)	32(10.1)	22(6.9)	20(6.3)	318(100.0)	
	예체능	5 (12.2)	6 (14.6)	1 (2.4)	6 (14.6)	11(26.8)	2 (4.9)	6 (14.6)	4 (9.8)	41 (100.0)	
연령	20세미만	28(19.4)	13(9.0)	24(16.7)	31(21.5)	20(13.9)	8 (5.6)	14(9.7)	6 (4.2)	144(100.0)	$\chi^2 = 6.22$ df = 14
	20-22세	38(15.0)	19(7.5)	44(17.4)	68(26.9)	36(14.2)	11(4.3)	26(10.3)	11(4.3)	253(100.0)	
	22세이상	22(17.3)	12(9.4)	16(12.6)	29(22.8)	21(16.5)	8 (6.3)	119 8.7)	8 (6.3)	127(100.0)	
주거형태	자가	47(14.1)	36(10.8)	26(7.8)	64(19.2)	82(24.6)	31(9.3)	21(6.3)	27(8.1)	334(100.00)	$\chi^2 = 17.39$ df = 14
	자취	22(16.9)	11(8.5)	6 (4.6)	22(16.9)	28(21.5)	21(16.2)	12(9.2)	8 9 6.2)	130(100.0)	
	하숙	14(24.1)	3 (5.2)	2 (3.4)	11(19.0)	15(25.9)	3 (5.2)	3 (5.2)	7 (12.1)	58 (100.0)	
식생활관	상	25(16.8)	13(8.7)	9 (6.0)	28(18.8)	39(26.2)	17(11.4)	7 (4.7)	11(7.4)	149(100.0)	$\chi^2 = 4.24$ df = 14
	중	36(15.6)	24(10.4)	14(6.1)	44(19.0)	55(23.8)	22(9.5)	16(6.9)	20(8.7)	237(100.0)	
	하	22(15.5)	13(9.2)	11(7.7)	25(17.6)	31(21.8)	16(11.3)	13(9.2)	11(7.7)	142(100.0)	
계		83(15.9)	50(9.6)	34(6.5)	97(18.6)	125(23.9)	55(10.5)	36(6.9)	42(8.0)	522(100.0)	

1) * P<.05 ** P<.01 *** P<.001

〈부표 11〉 한번 갔던 음식점에 다시 가지 않는 이유

빈도 (%)

2순위		가격	맛	비위생	불친절	분위기	단순한 메뉴	양	기타	계	비고
성별	남	50 (20.7)	52 (21.6)	44 (18.3)	51 (21.2)	24(10.0)	9 (3.7)		11(4.6)	241(100.0)	$\chi^2 = 6.08$
	여	61 (21.1)	47 (16.3)	66 (22.8)	74 (25.6)	20(6.9)	9 (3.1)		12(4.2)	289(100.0)	df = 6
학년	1	32 (22.2)	22 (15.3)	31 (21.5)	33 (22.9)	14(9.7)	3 (2.1)		9 (6.3)	144(100.0)	$\chi^2 = 20.45$ df = 18
	2	37 (23.6)	37 (23.6)	29 (18.5)	31 (19.7)	7 (4.5)	10(6.4)		6 (3.8)	157(100.0)	
	3	23 (17.2)	24 (17.9)	29 (21.6)	39 (29.1)	12(9.0)	2 (1.5)		5 (3.7)	134(100.0)	
	4	19 (20.0)	16 (16.8)	21 (22.1)	22 (23.2)	11(11.6)	3 (3.2)		3 (3.2)	95 (100.0)	
계열	인문	42 (25.6)	33 (20.1)	32 (19.5)	37 (22.6)	10(6.1)	4 (2.4)		6 (3.7)	164(100.0)	$\chi^2 = 13.84$ df = 12
	자연	63 (19.4)	59 (18.2)	65 (20.1)	81 (25.0)	31(9.6)	10(3.1)		15(4.6)	324(100.0)	
	예체능	6 (14.3)	7 (16.7)	13 (31.0)	7 (16.7)	3 (7.1)	4 (9.5)		2 (4.8)	42 (100.0)	
연령	20세미만	31 (21.1)	26 (17.7)	33 (22.4)	31 (21.1)	12(8.2)	4 (2.7)		10(6.8)	147(100.0)	$\chi^2 = 7.03$ df = 12
	20-22세	56 (22.0)	47 (18.4)	50 (19.6)	64 (25.1)	18(7.1)	10(3.9)		10(3.9)	255(100.0)	
	22세이상	24 (18.8)	26 (20.3)	27 (21.1)	30 (23.4)	14(10.9)	4 (3.1)		3 (2.3)	128(100.0)	
주거형태	자가	63 (18.8)	65 (19.3)	70 (20.8)	85 (25.3)	26(7.7)	13(3.9)		14(4.2)	336(100.0)	$\chi^2 = 7.97$ df = 12
	자취	32 (24.4)	23 (17.6)	30 (22.9)	25 (19.1)	10(7.6)	4 (3.1)		7 (5.3)	131(100.0)	
	하숙	16 (25.4)	11 (17.5)	10 (15.9)	15 (23.8)	8 (12.7)	1 (1.6)		2 (3.2)	63 (100.0)	
식생활관	상	35 (23.0)	41 (27.0)	23 (15.1)	28 (18.4)	18(11.8)	3 (2.0)		7 (4.9)	143(100.0)	$\chi^2 = 24.41^*$ df = 12
	중	45 (19.1)	33 (14.0)	50 (21.3)	66 (28.1)	19 (8.1)	10(4.3)		12(5.1)	235(100.0)	
	하	31 (21.7)	25 (17.5)	37 (25.9)	31 (21.7)	7 (4.9)	5 (3.5)		4 (2.6)	152(100.0)	
계		111(20.9)	99 (18.7)	110(20.8)	125(23.6)	44(8.3)	18(3.4)		23(4.3)	528(100.0)	
3순위		친절	위생	다양한 메뉴	분위기	가격	양	시간 절약	기타	계	비고
성별	남	32(13.4)	24(10.0)	37(15.5)	52(21.8)	28(11.7)	18(7.5)	32(13.4)	16(6.7)	239(100.0)	$\chi^2 = 22.74^{**}$ df = 7
	여	56(19.6)	20(7.0)	47(16.5)	76(26.7)	49(17.2)	9 (3.2)	19(6.7)	9 (3.2)	285(100.0)	
학년	1	24(16.8)	12(8.4)	23(16.1)	33(23.1)	19(13.3)	9(6.3)	18(12.6)	5 (3.5)	143(100.0)	$\chi^2 = 18.22$ df = 21
	2	23(15.0)	13(8.5)	25(16.3)	31(20.3)	26(17.0)	7(4.6)	18(11.8)	10(6.5)	153(100.0)	
	3	22(16.5)	10(7.5)	22(16.5)	42(31.6)	20(15.0)	3(2.3)	10(7.5)	4 (3.0)	133(100.0)	
	4	19(20.0)	9 (9.5)	14(14.7)	22(23.2)	12(12.6)	8(8.4)	5 (5.3)	6 (6.3)	95 (100.0)	
계열	인문	24(14.9)	9 (5.6)	24(14.9)	48(29.8)	28(17.4)	6 (3.7)	18(11.2)	4 (2.5)	161(100.0)	$\chi^2 = 21.26$ df = 14
	자연	59(18.3)	30(9.3)	55(17.1)	72(22.4)	45(14.0)	18(5.6)	28(8.7)	15(4.7)	322(100.0)	
	예체능	5 (12.2)	5 (12.2)	5 (12.2)	8 (19.5)	4 (9.8)	3 (7.3)	5 (12.2)	6 (14.6)	41 (100.0)	
연령	20세미만	28(19.4)	13(9.0)	24(16.7)	31(21.5)	20(13.9)	8 (5.6)	14(9.7)	6 (4.2)	144(100.0)	$\chi^2 = 6.22$ df = 14
	20-22세	38(15.0)	19(7.5)	44(17.4)	68(26.9)	36(14.2)	11(4.3)	26(10.3)	11(4.3)	253(100.0)	
	22세이상	22(17.3)	12(9.4)	16(12.6)	29(22.8)	21(16.5)	8 (6.3)	11(8.7)	8 (6.3)	127(100.0)	
주거형태	자가	61(18.4)	28(8.4)	60(18.1)	77(23.2)	47(14.2)	15(4.5)	29(8.7)	15(4.5)	332(100.0)	$\chi^2 = 15.24$ df = 14
	자취	18(13.8)	7 (5.4)	16(12.3)	39(30.0)	22(16.9)	9 (6.9)	12(9.2)	7 (5.4)	130(100.0)	
	하숙	9 (14.5)	9 (14.5)	8 (12.9)	12(19.4)	8 (12.9)	3 (4.8)	10(16.1)	3 (4.8)	62 (100.0)	
식생활관	상	22(14.6)	14(9.3)	26(17.2)	41(27.2)	24(15.9)	3 (2.0)	12(7.9)	9(6.0)	143(100.0)	$\chi^2 = 12.85$ df = 14
	중	46(20.0)	18(7.8)	35(15.2)	51(22.2)	34(14.8)	13(5.7)	26(11.3)	7(3.0)	230(100.0)	
	하	22(14.6)	12(8.4)	23(16.1)	36(25.2)	19(13.3)	11(7.7)	13(9.1)	9(6.3)	151(100.0)	
계		88(16.8)	44(8.4)	84(16.0)	128(24.4)	77(14.7)	27(5.2)	51(9.7)	25(4.8)	524(100.0)	

1) * P<.05 ** P<.01 *** P<.001 2) 빈공간은 해당사항 없음.

〈부표 12〉 음주행동

빈도 (%)

변 수		의식형태								
		식사위주	술위주	식사와술	기타	계	비 고			
음주 여부	한다	172(35.9)	104(21.7)	191(39.9)	12(2.5)	479(100.0)	$\chi^2 = 33.69^{***}$ $df = 3$			
	안한다	41 (75.9)	7 (13.0)	5 (9.3)	1 (1.9)	54 (100.0)				
	계	213(40.0)	111(20.8)	196(36.8)	13(2.4)	533(100.0)				
음주 여부	한다 안한다 계	결식정도								
		매우심함	아주심함	약간심함	양호함	계				
		168(35.1)	125(26.1)	92(19.2)	94 (19.6)	479(100.0)	$\chi^2 = 3.84$ $df = 3$			
		23 (42.6)	10 (18.5)	7 (13.0)	14 (25.9)	54 (100.0)				
		191(35.8)	135(25.3)	99(18.6)	108(20.3)	533(100.0)				
음주 여부	한다 안한다 계	비만정도								
		비만	과체중	정 상	저 체중	계				
		25(5.2)	79(16.5)	329(68.7)	46(9.6)	479(100.0)	$\chi^2 = 5.59$ $df = 3$			
		4 (7.4)	3 (5.6)	39 (72.2)	8 (14.8)	54 (100.0)				
		29(5.4)	82(15.4)	368(69.0)	54(10.1)	533(100.0)				
음주 여부	한다 안한다 계	편식여부								
		전혀안함	가끔함	약간심함	매우심함	계				
		144(30.1)	235(49.1)	81(16.9)	19(4.0)	479(100.0)	$\chi^2 = 4.38$ $df = 3$			
		12 (22.2)	29 (53.7)	8 (14.8)	5 (9.3)	54 (100.0)				
		156(29.3)	264(49.5)	89(16.7)	24(4.5)	533(100.0)				
부모 음주	두분모두함 부만함 모만함 두분모두안 함 계	음주여부								
		한다	안한다			계				
		168(93.9)	11(6.1)			179(100.0)	$\chi^2 = 11.04^*$ $df = 3$			
		191(89.7)	22(10.3)			213(100.0)				
		16 (100.0)	-			16 (100.0)				
		104(83.2)	21(16.8)			125(100.0)				
		479(89.9)	54(10.1)			533(100.0)				
흡연여부										
부모 흡연	두분모두함 부만함 모두안함 계	한다	안한다			계				
		7 (63.6)	4 (36.4)			11 (100.0)	$\chi^2 = 7.64^*$ $df = 2$			
		93 (31.8)	199(68.2)			292(100.0)				
		58 (26.5)	161(73.5)			219(100.0)				
		158(30.3)	364(69.7)			522(100.0)				
음주 여부	한다 안한다 계	문제점으로 인식되는 식습관								
		폭식	자극적인 식사	결식	편식	기타	계			
		177(3.7)	55(11.5)	127(26.5)	68(14.2)	52(10.9)	479(100.0)	$\chi^2 = 3.94$ $df = 4$		
		15 (27.8)	4 (7.4)	18 (33.3)	11(20.4)	6 (11.1)	54 (100.0)			
		192(36.0)	59(11.1)	145(27.2)	79(14.8)	58(10.9)	533(100.0)			
		흡연 여부	한다 안한다 계	52 (32.9)	18(11.4)	53 (33.5)	20(12.1)	15(9.5)	158(100.0)	$\chi^2 = 5.25$ $df = 4$
				140(38.5)	38(10.4)	89 (24.5)	56(15.4)	41(11.3)	364(100.0)	
192(36.8)	56(10.7)			142(27.2)	76(14.6)	56(10.7)	533(100.0)			

1) * P<.05 ** P<.01 *** P<..001

2) 빈공간은 해당사항 없음.

제주도 대학생의 외식소비 성향 설문지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가정교육을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이 설문지는 제주지역 대학생의 외식행동을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설문지 내용에는 정답이 없으며, 수집된 자료는 본인의 석사학위 청구논문 등을 위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응답내용은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각 문항을 정확하게, 그리고 빠짐없이 당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99년 11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정 은 정

※. 아래 문항에 해당하는 난에 응답해 주세요.

1. 한끼 식사소비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10분 미만 ② 10분 - 30분 미만 ③ 30분 - 1시간미만 ④ 1시간이상 미만
2. 가장 중요시하는 식사는 언제입니까?
 ① 아침 ② 점심 ③ 저녁 ④ 매끼 ⑤ 기타
3. 가족의 외식빈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자주 한다 ② 가끔 한다 ③ 거의 안 한다 ④ 전혀 안 한다
4. 가족의 월 외식비는 얼마 정도입니까?
 ① 5만원 미만 ② 10 - 15만원 미만 ③ 15 - 20만원 미만
 ④ 20 - 25만원 미만 ⑤ 25 - 30만원 미만 ⑥ 30만원 이상
5. 자신의 월 외식비는 얼마 정도입니까? ()원
6. 자신이 주로 하는 외식의 형태는?
 ① 식사를 주로 한다 ② 술을 주로 한다 ③ 식사와 술을 같이 한다 ④ 기타
7. 외식을 하는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일 ② 주5-6회 ③ 주3-4회 ④ 주 1-2회
 ⑤ 월2-3회 ⑥ 전혀 안 함 ⑦ 기타
8. 끼니에 따른 외식정도는 어떻습니까?
 1)아침 : ①항상 한다 ②자주 외식한다 ③가끔 한다 ④전혀 안한다
 2)점심 : ①항상 한다 ②자주 외식한다 ③가끔 한다 ④전혀 안한다
 3)저녁 : ①항상 한다 ②자주 외식한다 ③가끔 한다 ④전혀 안한다

9. 외식시 1회 비용은 얼마정도입니까?

① 아침 () ② 점심 () ③ 저녁 ()

10. 외식을 하게 되는 동기는 주로 무엇입니까?

외식 동기	아침		점심		저녁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①끼니해결						
②친구 만날 때						
③친지 방문으로						
④모임 있을 때						
⑤가족 외식으로						
⑥기타()						

11. 외식을 하게 되는 목적(이유)는 주로 무엇입니까?

외식 목적	아침		점심		저녁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①친목도모						
②맛을 즐기기 위해						
③시간 절약을 위해						
④영양보충을 위해						
⑤기타()						

12. 외식할 때 끼니에 따라 자주 가는 음식점은 어디입니까?

음 식 점	아침		점심		저녁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① 스낵집						
② 분식집						
③ 중국집						
④ 일반한식집						
⑤ 갈빗집						
⑥ 일식집						
⑦ 한식부페집						
⑧ 양식부페집						
⑨ 경양식집						
⑩ 횡집						
⑪ 피자점						
⑫ 학교식당						
⑬ 햄버거집						
⑭ 치킨집						
⑮ 족발집						
⑯ 소고기부페						

13. 외식할 때 계절에 따라 자주 가는 음식점은 어디입니까?

음 식 점	봄		여름		가을		겨울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① 스낵집								
② 분식집								
③ 중국집								
④ 일반적인식집								
⑤ 갈빗집								
⑥ 일식집								
⑦ 한식부페집								
⑧ 양식부페집								
⑨ 경양식집								
⑩ 횃집								
⑪ 피자점								
⑫ 학교식당								
⑬ 햄버거집								
⑭ 치킨집								
⑮ 족발집								
⑯ 소고기부페								

14. 외식할 때 동기에 따라 자주 가는 음식점은 어디입니까?

내 용	끼니해결		친구만날때		친지방문시		모임있을때		가족외식시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① 스낵집										
② 분식집										
③ 중국집										
④ 일반적인식집										
⑤ 갈빗집										
⑥ 일식집										
⑦ 한식부페집										
⑧ 양식부페집										
⑨ 경양식집										
⑩ 횃집										
⑪ 피자점										
⑫ 학교식당										
⑬ 햄버거집										
⑭ 치킨집										
⑮ 족발집										
⑯ 소고기부페										

15. 외식할 때 음식점 선택의 주된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 용	아침		점심		저녁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① 기호도						
② 건강상태						
③ 영양						
④ 간편성						
⑤ 시간절약						
⑥ 가격						
⑦ 위생상태						
⑧ 광고						
⑨ 주위의 권유						
⑩ 분위기						
⑪ 서비스						
⑫ 양						

16. 외식할 때 끼니에 따라 자주 먹는 음식종류는 무엇입니까?

- ① 아침 : 1순위(), 2순위(), 3순위()
 ② 아침 : 1순위(), 2순위(), 3순위()
 ③ 아침 : 1순위(), 2순위(), 3순위()

17. 외식할 때 계절에 따라 자주 먹는 음식종류는 무엇입니까?

- ① 아침 : 1순위(), 2순위(), 3순위()
 ② 아침 : 1순위(), 2순위(), 3순위()
 ③ 아침 : 1순위(), 2순위(), 3순위()

18. 외식할 때 동기에 따라 자주 먹는 음식종류는 무엇입니까?

- ① 아침 : 1순위(), 2순위(), 3순위()
 ② 아침 : 1순위(), 2순위(), 3순위()
 ③ 아침 : 1순위(), 2순위(), 3순위()

19. 외식을 하고 난 후 외식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내 용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이다	약간불만족	아주 불만족
① 기호					
② 영양					
③ 간편성					
④ 시간절약					
⑤ 가격					
⑥ 위생					
⑦ 서비스					
⑧ 분위기					
⑨ 양					

20. 외식을 하고 난 후 한 번 갔던 음식점에 다시 가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가게되는 이유	1순위	2순위	3순위
①종업원이 친절해서			
②위생적이어서			
③음식맛이 좋아서			
④메뉴가 다양해서			
⑤분위기가 좋아서			
⑥가격이 저렴해서			
⑦양이 많아서			
⑧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서			
⑨기타			

21. 한번 갔던 음식점에 다시 찾지 않는 이유는 주로 무엇입니까?

다시 찾지 않는 이유	1순위	2순위	3순위
①가격이 비싸서			
②맛이 없어서			
③비위생적이어서			
④불친절해서			
⑤분위기가 나빠서			
⑥메뉴가 단순해서			
⑦양이 적어서			
⑧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서			
⑨기타			

※ 아래 문항에 해당하는 난에 응답해 주세요.

- 술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① 좋아한다 ②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다 ③ 싫어한다 ④ 술에 대해 잘 모른다.
- 당신의 음주여부는 어떠하십니까? ① 한다 ② 안한다(②번선택시 12번으로)
- 음주를 한다면 주로 음주를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①친목도모 ② 긴장,스트레스해소 ③ 술이 좋아서 ④ 모임시에
⑤주위의 권유로 ⑥ 기분이 좋아서 ⑦기분이 나빠서 ⑧ 기타 ()
- 음주를 처음 시작한 나이는? ()세
- 처음 술을 마시게 된 주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①주위사람의 권유나 강요 ②호기심 ③대인관계를 위해 ④기타 ()
- 파음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파음을 한 경험이 있다면 얼마나 자주 하게 되나요?
① 매일 ② 주5-6회 ③ 주3-4회 ④ 주2회 ⑤ 주1회 ⑥기타

8. 음주를 할 경우 아래 문항에 답해 주세요.

- ① 주로 마시는 술의 종류 ()
 ② 그 술을 주로 마시는 이유 ()
 ③ 1회 마시는 술의 양 ()
 ④ 1회 비용 ()

9. 음주를 한다면 음주빈도는 ?

- ① 주 6회 이상 ② 주 4-5회 ③ 주 2-3회 ④ 주 1회 ⑤ 월 1-2회

10. 음주를 할 경우 주로 마시는 장소는?

- ① 민속 주점 ② 호프집 ③ 단란주점 ④ 카페
 ⑤ 양식집 ⑥ 나이트클럽 ⑦ 노래방 ⑧ 기타

11. 음주를 할 경우 술자리 횟수는 주로 몇차 까지 가게 됩니까?

- ① 1차 ② 2차 ③ 3차 ④ 4차 이상

12.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건강을 생각해서 ② 알레르기 때문에 ③ 가족의 권유로
 ④ 한 번도 마셔보지 않아서 ⑤ 맛이 없어서 ⑥ 기타()

13. 당신의 흡연여부는 어떻습니까? ① 한다 ② 안 한다(②번 선택시17번 문항으로)

14. 부모 음주 여부는 어떠하십니까?

- ①부모 둘 다 한다 ②아버지만 하신다 ③ 어머니만 하신다 ④두분 모두 안 하신다

※ 다음 문항에 대하여 일치하는 난에 “V”를 하세요.

내 용	아주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음식은 잘하는 집을 찾아다니며 먹는다					
②음식은 영양보다 맛이 중요하다					
③맛있는 것 앞에서는 다이어트가 불필요하다.					
④먹는 것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					
⑤먹는 것은 인생의 낙이다.					
⑥밥을 먹어야 제대로 식사를 한느낌이 든다.					
⑦국이나 찌개 등 국물이 있어야 밥을 잘 먹는다					
⑧대개의 경우 저녁은 집에서 먹는다.					
⑨서양음식보다 전통음식을 선호한다.					
⑩고기를 주로 하는 식사를 한다					
⑪채식을 주로 하는 식사를 한다.					
⑫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는 편이다					
⑬전문적인 영양지식이 풍부하다고 생각한다.					
⑭좋은식습관형성을 위해 영양교육이 필요하다.					

- 82 -

16. 결식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끼니	항상 안 먹는다	자주 안 먹는다	가끔 안 먹는다	항상 먹는다
아침				
점심				
저녁				

17. 당신의 미각 정도는 어떠하십니까?

미 각	아주그렇다	그저그렇다	보통이다	거의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짜게 먹는다					
달게 먹는다					
맵게 먹는다					
시게 먹는다					

18. 부모님의 직업과 일치하는 난에 “√”표 해주세요

	내 용	부	모
①	전문·기술직 : 의사, 약사, 간호사, 회계사, 판·검사, 교원, 종교관계종사자, 언론인, 창작예술가, 연예인, 체육인 등		
②	판매직 : 도·소매업, 판매외무원, 보험·부동산 및 증권거래인, 기업서비스 판매원, 경매인, 감정인, 판매원, 점원 등		
③	생산·단순노무직 : 운전사, 금속·목재가공 종사자, 재봉공, 제조공, 용접공, 전기·전자 수리공, 인쇄공, 장비조작공, 화물취급인 등		
④	행정·관리·사무직 : 공무원, 회사원, 기업체 중역, 관리직 사원, 기업주, 속기사, 경리출납원 등		
⑤	서비스직 : 요식·숙박업 관리자, 조리사, 가정부, 청소부, 건물관리원, 이발미용사, 환경미화원, 경찰관, 소방원, 안내원, 장의사 등		
⑥	농업, 어업, 수산업		
⑦	무직, 주부		